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2264-01

연구용역보고서
2012-01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2012. 4.

국 토 해 양 부

연구기관 :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해외건설협회

제 출 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4

연구기관 :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해외건설협회

■ 참여 연구진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이태경	책임연구원
	윤성빈	연구 원
	박소윤	연구 원
	이근철	연구 원
	변혜리	연구보조원
	김태윤	연구보조원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책임연구원
	은승진	연구 원
	김효은	연구 원
	손준형	연구보조원

목 차

목차	i
표목차	iv
그림목차	vi

제1장 연구의 개요 1

1.1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1.1.1 연구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2
1.1.3 연구의 구성	3
1.2 연구수행 방법	3
1.2.1 개요	3
1.2.2 설문조사 (Delphi Method)	5
1.2.3 Focus Group Interview (FGI)	6
1.2.4 금융기관별 이행성보증 현황 조사	7
1.2.5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관련 공청회	8

제2장 해외건설과 해외건설금융 9

2.1 해외건설금융	9
2.1.1 개요	9
2.1.2 해외 PF시장 현황	13
2.2 해외건설보증	18
2.2.1 건설보증의 의의와 역할	18
2.2.2 건설보증의 종류	22
2.2.3 해외건설보증 발급절차	25
2.2.4 해외건설보증 구조 및 형태	26
2.2.5 해외의 건설보증제도 및 지원사례	29

제3장 해외건설 금융 및 보증현황 43

3.1 해외건설 국내 보증현황	43
3.1.1 해외건설 진출현황	43
3.1.2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	45
3.1.3 해외건설 보증필요액	51
3.2 설문조사를 통한 금융현황	55
3.2.1 설문응답사 분류군별 금융현황 개요	55
3.2.2 금융현황 세부분석	57
3.3 해외건설 유관 금융기관의 보증업무	71
3.3.1 한국수출입은행	71
3.3.2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81

3.3.3 서울보증보험	91
3.3.4 건설공제조합	101
3.3.5 전문건설공제조합	118

제4장 해외건설 금융지원 확대방안 127

4.1 해외건설 금융의 중요성 및 제약	127
4.2 기존 기구를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	141
4.2.1 기존 기구 활용방안	141
4.2.2 기존 기구 활용방안의 한계	144
4.3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을 통한 지원	148
4.3.1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역할과 기대효과	148
4.3.2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요건	160
4.3.3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의 선결과제	162
4.3.4 해외건설 금융컨설팅기구 사업모델	169
4.3.5 OPIC(해외민간투자공사)과 유사한 정부주도의 해외건설금융공사	171

제5장 맺음말 176

5.1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타당성	176
5.2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안)	177

[부 록] 설문조사 내용

표 목 차

<표 2.1> 중동 PF시장의 발전과정	17
<표 2.2> 중동지역 PF 대출기관 비중변화	18
<표 2.3> 해외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24
<표 2.4> 독일 보증은행의 현황	31
<표 2.5> 독일 보증은행의 지원방식과 효과	31
<표 2.6> 일본의 건설업 보증회사	36
<표 2.7> 미국의 Contract surety bond 종류	40
<표 2.8> 주요 심사 내용	41
<표 3.1> 2007-2011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금액	43
<표 3.2> 2007-2011 수주 상위업체 해외건설 수주금액 및 비중	44
<표 3.3> 2007-2011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금액 및 비중	44
<표 3.4> 2007-2011 중견업체* 해외건설 수주금액 및 비중	45
<표 3.5> 2009-2011 연도별 이행성보증	46
<표 3.6> 최근 3개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현황	53
<표 3.7> 이행성 보증발급에 필요한 본드별 비율	53
<표 3.8> 해외건설 필요보증 금액	54
<표 3.9> 주요 보증관련업무	75
<표 3.10> 보증조건	75
<표 3.11> 상품별 금리	77
<표 3.12> 해외건설 연도별 대출 및 보증 실적	78
<표 3.13> 해외건설 지원예상금액(연간 집행액 기준 추정 수치)	79
<표 3.14> 수출보험제도	84
<표 3.15> 수입보험제도	85
<표 3.16> K-sure의 해외건설 지원실적 및 계획	87
<표 3.17> K-sure의 2012년 지원계획	88
<표 3.18> 공사이행보증보험의 기간 및 금액	94

<표 3.19> 최저 담보금액	97
<표 3.20> 이행성보증 발급 실적 (2009년-2011년)	98
<표 3.21> 해외건설보증 지원실적 (2011년)	98
<표 3.22> 건설공제조합의 용자의 종류 및 내용	105
<표 3.23>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제도 요약	110
<표 3.24>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종류 및 요율	111
<표 3.25> 건설공제조합 보증 실적	114
<표 3.26> 건설공제조합과 시중은행의 업무협약 내용	114
<표 3.27> 건설공제조합 계획별 예산 추정안	115
<표 3.28>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근재업무	121
<표 3.29>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123
<표 3.30> 보증수수료 요율표	124
<표 3.31> 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보증 실적	125
<표 4.1> 건설감리공제조합 설립 예	164
<표 4.2> 공사 형태 기업의 법적자본금 현황	165
<표 4.3> 국내 보증기관 국제신용평가 현황	168

그 립 목 차

<그림 1.1> 타당성 조사 방법	4
<그림 1.2> 설문·인터뷰·공청회 Key Question	5
<그림 2.1>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도	11
<그림 2.2> 세계 및 MENA지역 건설시장규모	13
<그림 2.3> 글로벌 PF 시장 규모	14
<그림 2.4> 글로벌 PF 대출시장 세부내용	15
<그림 2.5> 글로벌 PF시장 대비 중동 PF시장 비중	16
<그림 2.6> 1984년 매일경제 기사	19
<그림 2.7> 해외건설 수행단계별 수반금융	25
<그림 2.8> 해외건설보증의 형태 및 구조	26
<그림 2.9> 독일 보증제도의 구조	32
<그림 2.10> JBIC의 조직 구조	37
<그림 3.1> 최근 3개년 국내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액	46
<그림 3.2> 최근 3개년 국내은행 이행성보증 금액	47
<그림 3.3> 최근 3개년 보증서별 발급 건수	48
<그림 3.4> 최근 3개년 보증서별 발급액	49
<그림 3.5> 2009-2011 보증서별 연환산 수수료 현황	50
<그림 3.6> 시중은행의 담보요구 현황	51
<그림 3.7> 필요금액 비교 현황*	52
<그림 3.8> 2011년 해외건설 매출액 비중	58
<그림 3.9> 2011년 대비 2012년 해외매출 증가 예상치	59
<그림 3.10> 해외사업시 체감하는 금융의 중요도	60
<그림 3.11> 해외건설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	60
<그림 3.12> 금융지원시 우선순위	61
<그림 3.13> 보증 미발급으로 인한 수주실패	62
<그림 3.14> 보증서 발급 이용기관 비중	63
<그림 3.15> 보증서 발급시 부보활용 기관	63
<그림 3.16> 보증서 발급시 담보제공종류	64

<그림 3.17> 보증서 발급시 중요한 요인	65
<그림 3.18> 국내 bond 발급 수수료	66
<그림 3.19> 복보증시 총 수수료	66
<그림 3.20> 해외건설 사업시 주 자금조달처	67
<그림 3.21> 자금조달시 담보제공	68
<그림 3.22>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 한계요인	68
<그림 3.23>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필요성	69
<그림 3.24> 기존기관 활용시 지원형태	70
<그림 3.25> 한국수출입은행 조직도	72
<그림 3.26> 보증발급 절차	76
<그림 3.27> K-sure 조직도	83
<그림 3.28> 서울보증보험 조직도	92
<그림 3.29> 보증보험 형태 및 구조	93
<그림 3.30> 이행보증보험의 단계별 절차	95
<그림 3.31> 건설공제조합 조직도	102
<그림 3.32> 최근 5년간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및 출자좌수 변동추이	103
<그림 3.33> 전문건설공제조합 조직도	119
<그림 4.1> 2001-2012 해외건설 수주건당 평균 계약액	127
<그림 4.2> 금융지원 하의 해외수주 증가 전망	130
<그림 4.3> 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134
<그림 4.4>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증권	135
<그림 4.5> 우리은행이행지급보증서	136
<그림 4.6> 정부, 금융기관, 건설업체 측면 금융제약	140
<그림 4.7> 2009~2011년 총 필요 보증액 대비 국내 지원 비중	150
<그림 4.8> 규모별 손해율 및 수수료율 현황	158
<그림 4.9>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를 통한 해외수주액 증대효과	159
<그림 4.10> A.M. Best 신용평가 및 Rating 과정	167
<그림 4.11> 한국 국가신용등급 추이(S&P)	168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1.1 연구배경

가. 해외건설 수주의 대기업 편중현상

2011년 해외건설수주액 591억 달러 중 82%에 달하는 486억 달러가 상위 10개사가 수주한 금액일 정도로 대기업 편중현상이 두드러지며 2008년에는 67%, 2009년에는 77%, 2010년에 80%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대기업 편중현상은 '2014년 해외건설 수주액 1000억 달러,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해외건설수주 지역 다변화 및 공종다변화가 필수적인 현 시점에서 세그먼트 확장에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나. 중견·중소기업 시장개척의 제도적 어려움

해외건설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과도한 보증수수료 및 보증서 발급제한 등은 이들 기업의 해외수주활동을 어렵게 하는 내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수주확대 장애로 작용하는 보증서 발급제한

특히, 이행성 보증 발급에 있어서 대기업은 국내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계은행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이하의 경우에는 보증발급시 과도한 담보 요구 등으로 해외건설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진출한 업체의 수주확대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라. 해외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진단 필요성

기존 금융기관 활성화 혹은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체가 체감하고 있는 금융애로사항과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성 대두

1.1.2 연구의 목적

가. 해외건설에 수반되는 금융 전반의 애로사항 파악

이행성 보증서 발급 등 건설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금융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이나 업체 구분에 따른 지원희망사항 파악

나. 바람직한 금융지원모델 제시

기존의 해외건설 유관 금융기관의 지원기능 보강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필요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설립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조달 및 보증발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지원 모델 제시

1.1.3 연구의 구성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목적과 수행방법을 포함하는 1장 개요에 이어 2장에서는 건설금융의 간략한 개요와 해외건설보증의 역할과 종류, 발급절차를 서술하고 3장에서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사 분류군별 금융현황에 대해서 알아본 후, 해외건설 유관 금융기관의 보증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4장에서는 해외건설 금융의 중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방향과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를 설립시의 최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5장 맺음말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이슈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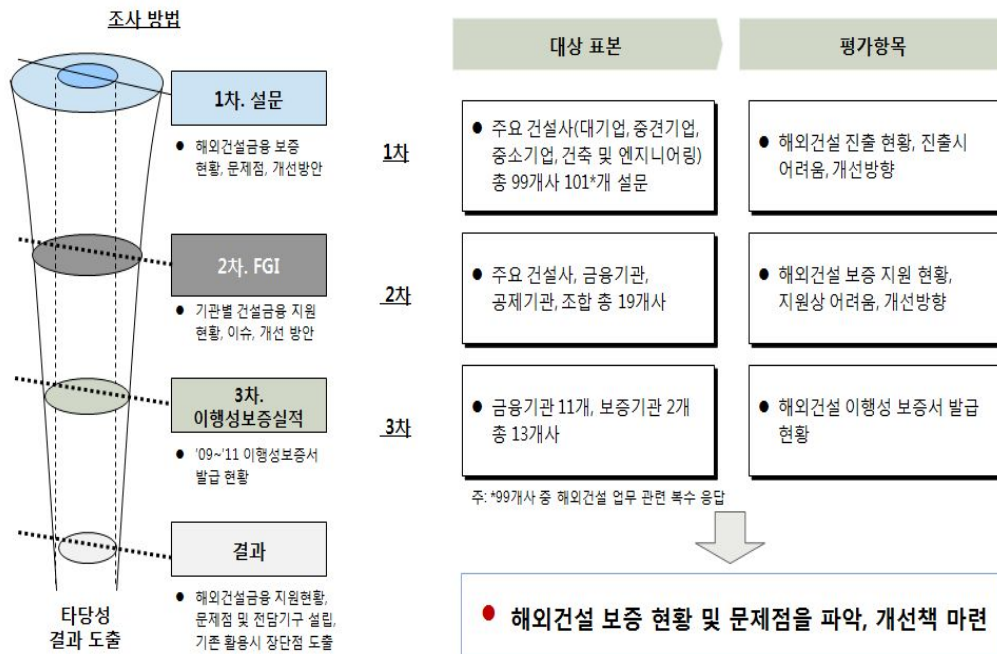
1.2 연구수행 방법

1.2.1 개요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내 주요 건설사와 금융 지원기관, 보증기관, 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Delphi Method)와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금융이행성 보증실적 조사를 진행함

- 또한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여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의견을 수집하고, 신규 설립과 기존 개선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외건설전담기관 설립방향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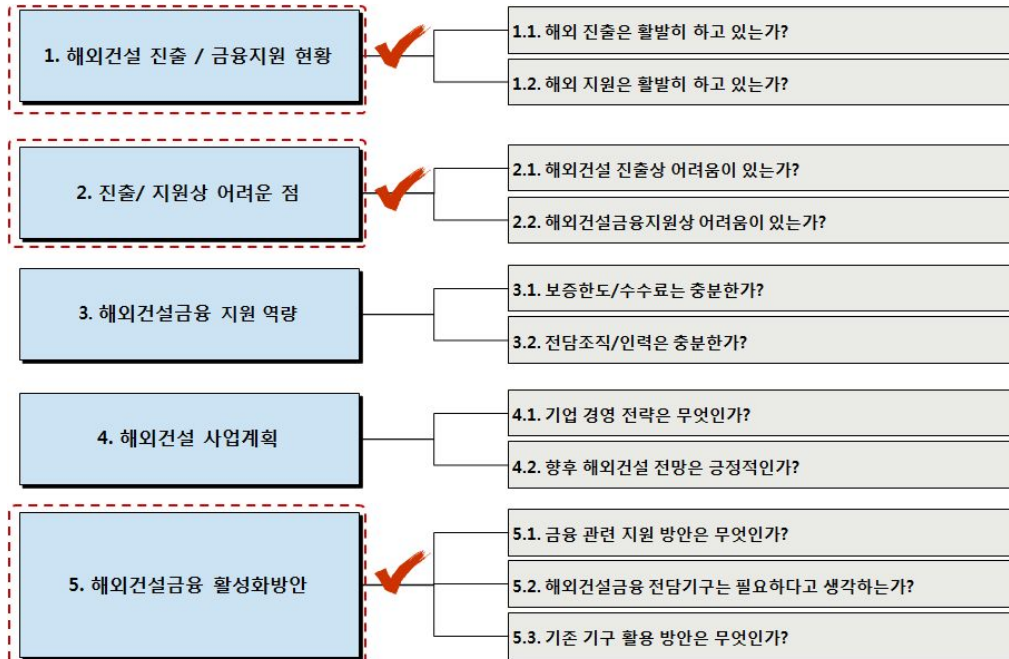
<그림 1.1> 타당성 조사 방법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 주요 질문으로는 해외건설 진출 현황, 해외건설 금융지원 현황, 진출시 애로사항,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의견 등임

<그림 1.2> 설문·인터뷰·공청회 Key Question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1.2.2 설문조사 (Delphi Method)

가. 조사기간: 2012년 1월 13일 - 2012년 2월 3일

나. 조사대상

1) 응답업체 수: 해외건설협회 회원사 중 총 99개 업체

2) 업체 분류

- 가) 대기업: 설문응답업체 중 최근 3년간 해외수주통계 기준 총 50억 달러 이상 업체로 총 12개사
- 나) 중견기업: 설문응답업체 중 2010년 토건 시공평가 순위 100위 업체 중 대기업 제외 업체로 총 28개사
- 다) 중소기업: 설문응답업체 중 대기업, 중견기업, 엔지니어링사를 제외한 업체로 총 30개사
- 라) 건축 및 엔지니어링 용역사: 설문응답업체 중 건축설계, 엔지니어링사 등 용역업체로 총 29개사

다. 조사내용

해외건설 진출현황, 해외건설 금융지원 현황, 진출상 문제점, 해외 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

1.2.3 Focus Group Interview (FGI)

가. FGI 진행 기간 : 2012년 2월 6일 - 2월 20일

나. FGI 진행 대상

- 1) 현재 해외건설에 활발히 진출 혹은 지원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건설사와 금융기관, 보증기관 대상
- 2) 건축 및 엔지니어링 용역사

- 건설기업: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STX건설, GS건설, SK건설, 한화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한라건설, 동부건설, 극동건설
- 용역사: 동명기술공단

3) 해외건설 유관 금융기관

- 금융기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신탁운용
- 보증기관: K-sure, 서울보증보험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다. FGI 내용

기관별 해외건설 진출 및 지원현황, 애로사항, 개선점, 신규 전담기구 설립의견 등을 검토

1.2.4 금융기관별 이행성보증 현황 조사

가. 대상기간

- 1) 이행성보증 현황 조사기간: 2012년 2월 3일 - 2월 17일
- 2) 이행성보증 대상기간: 2009년 - 2011년 (3년)

나. 이행성보증 현황 조사대상

현재 해외건설 금융에 지원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 보증기관으로 총 13개 기관

- 금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 보증기관: K-sure, 서울보증보험

다. 조사 내용

건설사 대상 이행정보증 발급현황, 담보내역, 보증수수료율 등을 조사, 분석하여 지원상의 실질적 애로사항 등을 검토

1.2.5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관련 공청회

가. 공청회 일시

- 2012년 3월 15일 14:00 - 17:00

나. 참석 대상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업계 및 유관기관 100명 내외

다. 주요 내용

- 해외건설 금융지원 현황 및 이슈,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관련 업계 의견 교류

제2장 해외건설과 해외건설금융

2.1 해외건설금융

2.1.1 개요

해외건설금융은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간단히 개발금융에 필요한 금융과 도급사업에 필요한 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개발형 또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필요한 금융
 - 프로젝트 발굴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같은 매물성 자금,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Project finance형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 그리고 사업수행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시 활용되는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이러한 투자개발형 사업에 포함되며 사업형태로는 BOT (build-operate-transfer), BOOT (build-own-operate-transfer), BOO (build-own-operate), BLT (build-lease-transfer)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 도급사업에 필요한 금융
 -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 공사수행시 운영자금이 필요함.
(보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2.2에서 확인가능)
 - 도급사업도 개발형 사업과 마찬가지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환

위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보증제도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은 민간금융기관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 상당 부분 국제금융기구 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취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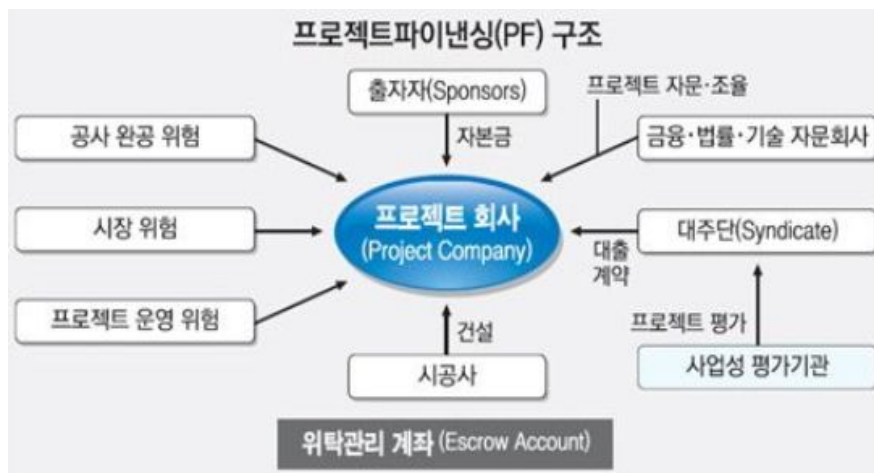
- 최근에는 해외건설사업, 특히 플랜트 건설사업을 포함하는 사회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몇 천억에서 몇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투입됨
 - 한 개인, 회사 혹은 개별시중은행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조달 방법이 존재함. 특히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프로젝트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경쟁은 근래 더욱 치열해져 각국 글로벌 기업들이 발주처의 부족한 사업비를 건설사의 모국 또는 선진국의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금융형태로 조달해주는 등 사업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장기에 걸쳐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발주처의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음. 따라서 더 나은 조건의 금융조달 능력은 수주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 낮은 금리의 달러조달 능력이 뛰어난 외국은행들에 비해 국내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은 신용도 높은 정책은행이 저렴한 달러 조달비용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음. 해외건설은 이러한 국가 간의 대규모 건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다음은 가장 대표적인 건설금융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임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1) 정의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cash flow)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사업주에 제공하는 건설금융기법
-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

<그림 2.1>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도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 활용대상

- 우수한 기술력과 좋은 프로젝트 계획을 갖고 있으나 담보로 내세울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한 업체들이 자금조달 문제로 프로젝

트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로 활용하며, 세부 프로젝트 수행 계획과 상환계획을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대출결정

3) 한계점

- 사업성이 좋을 경우 금융기관과 업체 모두 고수익 가능하나 PF대출을 받은 업체가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과 업체 모두 부실을 떠안기도 함

나. 기타 건설금융기법

1) 수출금융 (제작 및 구매자금융)

- 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 개발 등을 위해 구매자 및 수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

2) 현지금융 (초기 운전자금, 현지화)

- 국내기업이나 기업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영업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

3) 자본 (출자금, Equity)

- 주로 사업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는 방식

4) 후순위대출 (Subordinated Loan)

- 이미 한번 은행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제2금융권을 통해 2차 대출을 받는 것

2.1.2 해외 PF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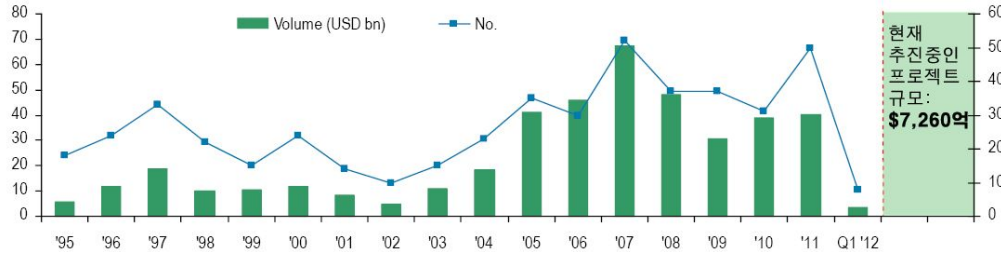
현재 세계건설시장규모는 약 3.6조 달러로 추정되며 글로벌 프로젝트 PF시장의 장기투자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 2011년에는 이 시장의 대출규모가 3,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년대비 15% 성장함. 세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흥시장 국가들은 점차 공업화되고 기 개발국들은 노후한 인프라를 보수, 교체해야 함. OECD국가에서 2010-2030년 사이 도로, 물분야, 에너지, 공항, 통신, 철도에 예상되는 자본투입 비용은 50조 달러에 달함

<그림 2.2> 세계 및 MENA지역 건설시장규모

세계 건설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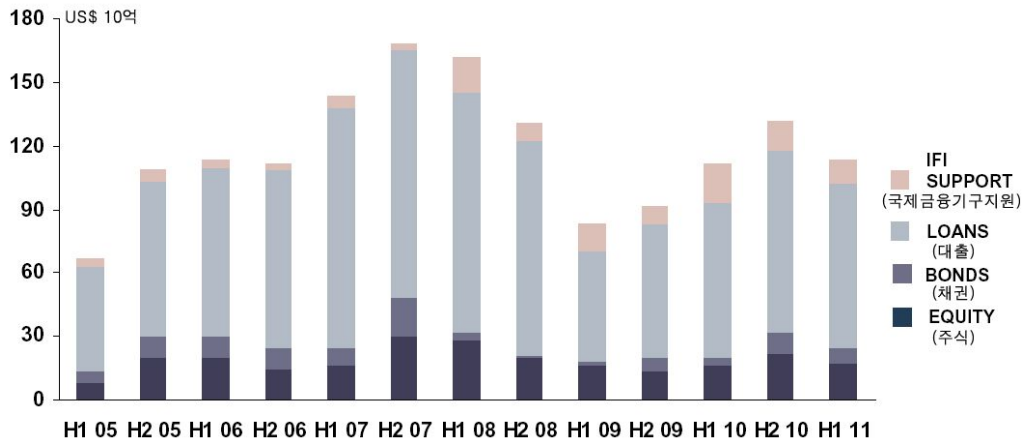
MENA지역 건설시장 규모



§. 출처 : Projectware 자료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90-95%의 PF대출은 은행대출로 이루어졌고 유럽계 은행이 글로벌시장의 2/3을 차지함.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 만기는 7-8년으로 짧아지고 EU지역 내에 위치한 좋은 조건의 프로젝트에도 자본시장으로 부터의 채용자계획이 없을 시 최대 20억 달러까지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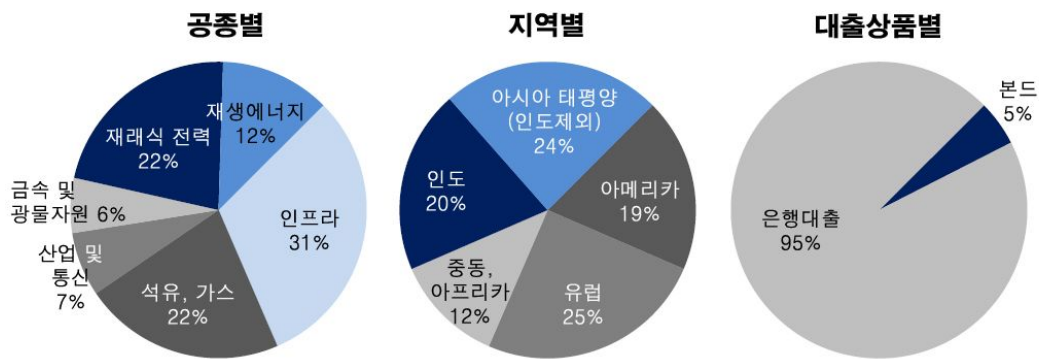
<그림 2.3> 글로벌 PF 시장 규모



§. 출처 : Infrastructure Journal

Dealogic의 자료에 의하면 공종별로 보면 전체 PF시장에서 인프라가 3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석유 및 가스와 재래식 발전분야가 각각 22%의 비중으로 많았음. 지역별로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인도제외)지역이 각각 25%와 24%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인도가 20%로 단독국가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대출상품으로는 은행대출이 대부분인 95%였고 나머지 5%만이 채권으로 발행되는 형태였음

<그림 2.4> 글로벌 PF 대출시장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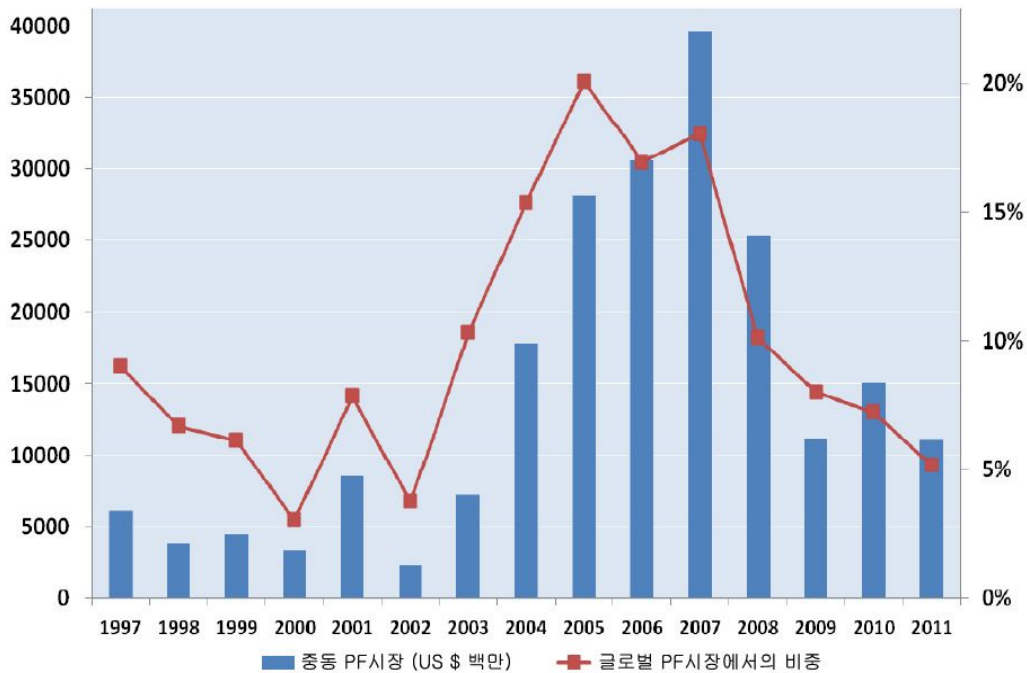
§. 출처 : Dealogic

중동비중이 높은 우리 해외건설 시장의 특성상 중동 PF시장에 대한 이해는 중동건설시장을 이해하는 것에도 매우 중요함. 최근 10여년간 세계PF시장에서 중동PF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22%에서 5%로 하락함.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아랍의 봄과 같은 지역·정세적 배경, 그리고 UAE의 경기가 완만해짐이 기인함

산유국의 특성상 GCC국가의 PF시장에서는 오일과 가스분야의 PF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력과 물 분야의 PF비중이 상승함. 금속과 광물분야에서는 특히 알루미늄과 철의 비중이 높았으며 재생에너지

와 사회 인프라 사업의 비중이 최근 몇 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림 2.5> 글로벌 PF시장 대비 중동 PF시장 비중



§. 출처 : ACWA Power

중동 PF시장의 발전과정은 크게 4개 단계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음. 2008년 이후 중동PF시장에는 특히 변화가 컸음. 시장참여자 수는 대폭 감소하여 PF참여 은행 수가 40개에서 15개 정도로 감소하였고 유동화에 대한 마진은 상승하였음. 또한 유로존 위기와 바젤 III시행에 따른 장기대출 기피로 인해 유럽계은행은 상당수가 중동지역 PF시장에서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 공백을 로컬은행이 상당부분 매꾸며 시장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겼음. 50%이상의 PF대출건이 지역은행으로부터 발행되었으며 현지화폐 트랑쉐(tranche)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2.1> 중동 PF시장의 발전과정

2000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대출구조 ● 모기지 형태, 만기에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는 구조 ● 짧은 만기 및 중간정도 수준의 금융비용과 수수료 구조
2000-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대출구조 ● 모기지 형태, 만기에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는 구조 ● 15-20년 만기, 금융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압력 높아짐
2004-2008 금융위기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llet repayment와 같은 복잡·다양한 금융구조 도입 ● 오만 등에 상업적 위험 또는 PPA연장위험과 같은 위험요소 도입 ● 17-20+년 만기, 수익 및 구조에 대한 대출자간 경쟁심화에 기인한 낮은 금융비용
2008이후 금융위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2009에 금융약정 closing에 어려움 ● 이후 자본고갈로 인한 ECA의 역할, 보험커버의 필요성, 오일 직접펀딩 등의 중요성이 대두 ● 대출만기가 20+년으로 돌아갔으나 일부 복잡한 구조의 활용감소 ● 미화 유동성, 유럽계은행의 바젤3 등과 같은 유동화 문제로 및 높은 금융비용/마진과 수수료 구조의 장기대출 선호도 감소

§. 출처 : ACWA Power

2008년 이후 중동PF시장에서 큰 변화를 보인 또 다른 현상은 수출신용기구(ECA)의 역할확대임. 특히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 JBIC의 역할비중이 매우 높아져 20-25%의 대출건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직접펀딩 또는 커버드론 형식으로 취급된 것으로 나타남

<표 2.2> 중동지역 PF 대출기관 비중변화

2004		2011	
유럽계	44%	유럽계	18%
현지계	47%	현지계	57%
일본계	5%	일본계/한국계(ECA)/중국계	25%
기타	4%	기타	-

§. 출처 : ACWA Power

2.2 해외건설보증

2.2.1 건설보증의 의의와 역할

최근 몇 년간 해외건설은 우리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크게 늘어나며 활기를 띠고 있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보증도 건수와 금액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 IMF구제금융 위기로 국내은행들의 단독보증이 어려웠으나 국가 신인도가 회복된 최근에는 직보증으로도 해외건설사업의 수주가 가능해짐

1980년대에는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보증문제 해결 자구책으로 현대, 대림, 대우, 동아 등 6개 건설사들이 보증보험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기도 함. (그림 2.6 참조) 현재 대형건설사는 보증문제로 인한 수주어려움이 없으나 약 30년 전만 해도 국내 상위 건설업체조차도 보증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보증발급에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 중견이하 업체들의 해외건설사업 수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증문제 해결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2.6> 1984년 매일경제 기사



§. 출처 : 매일경제신문

가. 건설보증의 의의

1) 건설보증의 정의

-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발주자와

건설업체 및 보증기관 3자 간의 채권, 채무 및 구상채권, 구상 채무 관계

- 건설산업에서 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체결시점과 채무이행 시점간의 시간차가 존재하고, 여러 단계의 생산과정 및 참여자로 이루어져 대금지급이 복잡하기 때문임

2) 건설보증의 탄생

- 건설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발주자, 건설업체, 금융기관 등 다양한 참여자가 관여하며, 각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침
- 해외건설공사는 계약이행기간이 장기이고 계약금액도 일반계약에 비하여 크며, 외부변수에 의해 계약 이행여부가 많은 영향을 받음
- 다른 계약보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아 계약자가 스스로 감수해야 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건설보증제도가 고안됨

3) 건설보증의 영역확대

-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건설보증의 영역에 포함됨
-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상호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 운용

나. 건설보증의 역할

1) 위험분산 기능

가) 발주자의 입장

- 건설보증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

나) 업체의 입장

-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을 통해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지급이 확실한 보증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험 분산

2) 보증기관의 사전자격심사기능

가)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의 장점

- 발주자는 건설업체를 평가할만한 정보와 능력이 부족하나, 보증기관은 보증심사의 과정에서 업체가 신청한 보증에 대해 신용이나 시공능력에 근거하여 부실업체나 부적격업체를 판별할 수 있어 시장경제 유지가능

나) 이슈

- 새로 해외진출을 하려는 업체들은 보증기관의 엄격한 적격심사

에 의해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보증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2.2 건설보증의 종류

국내은행에서 취급하는 건설보증은 대부분 본드(bond)형태로 되어 있음.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증신용장 등의 형태로 발행되기도 하며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고 미주 쪽에서는 Surety bond 형태가 일반적임

가. 입찰보증 (Bid bond)

1) 목적

- 입찰자가 입찰마감 이후 입찰철회 또는 낙찰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에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2) 주요 내용

- 해외건설공사 입찰 시 보증서를 제출
-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적립하기보다는 통상 외국환은행의 보증 신용장 (Stand-by Letter of Credit) 등으로 지급보증을 대신함
- 통상 계약금액의 2% 적립

나.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P-bond)

1) 목적

- 해외건설공사 계약 후 공사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계약자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보증기관 책임하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납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 통상 계약금액의 10% 적립

다.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 bond, AP-bond)

1) 목적

- 공사계약에서 발주자가 계약자의 계약이행 준비를 위하여 일정액을 우선 지급 (Advanced payment)
- 이 경우 계약자가 계약이행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어떤 이유로든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요구
- 공사착수금으로 선수금을 받을 경우 매 기성신청에서 먼저 받은 선수금을 단계적으로 발주자에 환급한다는 보증

2) 주요 내용

- 보증금액은 선금금 상당액
- 보증기간은 선금금반환방식에 규정된 기간
- 발주처가 계약금의 10% 선대하는 것이 일반적

라.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bond, R-bond)

○ 목적

-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비 충당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기성의 일부를 유보
- 건설업체가 하자 보수기간 종료 전에 유보금을 미리 환급받기 위해서 제출

마. 하자이행보증 (Warranty bond, W-bond)

○ 목적

-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완공된 설비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보증
- 하자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

<표 2.3> 해외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보증종류	일반적인 계약 액에 대한 비율	비고
입찰보증	5% 이하	단기간의 보증기간 (2개월)
계약이행보증	5-15%	공사기간 전체동안 보증

선급금보증	약 10% 정도	선급금 수령 후 계약불이행시 선급금 대지급
유보금보증	약 10% 정도	기성금 지급시 현금을 유보하는 대신 해당금액을 보증으로 대신함
하자보증	약 10%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에 대한 보수의 무에 대한 보증이며 통상적으로 1년

§. 출처 : 수출입은행 지원금융 활용방안과 사례, 심형수, 2002 일부 재구성

2.2.3 해외건설보증 발급절차

가. 해외건설보증 단계별 절차

입찰단계부터 수주 후 계약체결 및 완공단계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보증서 및 금융내용에 대해 요약한 내용임

<그림 2.7> 해외건설 수행단계별 수반금융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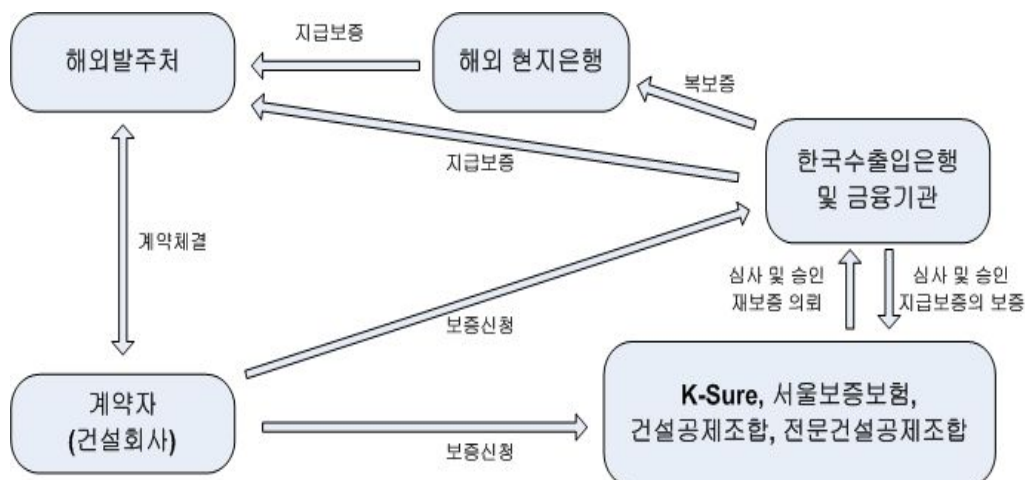
2.2.4 해외건설보증 구조 및 형태

가. 해외건설보증 구조

○ 복보증(複保證) 발급

- 해외원도급인 경우는 현지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따라서 복보증의 보증료 부담을 안고 국내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외 현지은행의 보증서를 재발급받아 제출

<그림 2.8> 해외건설보증의 형태 및 구조



§. 출처 : 중소 건설업체 해외 진출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이의섭, 2009. 2 일부 재구성

○ 담보 및 신용

- 보증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발급

- 보증금액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 부족분은 신용¹⁾으로 발급
- 보증료는 담보제공여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름

○ 리스크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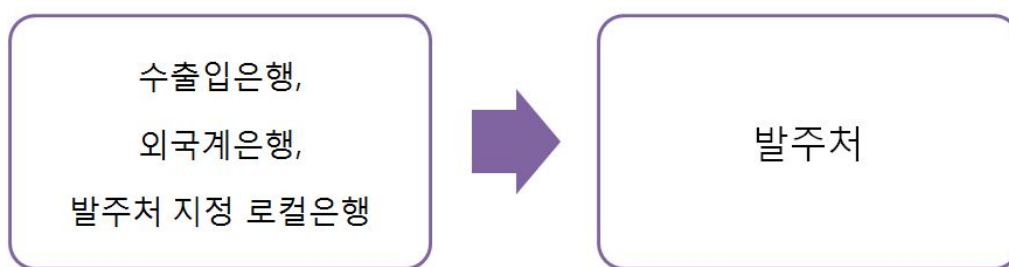
- 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며 부담하는 리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험증권(지급보증의 보증)을 요구하여 리스크 분산

나. 보증발급 형태

해외건설에 관련된 보증발급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더 많은 단계를 거쳐 최종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질수록 업체에서 부담하는 요율이 올라감

○ 직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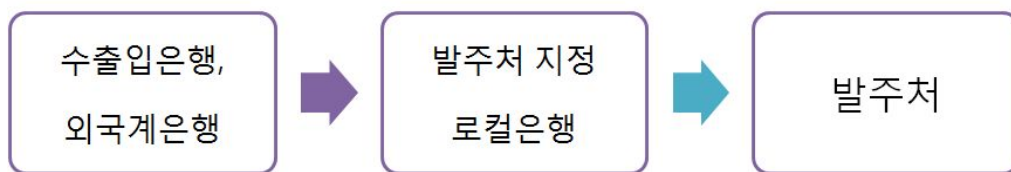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 외국계은행, 발주처가 지정한 로컬은행에서 발주처에 보증서를 직접 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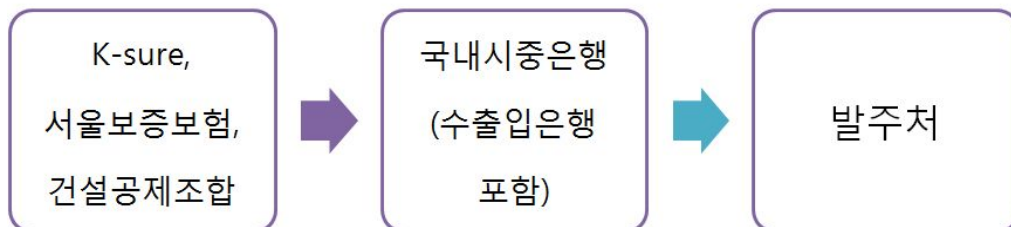
1) NICE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기관 이용 혹은 자체 신용평가모델로 평가

○ 복보증 (複保證, counter-guarantee)

-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로컬은행에서 보증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출입은행이나 외국계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발주처가 지정한 로컬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음. 이와 같이 2단계에 걸쳐 보증이 발급되는 경우, 이를 복보증이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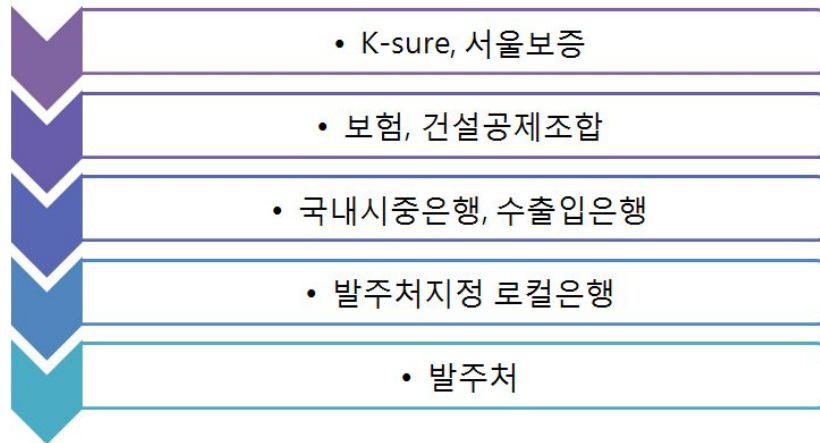


- 발주처에서 지정한 은행이 없을 경우 건설사는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국내시중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들 금융기관은 위험분산차원에서 K-Sure,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에서 1차적으로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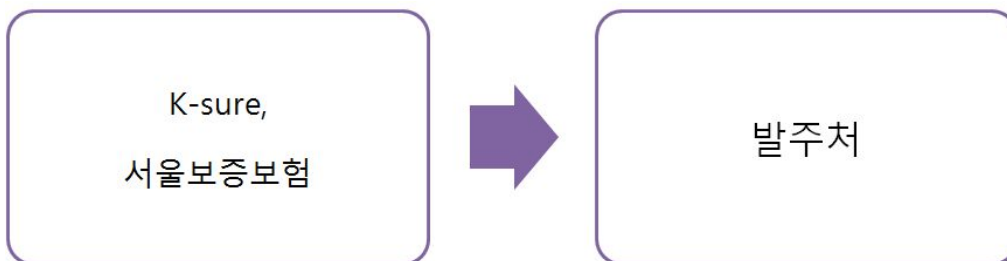
○ 복복보증 (複複保證)

- 다음과 같이 복보증보다 많은 단계를 거쳐 최종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가능함



○ 기타

- 일부이기는 하나 발주처 지정 로컬은행이나 국내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K-Sure나 서울보증보험이 발주처에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가능함



2.2.5 해외의 건설보증제도 및 지원사례

해외의 보증제도 운영형태는 ①전업, ②겸업/일부전업, ③전업/겸업혼합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장에서는 각 형태별로 독일, 일본, 미국의 보증제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국가별 지원사례를 간략히 언급할 것임

- 전업의 경우에는 행정조치나 보증업무기피에 의한 전업으로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해당되며 우리나라 또한 행정업무에 의한 전업임
- 겸업/일부전업 형태는 제한적으로 손해보험사에 허용하는 경우로서 일본이 이에 해당됨
- 전업/겸업혼합 형태는 보증시장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경우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 이에 해당됨

2.2.5.1 독일

가. 독일의 보증은행

- 신용보증조합(KGG: Kreditgarantie Gemeinschaften GmbH)을 전신으로 하는 독일의 보증은행은 현재 전국 16개 주에 22개가 산재하며 각 주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보증은행의 출자자는 수공업협회와 조합, 상공인협회, 자유업조경업자협회, 경제인협회, 은행, 금고, 은행협회 및 보험회사 등임
-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금액의 80%를 보증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투자회사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70%를 보증함으로써 Equity Finance도 실현하

고 있음

나. 독일 보증은행의 현황

독일 보증은행의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보증은행은 총 22개로 이를 활용하는 업체는 42,661개에 달하며 보증잔액은 약 5,200백만 유로임

<표 2.4> 독일 보증은행의 현황

보증은행 개수	보증은행 활용 업체 수	보증잔액
22개	42,661개	5,199.3백만 유로 ²⁾

§. 출처 : 독일 보증은행 협회

다. 보증은행의 운용체계

- 독일정부는 보증은행에게 재보증, 저리자금대출, 세금면제의 방법으로 보증은행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적지원의 강화로 유럽에서 상호보증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음

<표 2.5> 독일 보증은행의 지원방식과 효과

공적지원방식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재보증	민간 보증은행에 보증제공	보증은행의 신용위험 감소, 보증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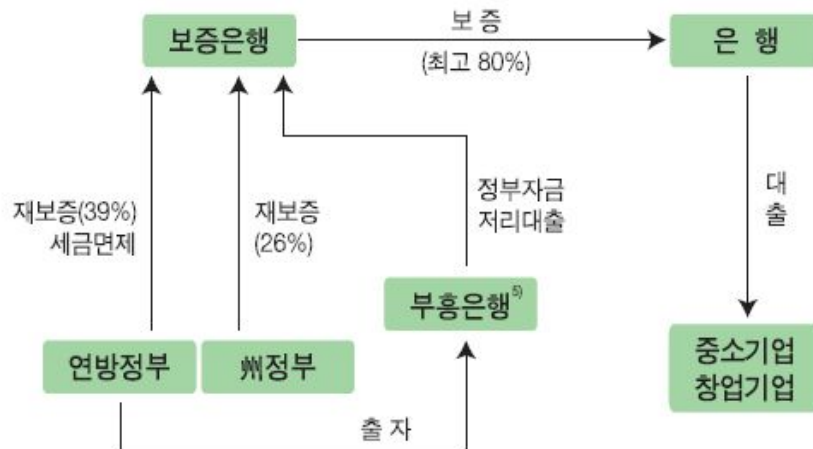
2) 한화 환산시 보증잔액은 7조 2,151억 원, GDP(2조 8,840억 달러)대비 보증잔액은 0.26%, 업체수로 나눈 평균 보증금액은 122천유로(한화 약1억 7,000만원)임

저리 자금 대출	저리의 정책자금을 보증은행에 대출	- 보증은행의 재무적 부담 경감 - 보증료 인하로 중소기업의 보증이용 접근성 높임
무상 출연	무상출연에 의해 보증은행의 기본재산 확충	기본 재산 확충으로 인해 보증여력 증가
세금 혜택	보증은행의 세금을 감면 혹은 면제	이에 따른 이익으로 재투자 가능하게 함

§. 출처 : 독일의 보증제도와 정책점 시사점, KODIT 경제연구소, 황인국, 2008,3

-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함(재보증 합계 65%)

<그림 2.9> 독일 보증제도의 구조



§. 출처 : 독일의 보증제도와 정책점 시사점, KODIT 경제연구소, 황인국, 2008,3

라. 보증은행의 영향력

- 독일 보증은행 영향하의 보증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보증제도로 유럽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증제도임
- 독일의 보증은행은 ‘경제의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담보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경영원칙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시 직면하게 되는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보완함
- 보증은행의 보증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건설보증도 행하고 있기에, 건설업계의 자금조달의 원활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마. 해외건설부문 금융지원 사례

1) Hermes Cover

- Hermes Cover는 수출신용보증을 의미하며, 독일정부는 자국업체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250억 달러 규모를 조성함
- 프랑스 수출신용보험사 Euler Hermes와 영국의 다국적 회계감사 컨설팅 기업 PricewaterhouseCoopers(PWC)가 컨소시엄 형태로 정부의뢰를 받아 보험심사 및 업무관리를 맡고 있으며, 건설부분에서는 주로 신용보증형태로 이용됨

2) 독일부흥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자국 해외건설을 위해 기업대출 및 PF 금융조달을 지원하며, 글로벌에너지사업 투자에도 적극적임
- 베트남 Ca Mau 2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프랑스 Calyon 은행 및 벨기에-네덜란드 Fortis 은행과 신용차관제공에 계약함으로써 외국은행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2010년 5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인 베트남 Noi Bai 국제공항 재개발 사업투자에 참여함

2.2.5.2 일본

가. 신이행보증제도 도입

- 일본의 건설보증은 1995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시공연대보증제도와 비슷한 공사완성보증인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건설시장의 개방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1996년부터 금전적 보증을 중심으로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함
 -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보증수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체계가 불충분한 경우와 시설의 공용개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의 보완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발주자의 선택에 의해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됨
 - 일본의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수단은 발주자가 선택하게 되

어 있는데, 공공발주자가 손해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이나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보증을 해주는 기관으로는 손해보험사, 보증회사, 은행 등이 있음

- 손해보험사에서는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고, 기타 보증에 대해서는 선불금보증주식회사 및 은행에서 발행
-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건설보증은 건설업보증회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 및 은행과 경쟁하고 있음

나. 건설보증의 종류

1) 이행보증증권

○ 보증회사가 시공업자(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발주자(채권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거나 건설업자를 대신해서 공사완성을 보장하여 주는 보증

2) 이행보증보험

○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건설업자의 계약 불이행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손해보험회사가 발주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금전적 보증 수단

3)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보증

○ 은행의 보증은 채무지급보증 업무의 일환으로 건설업자와 은행이

체결하는 보증 위탁계약 및 은행과 발주자가 체결하는 채무보증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짐

4) 전불금 보증회사의 계약보증

○ 건설업 전불금 보증을 전업하던 전불금 보증회사에 계약보증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이행의 금전보증이 추가

- 일본의 전불금 보증은 우리나라의 선급금 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전불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전불금에 대한 손실 부분을 대신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

다. 일본의 건설업 보증지원 기관 사례

○ 일본의 동일본, 서일본, 북해도, 중일본 보증회사의 경우 건설업 위주로 전불금 보증이나 계약, 금융보증을 지원해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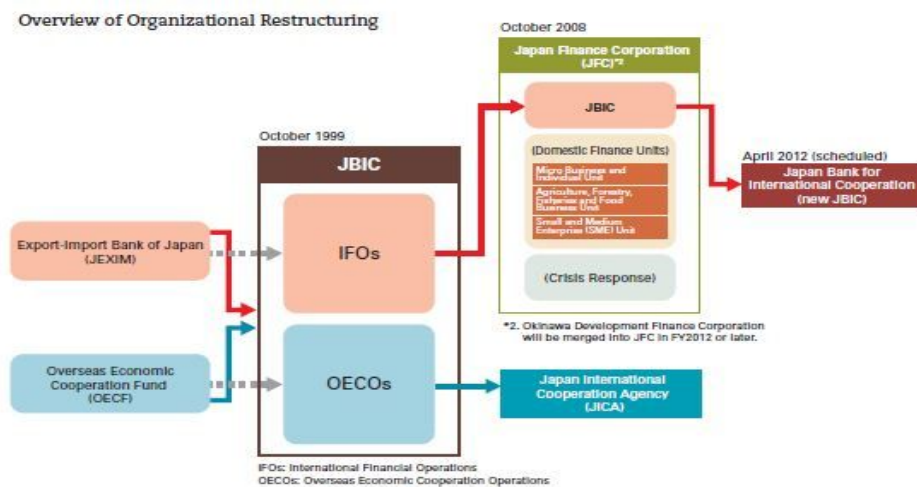
<표 2.6> 일본의 건설업 보증회사

구분	동일본	서일본	북해도	중일본
설립연월	1962.10	1962.11	1962.9	2000.10
소재지	도쿄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자본금	20억엔	10억엔	4억엔	6천8백만엔
사업내용	전불금보증 계약보증 금융보증	전불금보증 계약보증 금융보증	전불금보증 계약보증 금융보증	전불금보증 계약보증

§. 출처 :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종광, 이의섭, 빈재익, 2009.11

- 이 외에 정부에서 해외건설 관련 지원되는 기구는 일본 ECA 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들 수 있음
- 일본 건설업계의 해외수주가 2007년 이후 세계금융위기 및 한국과 중국 건설업체와의 수주 경쟁에서 뒤처지자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본 기업의 원활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 및 전개 그리고 전략적 해외자원개발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JBIC을 2012년 4월 1일부로 일본정책금융공고(JFC) 국제금융부문 전담 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10> JBIC의 조직 구조



§. 출처 : JFC 홈페이지

- 또한, 과거 JBIC의 융자 대상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정비사업 중심에서 선진국 전용은 원자력과 도시간 고속철도 등 2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음

- 2010년 8월 이후 일본 정부는 △도시철도 등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 △석탄화력발전·석탄가스화에 의한 석탄의 고효율 이용 △스마트그리드·스마트커뮤니티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 △송배전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원자력 △우주산업 △도시개발, 공업단지 등 11개 분야에도 용자를 할 수 있도록 정령을 확정함³⁾
- 나아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용자에 대비, 현재의 외화 용자 범위 1조5000억 엔을 확대하여 국가가 외환자금특별회계를 이용해 JBIC에 용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함

라. 해외건설부문 금융지원 사례

1)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 2007년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건설(Nam Thang Long-Thuong Dinh 구간) 차관을 제공하였고, 2008년 이집트 천연가스개발 사업에 5억 달러를 협조융자방식으로 지원함
- 2010년 3월, 일본 최초로 베트남 석탄분야개발 사업에 차관을 지원함
- 2010년 베트남 메콩유역 사업, 이집트 인프라 교통사업을 위해 대규모 차관을 지원하는 등 해외건설부문에서 활발히 활동 중임

3)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및 일본경제신문 2010.8.6. / 8.10

2)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 무상원조의 형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건설부분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며, 2010년부터 PPP 방식의 해외인프라 정비사업 지원까지 그 영역을 넓혔음
- 최근 베트남 Noi Bai-Nhat Tan 교량 및 도로공사와 하노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공적개발원조자금 형태로 지원함

2.2.5.3 미주의 건설보증 제도

가. Surety bond

1) Surety bond의 정의

- 북미와 남미의 보편적 담보형태로써 이 지역에서는 Bank guarantee가 아닌 Surety bond가 건설계약에 활용되는 보증증권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

2) 등장 배경

- 잦은 건설사업 수행 실패와 같은 극심한 건설 리스크에 대해 발주자를 보호하는 리스크 분배의 개념에서 등장
- 미 연방정부는 Miller Act 1935(밀리법)를 제정하여 보증을

의무화

- 효과적으로 건설기업의 자질을 평가하고 적정하게 리스크를 배분하는 시스템이 정착

- 건설공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에 따른 높은 리스크에는 보험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발주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보증회사의 보증을 계약자가 제공하도록 함

3) 종류

- Surety bond는 계약보증(contract)과 비계약보증(non-contract)으로 나뉘며, 앞서 언급한 건설보증의 종류와 크게 다르지 않음

<표 2.7> 미국의 Contract surety bond 종류

구 분	내 용	비 고
Bid bond	공사 계약 시 계약체결의무 담보	계약금액의 5-20%
Performance bond	공사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0% 이내
Payment bond	주채무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비용손실 보증	계약금액의 2.5백만 달러이내
Maintenance bond	주채무자의 하자보수이행 담보	

§. 출처 : 미국의 surety bond 제도 조사, 조달청, 2006. 10 일부 재구성

4) 은행 보증과의 차이점

- Surety bond는 건설공사 계약 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일종의

계약이행보증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100%(연방정부 발주 공사)에 해당하는 보증서

- 은행에서 발급하는 P-bond와의 차이점은 P-bond의 경우 건설기업(주채무자) 및 발주자(채권자)와 독립되어 발주자의 청구가 있 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Surety bond는 건설기업(채무자)의 파산 등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종조 건을 충족해야만 이행청구(calling)가 가능하고, 주채무가 소멸하 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게 됨

5) 보증발급 심사

- 보증회사의 심사는 자체평가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보증 수수료 및 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신인도 (character), 시공능력 (capacity), 재무 (capital)의 3가지 관점에서 평가
- 적격업체로 판정되더라도 보증서 발급 여부는 입찰 내역과 경 쟁사의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

<표 2.8> 주요 심사 내용

항목	심사기준
Character (신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시공한 공사의 종류, 규모, 건수, 위치, 발주자의 만족도 등 • 하도업자 등에 대한 지불기록, 과거 공사에 대한 설 계자, 하도업자 등의 평판
Cap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사의 시공방법 (공동도급 등), 공사 계획, 장

(시공능력)	비 조달 계획, 해당공사를 담당하는 PM, 주요 기술자의 능력과 경험 • 본사의 지원조직, 공사비의 견적금액과 타당성
Capital (자금력)	• 회사 내용, 공인회계사에 의해 공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은행의 여신 한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재무정보

§. 출처 : 미국의 surety bond 제도 조사, 조달청, 2006. 10 일부 재구성

6) Surety bond의 역할

- 다수의 경쟁참여자를 선별하여 건설생산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시장조절 기능을 수행
 - 이 제도는 주계약의 전체를 보증대상으로 삼아 만일의 사고 시에 보증인을 통한 회복을 주목적으로 함
 - 따라서 보증인에게 보증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증권한이 부여됨

제3장 해외건설 금융 및 보증현황

3.1 해외건설 국내보증현황

3.1.1 해외건설 진출현황

가. 최근 5년간 해외진출 현황

<표 3.1>과 같이 최근 5년간의 해외건설 총 수주액은 2010년 UAE원전수주(186억 달러) 요인을 제외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 2007-2011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금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수주금액	39,788	47,639	49,148	71,579	59,136	267,290

§. 출처 :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

나. 수주현황 분석

1) 상위 업체 비중

- 지난 5년간의 수주금액 비중에서 상위 업체의 비중은 60%를 차지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77.6%를 차지, 경쟁이 심화되는 해외건

설시장에서 대기업의 해외수주능력이 더욱 두드러짐

<표 3.2> 2007-2011 수주 상위업체 해외건설 수주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전체	39,788	47,639	49,148	71,579	59,136	267,290
상위업체*	21,027	26,330	29,630	36,331	45,865	159,184
비중	52.8%	55.3%	60.3%	50.8%	77.6%	59.6%

*주: 2009-2011년 해외수주통계 기준 50억 달러 이상 수주기업

§. 출처 :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

2) 중소기업 비중

- 대체적으로 매년 수주비중이 증가한 상위건설사와 달리 중소기업체는 2011년에 그 비중이 소폭 상승했을 뿐,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

<표 3.3> 2007-2011 중소기업체* 해외건설 수주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전체	39,788	47,639	49,148	71,579	59,136	267,290
중소업체	6,700	7,214	5,510	4,712	4,813	28,949
비중	16.8%	15.1%	11.2%	6.6%	8.1%	10.8%

*주: 당년 중소기업법 분류기준에 의함

§. 출처 :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

3) 중견업체 비중

- 중견업체들의 전체 대비 수주비중은 30%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42.7%로 급격히 증가한 후, 2011년 최저수준인 14.3%로 하락함

<표 3.4> 2007-2011 중견업체* 해외건설 수주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전체	39,788	47,639	49,148	71,579	59,136	267,290
중견업체	12,061	14,095	14,008	30,535	8,458	79,157
비중	30.3%	29.6%	28.5%	42.7%	14.3%	29.6%

*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외 업체

§. 출처 :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

3.1.2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

가. 국내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

최근 3년(2009~2011년)간 국내 13개 주요 금융기관⁴⁾이 발급한 총 보증액은 427억 4,2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 최고 수주액을 달성한 2010년은 보증금액이 2009년 대비 대략 9.2% 증가하였음. 향후에도 해외 발주량 증가로 이행성 보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K-sure,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SC은행, 기업은행

<표 3.5> 2009-2011 연도별 이행성보증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9	2010	2011	총계
이행성보증	13,367	14,593	14,782	42,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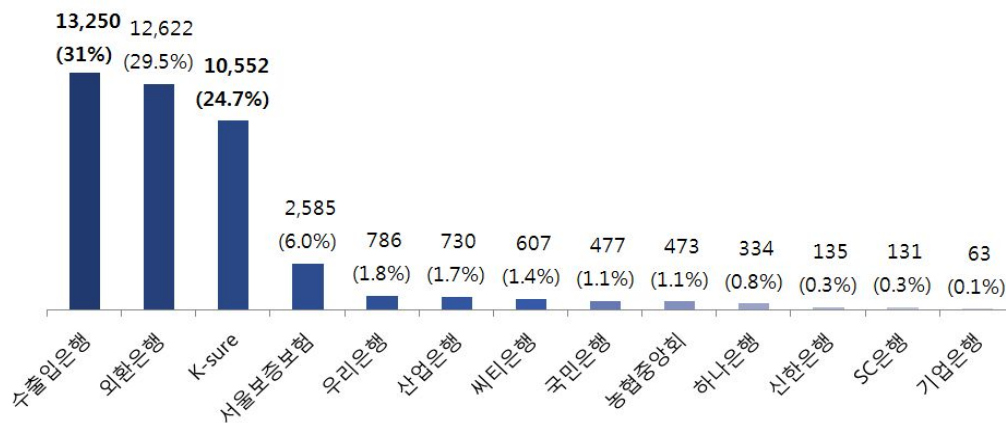
* 주: 국내 11개 은행(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 자료출처: 2012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삼정KPMG

<그림 3.1>은 국내 금융기관의 최근 3년(2009-2011년)간 이행성보증 발급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K-sure 3개 기관이 보증발급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시중은행 중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총 이행성 금융비중의 31%인 132억 5,000만 달러, 부보기관 중에서는 K-sure가 24.7%인 105억 5,2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 최근 3개년 국내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액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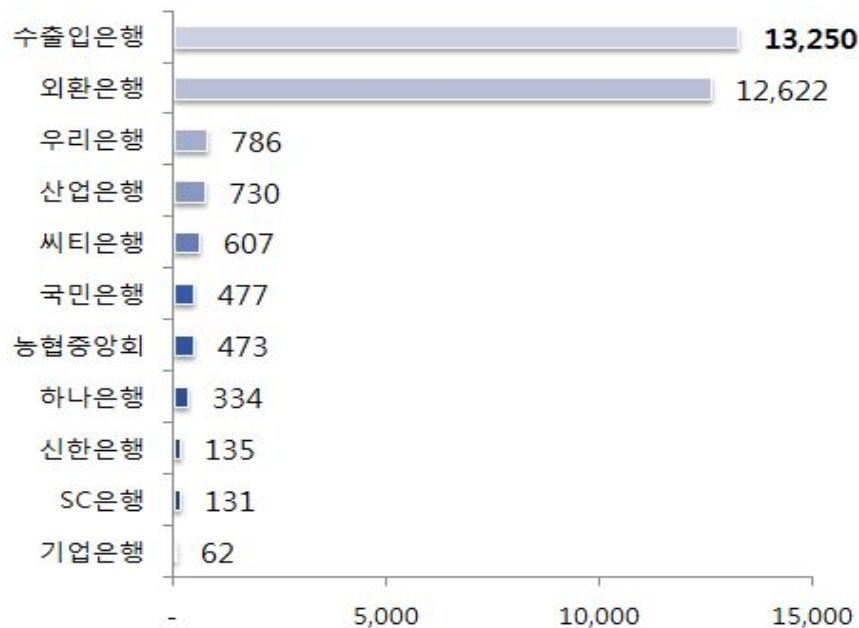
* 주: 부보기관 중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불포함

또한, <그림 3.2>를 살펴보면, 부보기관인 K-sure와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11개 국내은행이 총 296억 7백만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했으며, 수출입은행(132억 5천만 달러, 44%)과 외환은행(126억 2천만 달러, 42%)에 편중되어 있음

위의 두 기관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저조한 지원실적의 주요 원인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험 및 지원 노력 부족, 자금조달의 한계 외에 높은 금리 및 수수료율과 세계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3.2> 최근 3개년 국내은행 이행성보증 금액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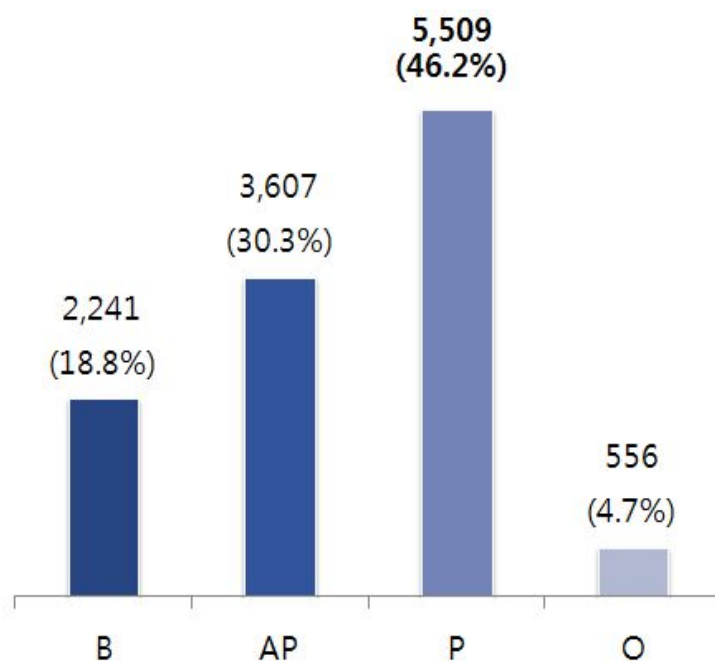


나. 보증별 발급현황

최근 3개년 이행성 보증서 발급 추이를 살펴보면 13개 주요기관을 통해 총 11,913개의 이행성 보증서가 발급되었음. 이행성 보증서 중 해외건설시장 진출,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고 조건 불이행 시 손해를 담보해주는 P-Bond(계약이행보증)가 발급건수 5,509건(46.2%), 발급액 213억 8,700만 달러(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3.3> 최근 3개년 보증서별 발급 건수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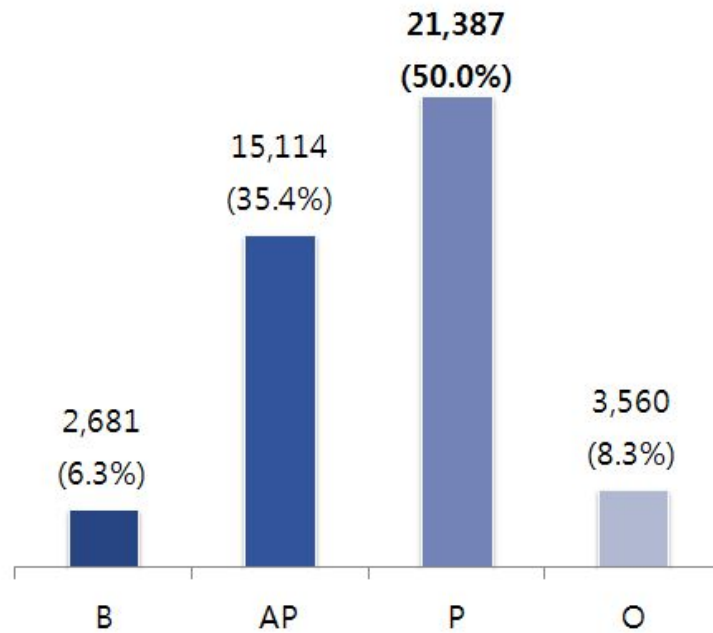


주: O = 기타본드

§. 자료출처: 2012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삼정KPMG

<그림 3.4> 최근 3개년 보증서별 발급액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출처: 2012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삼정KPMG

다. 보증서별 연환산 수수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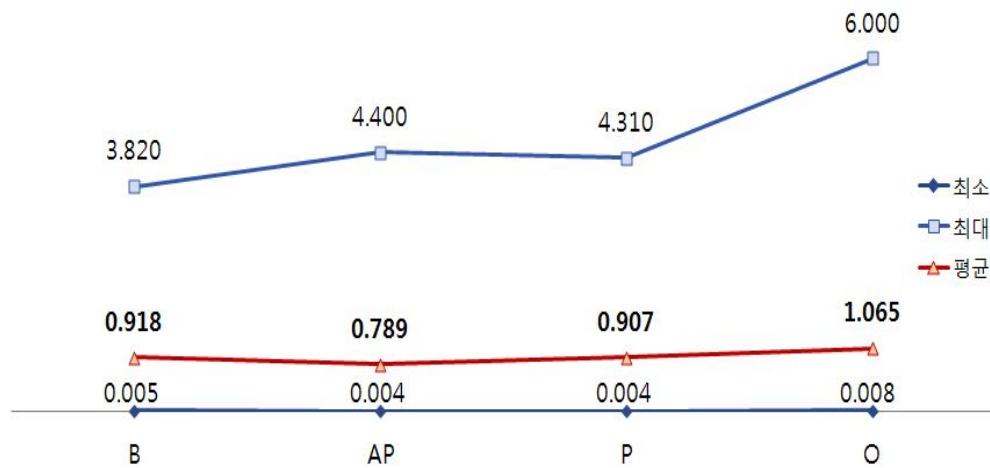
이행성 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 13개 주요 금융기관의 연환산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최소 수수료율의 범위는 최소 0.004%에서 최대 6%로 그 차이가 매우 컸음. 국내 건설업체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P-Bond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0.907%로 조사됨

국내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건설업체의 실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수료율로 이행성보증서를 제공

하는 K-sure 및 수출입은행이 대부분 대기업에게 발급하고 있음. 즉, 대기업일수록 낮은 금리, 중견 및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그림 3.5> 2009-2011 보증서별 연환산 수수료 현황

(단위: %)



§. 자료출처: 2012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삼정KPMG

라. 주요기관별 담보요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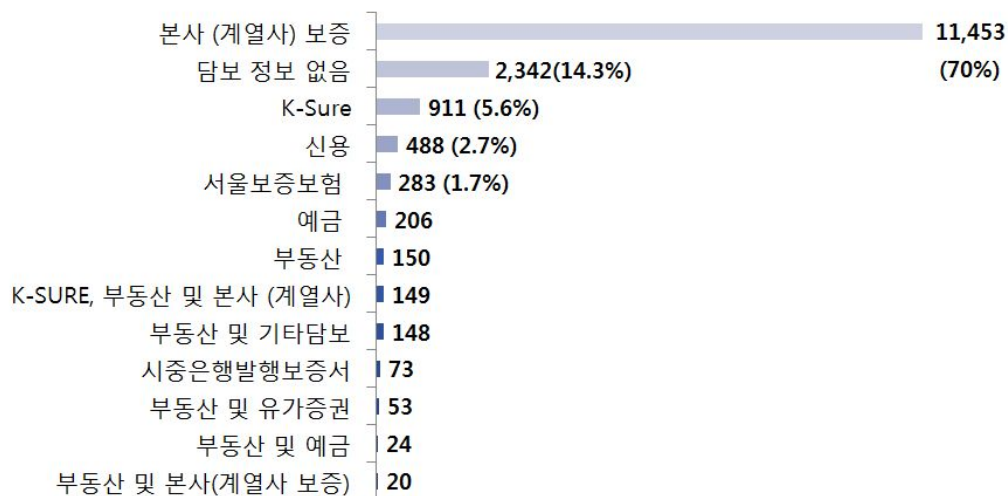
금융기관들은 이행성보증서 발급시,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설업체들에게 담보를 요구함. 금융기관의 이행성 보증내역 분석 결과, 전체 보증서 중 2.7%만 신용으로 발급하였고 나머지는 본사(계열사)보증, K-sure의 복보증, 더 나아가 예금 및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함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는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담보요구로 인하여

시중은행에서 보증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해외건설을 수주하더라도 진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3.6> 시중은행의 담보요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출처: 2012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삼정KPMG

3.1.3 해외건설 보증필요액

금융기관들의 이행성 보증내역 분석 결과, 수출입은행 및 외환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들은 지원실적 및 해외 경험이 부족하여 보증서 발급에 보수적임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내 건설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인터뷰 결과와 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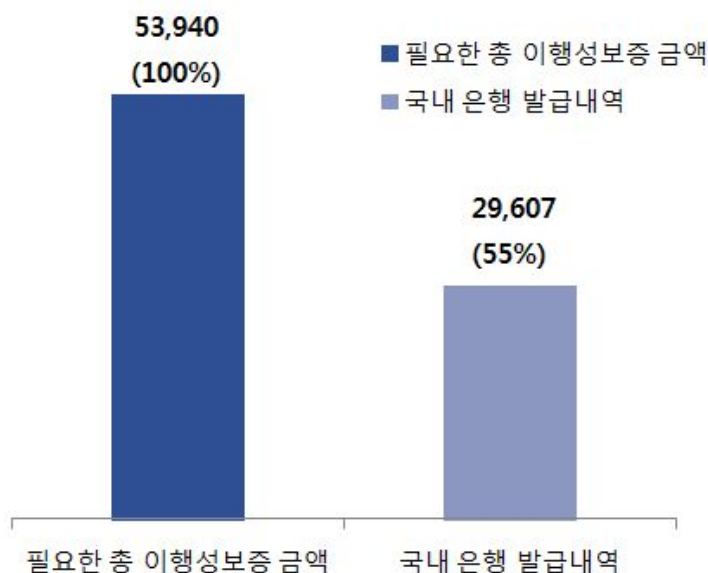
해외발주처는 프로젝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보증을 요구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시중은행들은 세계적으로 낮은 인지도, 해외 지원경험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건설 분야의 미흡한 금융시스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남. 이에 더하여 해외건설 시장의 이해 부족 등으로 실제로 필요한 이행성 보증 규모만큼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 조사결과, 최근 3년(2009~2011년)간 해외건설 수주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 금액은 약 54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국내에서는 이 중 55%를 제공하였음. 나머지 45%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기타 지원을 통해 조달하였을 것으로 분석됨

<그림 3.7> 필요금액 비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출처: 2012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삼정KPMG

※ 필요금액 비교 현황 분석 근거

최근 3년간 총 해외건설 수주 실적금액 1,798억 달러에서 통상적으로 이행성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각 Bond 별 비율의 합계인 30%를 적용하여 필요한 총 이행성 보증 금액을 산정함

<표 3.6> 최근 3개년 해외건설수주 실적 현황

(단위: 억 달러)

년도	2009	2010	2011	총 수주액
금액	491	716	591	1,798

§.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표 3.7> 이행성 보증 발급에 필요한 각 본드별 비율

(단위: %)

Bid-bond	2%	6개월
P-bond	10%	3년
AP-Bond	10%	2년
W-bond	8%	1년
합계	30%	

§.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이와 같이 산정된 필요 보증금액을 토대로 수주예상액에 따른 보증필요액을 산출한 결과는 <표 3.8>과 같음. 2012년 수주액을 700억 달러로 예상했을 때, 필요보증금액은 30% 즉, 210억 달러이며 별도의 지원이나 기관 설립없이 현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중

국내보증발급은 107억 달러로 추정됨. 차액인 103억 달러는 해외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발급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외화유출이 우려됨

<표 3.8> 해외건설 필요보증 금액

(단위: 억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주액	716	591	700	750	800	850
필요보증금액 합 (약 30% 가정): A	215	177	210	225	240	255
수출입은행	50	52	55	57	60	63
시중은행	18.9	14.7	16.6	17.6	18.7	19.8
K-sure	31.5	23.2	26.4	27.7	29.1	30.5
서울보증보험	6.3	6.3	6.9	7.6	8.3	9.2
건설공제조합	0.1	-	3.0	6.4	13.0	22.7
국내 보증발급 합계	107	96	107	117	129	145
미충족 잔액 A-B	108	81	103	108	111	110

주1: 시중은행 개별실적은 K-Sure와 서울보증보험의 부보율을 50%로 추정

주2: 수치자료가 없는 기관의 계수는 해당기관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것임

§. 출처 : 국토부 조사자료

현재 조사된 국내 금융기관 보증 현황을 살펴볼 때,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지원만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필요한 이행성 보증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금융기관 입장에서조차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보완을 위해 과도한 담보 요구가 발생한다는 의견임

결론적으로 해외건설산업을 잘 이해하며, 금융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지원 가능한 중견 및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필요한 이행성 보증 발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본 금융기관은 외화유출을 막고 건설시장의 수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함

3.2 설문조사를 통한 금융현황

3.2.1 설문응답사 분류군별 금융현황 개요

설문조사 결과, 해외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반 이상이, 그리고 그 외 분류군에서의 업체들 상당수가 금융으로 인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보증문제로 인해 수주포기 또는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도 확인하였음. 대기업과 중견/중소업체들의 입장이 다르고 각각 필요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일부 항목별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음.

가. 공통

- 자금조달과 보증서와 관련하여서는 금리수준과 수수료를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식
 - 사업의 수익정보다는 담보를 활용하는 국내 사업관행으로 인해 해외사업에도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문제점 인식

나. 상위 건설업체

1) 금융 애로사항 및 지원 희망사항

- 상대적으로 보증의 문제보다는 저금리의 PF 등 사업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금융조건의 대출을 필요로 함

2) 해외건설 특화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시각: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설립

3) 주 자금조달처 : 수출입은행

4) 주 보증서 발급처 : K-sure

다. 중견, 중소 건설업체 및 용역사

1) 금융 애로사항 및 지원 희망사항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관 부재, 담보를 통한 보증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토로함
- 보증기관의 보증서 적시발급에 대한 불만
- 사업진행을 위해 무리한 담보비율 등의 요구도 수용
-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위주 사업관행으로 인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중견, 중소기업의 인식과 중견, 중소를 위한 할당비중이 있기를 바람

2) 해외건설 특화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시각: 중견업체의 60%, 중소

업체의 74%가 시급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답변

3) 주 자금조달처: 국내시중은행

4) 주 보증서 발급처

- 상위업체들보다 중견, 중소기업업체들은 신용담보의 보증서 발급비율이 매우 낮으며 예금담보, 부동산, 보험부보, 계열사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 용역사는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 발급비중이 비슷

5) 부보 발급처

- 중견업체: K-sure
- 중소기업: 서울보증보험, 공제조합, K-sure
- 용역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국내시중은행

3.2.2 금융현황 세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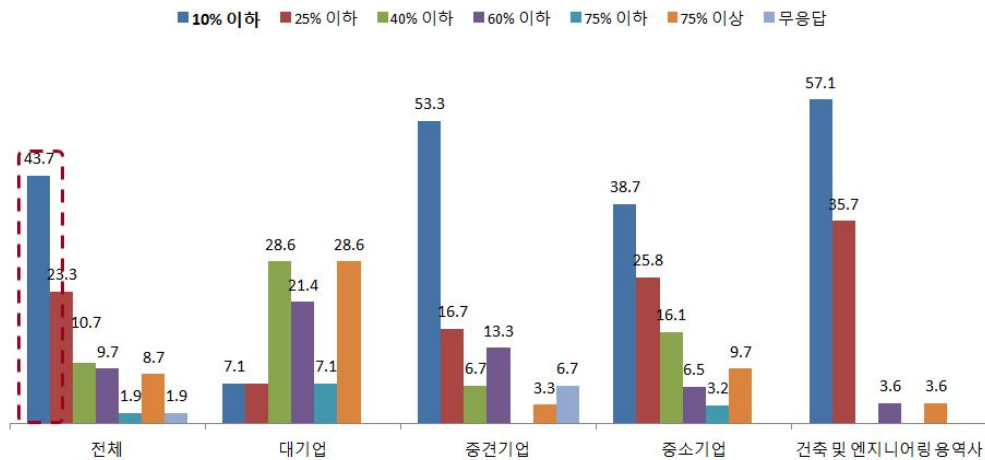
가. 해외사업 비중 및 전망

1) 해외사업 비중

- 설문조사 대상 업체들의 2011년 전체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40%이상의 매출이 해외사업에서 차지하며

일부는 75%를 차지하는 업체도 있으며,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의 약 50%가량이 해외매출 비중이 10%이하로 매우 낮음

<그림 3.8> 2011년 해외건설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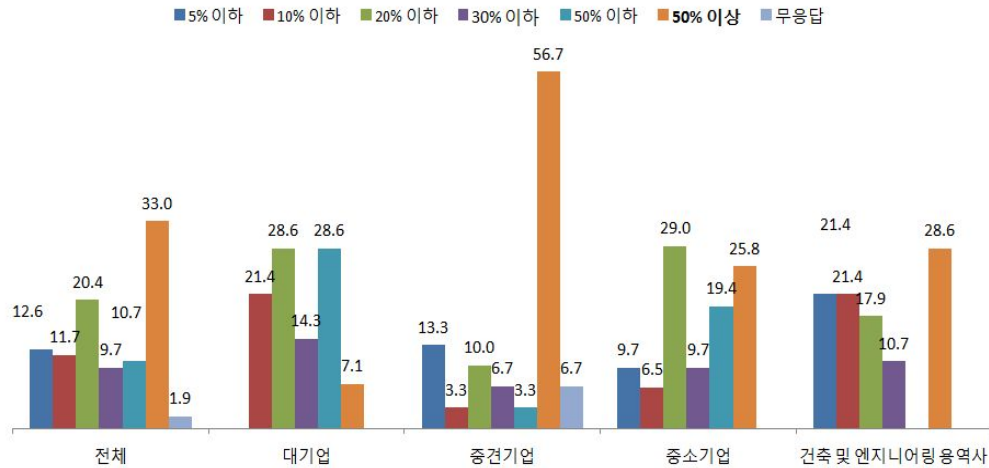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2) 해외매출 전망

-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견기업의 56.7%가량이 2012년 해외매출 비중이 2011년 대비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이는 국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 상당수의 업체들이 해외비중을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반영함. 그 외에도 정도 차이는 있으나 많은 수의 설문응답 업체들이 해외매출 비중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그림 3.9> 2011년 대비 2012년 해외매출 증가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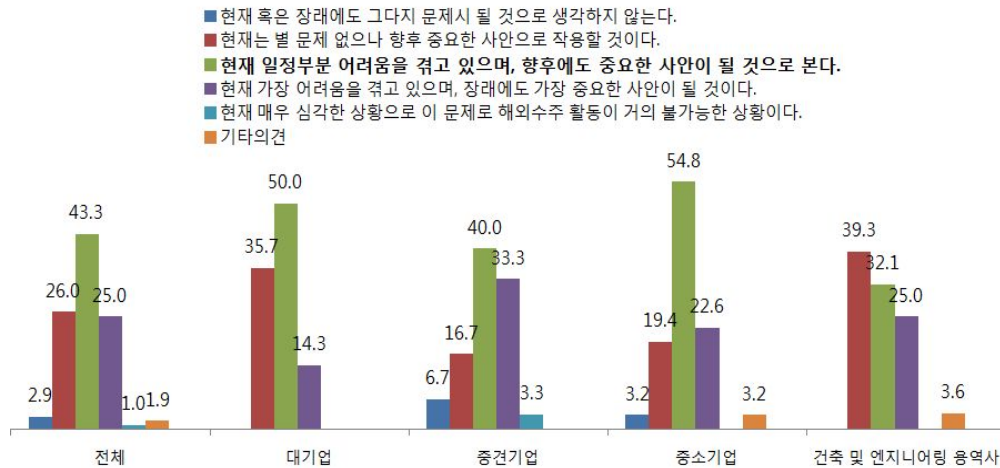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나. 업체 체감 금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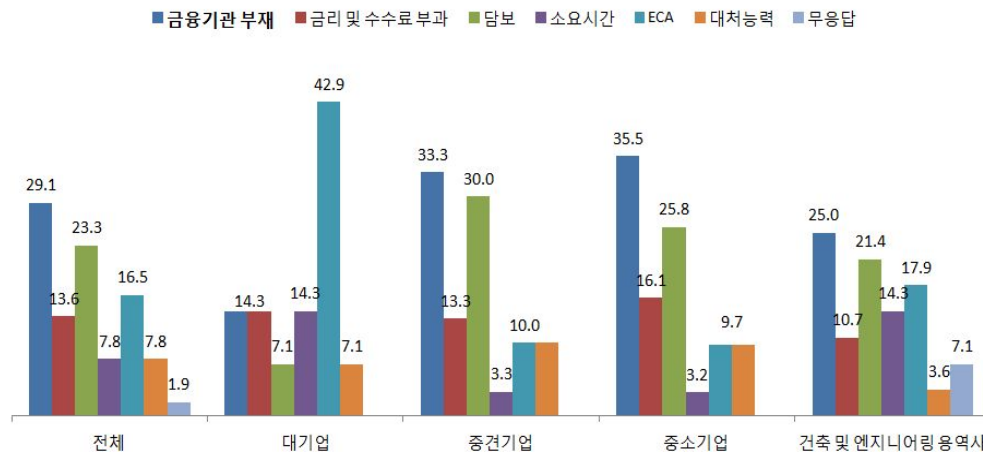
- 해외사업시 설문조사대상 업체 중 대기업의 35% 정도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향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기업의 50%, 중견기업의 40%, 중소기업의 54.8% 가량이 현재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중견기업의 33.3%, 22.6%, 용역사의 25% 업체들이 현재 당면한 가장 어려운 점이 금융이라는 답을 하였음. 중견기업의 3.3%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해외수주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그림 3.10> 해외사업시 체감하는 금융의 중요도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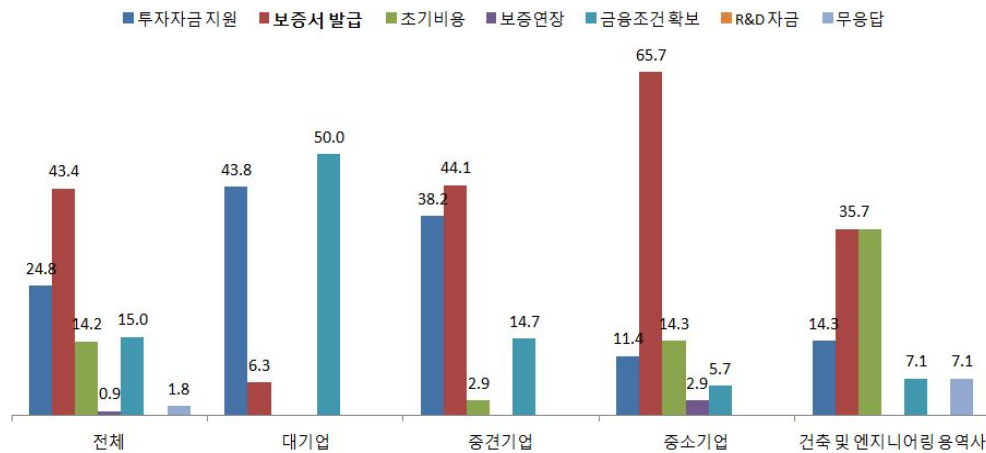
<그림 3.11> 해외건설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 그 중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체의 입장차이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음. 대기업은 보증발급의 어려움은 그다지 없었지만 투자자금지원과 더 나은 금융조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증서발급에 대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용역사는 초기비용도 보증서 발급에 못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3.12> 금융지원시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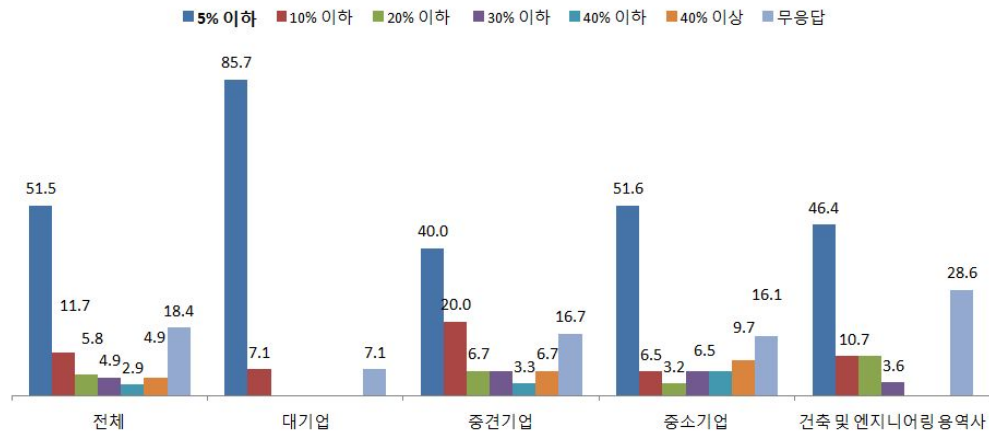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 해외건설금융의 문제점으로는 대기업은 ECA기관의 과도한 의존을, 중견 및 중소기업체는 해외건설에 특화된 전담금융기관의 부재와 과도한 담보 및 보증요구를 주로 꼽았음.

다. 보증현황

- <그림 3.13>은 업체 분류에 따른 보증발급 불가에 따른 수주실패율을 보여줌. 대기업은 수주실패율이 매우 낮으나 중견업체의 약 40%가량 그리고 중소기업의 25%가량이 10%-40%로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 보증서 미발급으로 인한 수주실패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3> 보증 미발급으로 인한 수주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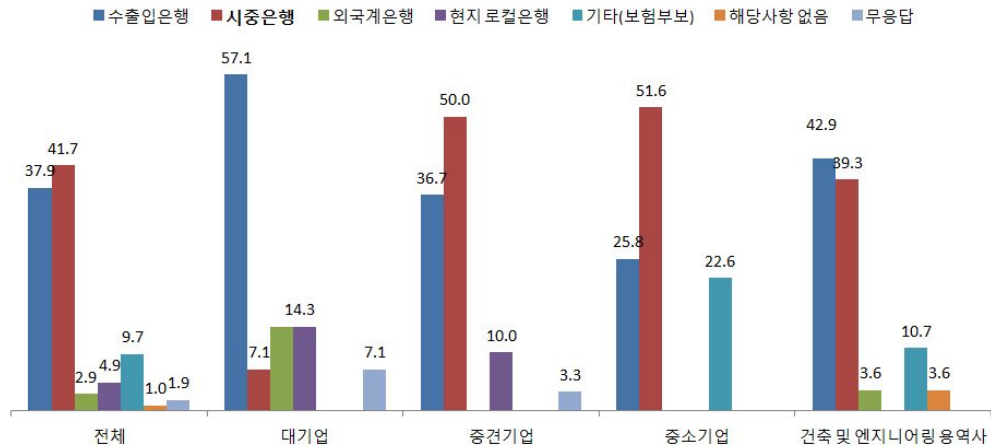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 <그림 3.14>에서 전체 해외건설 관련 보증서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약 80%의 설문응답 업체가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에 집중되어 있음. 대기업은 57.1%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중견, 중소건설사는 약 50%가 시중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출입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용역사는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의 비중이 비슷하게 40%정도이나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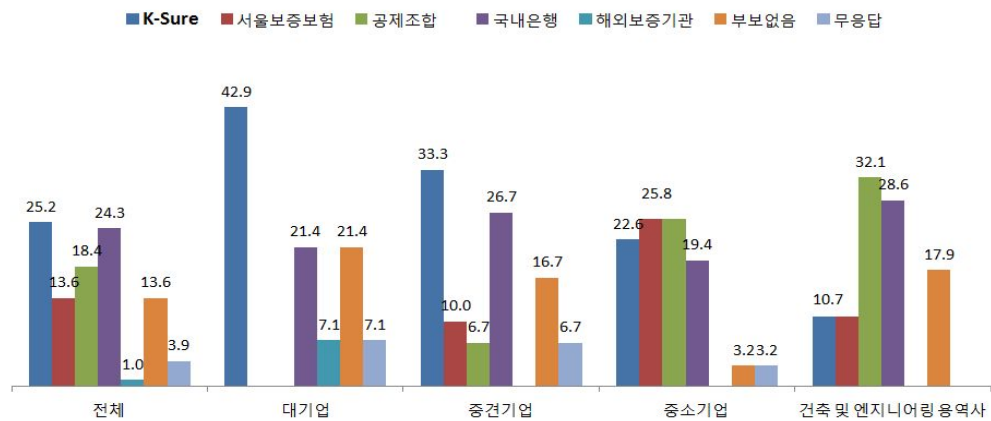
은행의 비중이 약간 높음

<그림 3.14> 보증서 발급 이용기관 비중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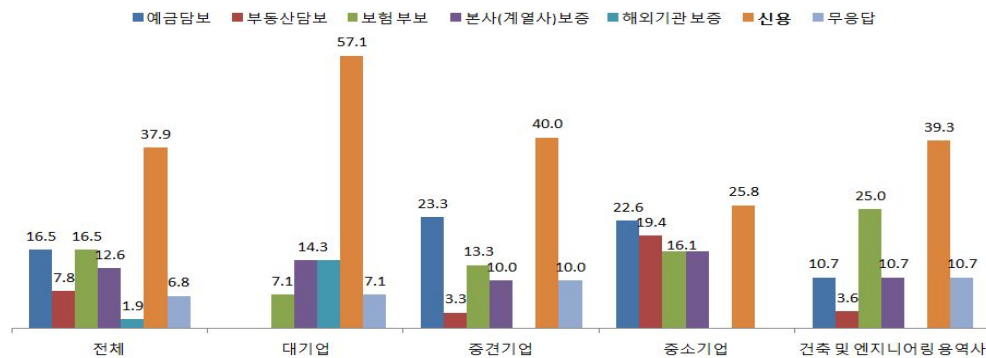
<그림 3.15> 보증서 발급시 부보활용 기관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 <그림 3.15>에서 부보활용기관으로는 업체규모에 따라 대형업체 일수록 K-sure 이용률이 높음. 중견업체는 K-sure의 이용비중이 33.3%로 가장 높고 국내은행이용이 26.7%로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었음. 중소건설업체는 K-sure, 서울보증보험, 공제조합, 국내은행을 골고루 활용하였고 용역사는 공제조합과 국내은행의 활용비중이 60%가량을 차지하였음
- <그림 3.16>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대기업은 57%에 달하나 중소기업은 절반이하인 25.8%에 불과하며 중견, 중소기업은 예금담보, 부동산, 보험부보, 계열사 보증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16> 보증서 발급시 담보제공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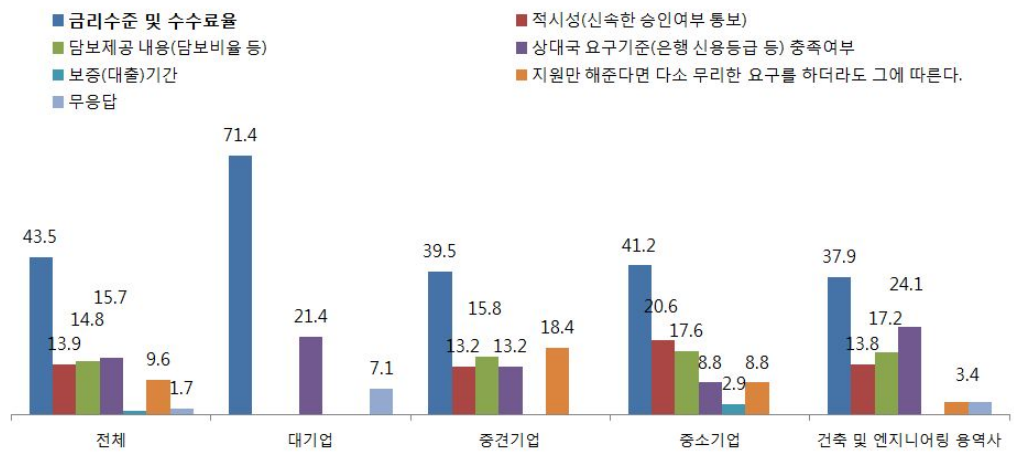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 <그림 3.17>에서와 같이 보증발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금리수준 및 수수료율이나 대기업을 제외한 업체들은 보증발급가능

여부에 대한 신속한 통보, 담보비율, 상대국 요구기준 충족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에 포함됨.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중견사의 경우 18.4%가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무리한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그림 3.17> 보증서 발급시 중요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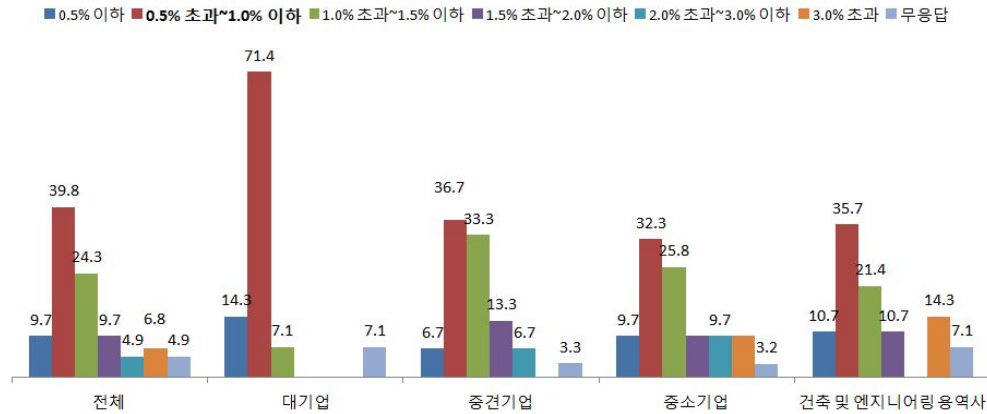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라. 수수료

- 국내 bond 발급시 수수료는 대기업은 70% 이상이 0.5%-1.0%의 수수료를 부담하나 중견업체의 20%가량, 중소기업체의 30%에 가까운 업체들이 1.5%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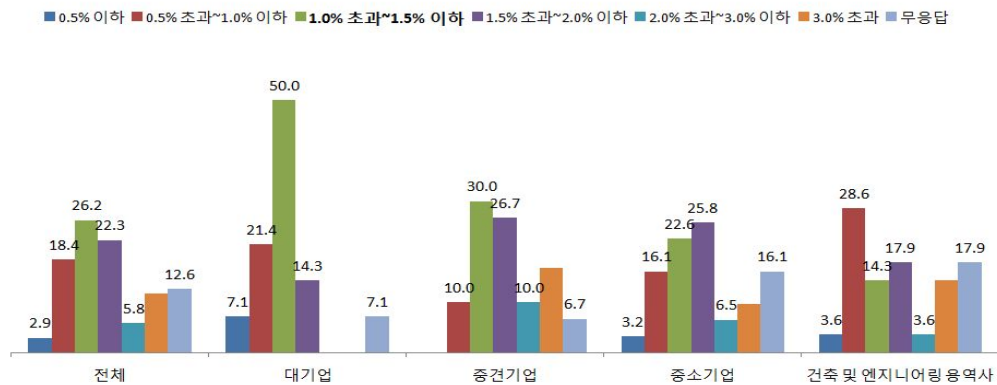
<그림 3.18> 국내 bond 발급 수수료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 또한 복보증이나 복복보증의 경우 상당수의 중견 및 중소규모 건설사가 2.0% 초과, 일부는 3.0%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19> 복보증시 총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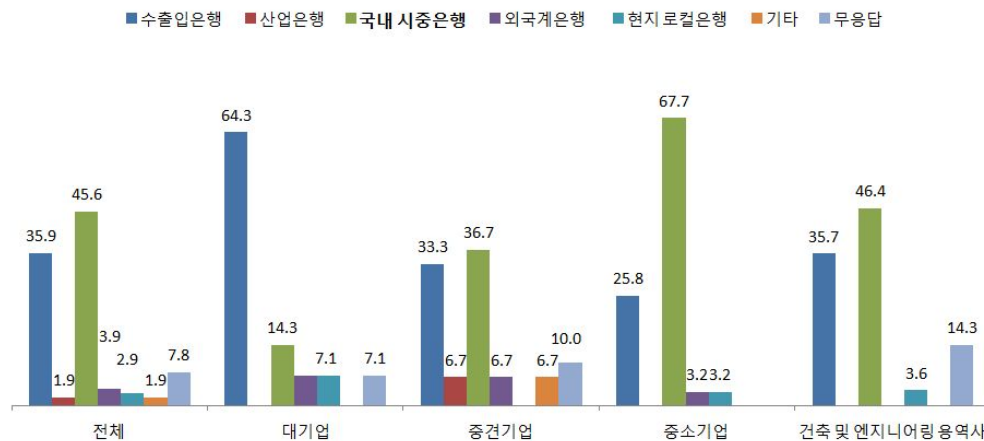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마. 자금조달처

- 자금조달처도 업체규모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를 보임. 해외건설 상위업체 64.3%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고 중소기업의 67.7%가량이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0> 해외건설 사업시 주 자금조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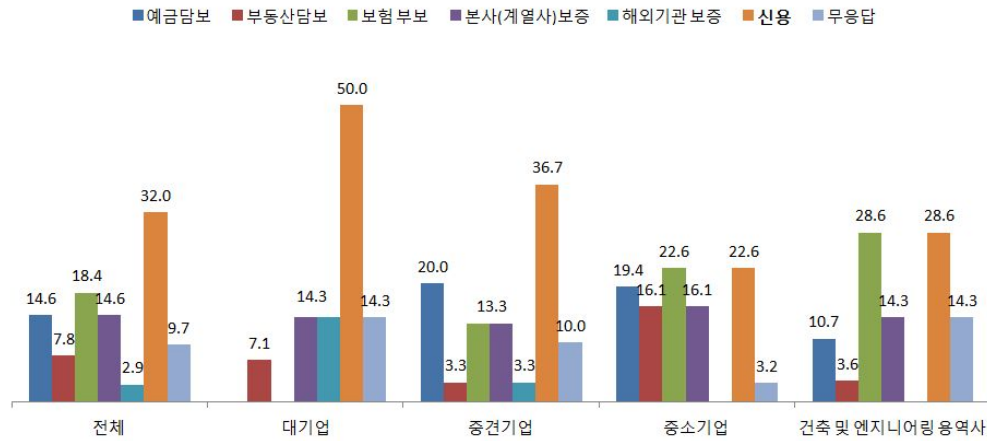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바. 담보제공

- 해외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제공하는 담보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순으로 신용담보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며 예금, 부동산, 보험부보 등을 통한 담보를 제공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남. 계열사 보증 비율은 전 업체군에서 대동소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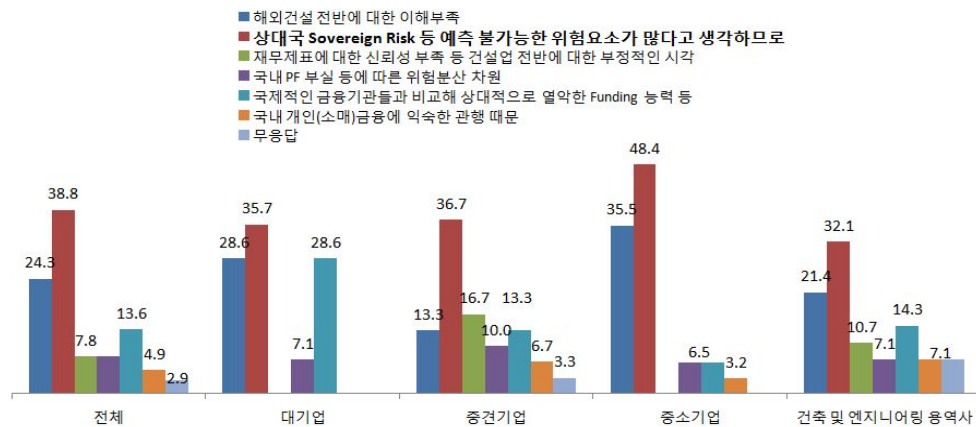
<그림 3.21> 자금조달시 담보제공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사. 지원한계 요인

<그림 3.22>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 한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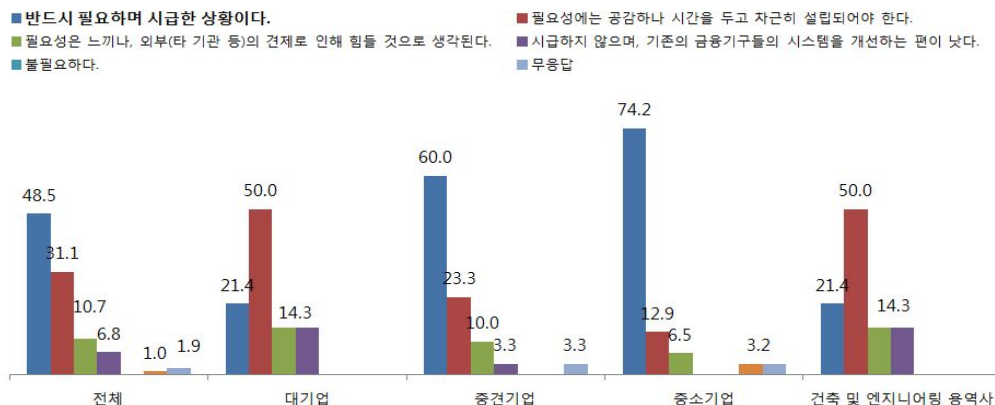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 해외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위에서 답변한 금융관련 어려움들이 해외사업에 대한 상대국 소버린 리스크와 같이 예측이 어려운 요소들로 인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답하였음. 또한 해외건설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도 두번째로 많은 답을 차지하였고 국제적 금융기관에 비해 펀딩능력이 떨어진다는 답변도 전체의 13.6%를 차지하였음

아.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대기업과 그 외 건설업체들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하였음. 대기업의 경우 50%가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단지 21.4%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하지만 중견업체의 60%, 그리고 중소기업의 74%가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설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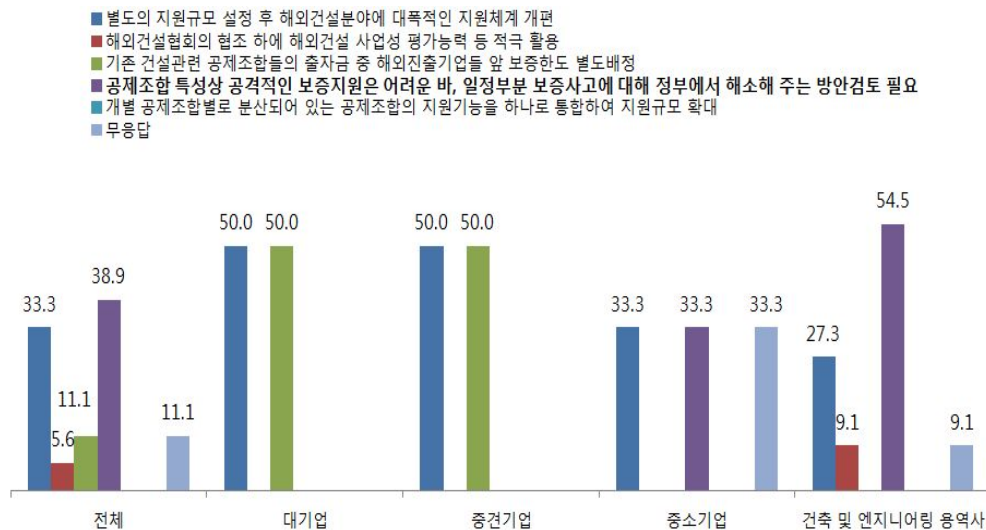
<그림 3.23>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필요성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 기존기관을 활용할 경우 상위업체와 중견기업 모두 별도의 지원 규모 설정하여 해외건설분야에 대폭적인 지원체계 개편, 그리고 기존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출자금 중 해외진출기업들 앞으로 보증한도를 별도배정해야 한다는 두가지 답변으로 각각 50%의 비율로 답하였음. 하지만 중소기업들과 용역사들은 공제조합 특성상 공격적인 보증지원이 어려운 이유로 일정부분 보증사고에 대해 정부에서 해소시켜 주는 방안을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24> 기존기관 활용시 지원형태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성케이피엠지컨설팅(주)

3.3 해외건설 유관 금융기관의 보증업무

3.3.1 한국수출입은행

가. 개요

1) 기능 및 역할

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의 국가수출 촉진 지원

-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 IT 등 첨단기술산업에 수출금융 지원
- 해외투자자금, 외국현지법인의 사업자금 및 해외자원개발 금융 지원
-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주요자원 수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

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공적개발원조 (ODA) 정책방향 연구

다) 남북협력기금(IKCF)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유무상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은행으로 지정

2) 조직구조

- 플랜트금융부 (23명), 해외건설 관련 보증 및 해외플랜트 여신 지원 (수출자금, PF, 직대)
- 녹색성장금융부 (21명), 관할 업무 중 발전 및 수처리 분야 여신 포함(수출자금, PF, 직대)
- 미래성장금융부 (4명), 관할 업무 중 방산 및 고속철 분야 여신 포함 (수출자금, PF, 직대)
- 중소기업금융부 및 10개 지점 (98명), 관할 지역 여신 지원 중 해외건설 보증 포함

<그림 3.25> 한국수출입은행 조직도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3) 주요사업

-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통적 역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문, 출자 및 주선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 정책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가) 금융자문 업무

- 금융자문부 및 해외건설금융실 신설
 - 해외건설,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인수·합병(M&A)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 영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종합금융 패키지를 제공
 - 사업주를 위한 금융자문 또는 금융주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성사를 지원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보증발급 전담 등

나) 히든챔피언 육성

-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수출구조의 대기업 편중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성장장애를 겪게 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허리도 점차 부실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sustainable & balanced growth)을 달성하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추진

○ 기업신청

- 신청자격: 매출액 400억원이상 1조원미만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심사 및 육성대상 선정

- 세계일류상품인증, 신기술 인증, 특허 등 기술력이 높은 기업
-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 우선 선정

○ 히든챔피언 마스터플랜 (Master plan) 수립

: 히든챔피언 마스터플랜 = 중장기사업계획 + 맞춤형서비스처방

-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 제공
- 금융서비스: '수출품개발 → 생산 → 해외판매' 등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 제공
- 비금융서비스: KOTRA 등 외부전문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

나. 보증업무

-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2월,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신용 취급을 대폭 늘려 연간 5천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해외수주 중견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표 3.9> 주요 보증관련업무

상품명	주요내용
이행성 보증	국내 수출자의 수출거래 수주 및 이행을 위해 입찰보증, 선수금환급 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 등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제반 보증 상품
채무보증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입자 또는 차주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대출금을 대신 상환 할 것으로 보증하는 상품
이자율지지 업무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을 받아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OECD수출신용협약에 따른 공적수출금융을 고정금리인 상업참고금리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금리차(상업참고금리와 변동대출금리간 금리차)로 발생하는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을 환수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가) 이행성보증 조건

<표 3.10> 보증조건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보증의뢰인)	대상기업 :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해외손회사
보증수혜자	수출거래 또는 공사계약을 발주 또는 체결하는 자 또는 보증수혜자를 위하여 보증을 하는 국외금융기관이나 보증대상거래의 권소시업 주간사
보증금액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내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 등의 제반비용 포함 가능
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 \pm 가산율 (보증의뢰인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거래성격 등에 따라 차등)

채권보전	신용: 보증의뢰인의 신용이 양호한 경우 담보: 적격보증기관의 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주식
기 타	거래 빈도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 가능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나) 이행성 보증발급 절차

<그림 3.26> 보증발급 절차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다) 보증상품별 금리

- 보증료율은 보증의뢰인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거래성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표 3.11> 상품별 금리

자금종류			금리 (보증료, 수수료 포함)
수출지원금융	중장기 수출자금 대출	제작금융	- 고정금리 : 기준금리(수금채/swap) + 가산율 - 변동금리 : 기준금리(KORIBOR/LIBOR) +가산율
		연불금융	- 고정금리 : CIRR + 신용위험가산율 - 변동금리 : 기준금리(KORIBOR/LIBOR) + 가산율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 고정금리 : 기준금리(수금채/swap) + 가산율 - 변동금리 : 기준금리(KORIBOR/LIBOR) + 가산율
		해외시장개척자 금대출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단기수출 지원	단기수출자금대출	
		중소기업특례신 용대출	
		포괄수출금융	
	외국인 수출자금 대출	직접대출	- 고정금리 : 기준금리(CIRR) + 가산율 - 변동금리 : 기준금리(LIBOR) + 가산율 * OECD 협약에 따른 대외대출프리 미엄 등 징수
		전대자금대출	
수입 지원금융		수입자금	- 고정금리 : 기준금리(수금채/swap) + 가산율 - 변동금리 : 기준금리(KORIBOR/LIBOR) + 가산율
해외투자 지원금융	해외투자자금		- 고정금리 : 기준금리(수금채/swap) + 가산율 - 변동금리 : 기준금리(KORIBOR/LIBOR) + 가산율
	해외사업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보증	이행성보증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등)	- 기준보증료율 + 가산율
	채무보증	OECD 협약에 따른 대외보증프리미엄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해외건설 보증실적 및 지원계획

1) 해외건설 보증실적

○ <표 3.12>와 같이 해외건설 여신비중은 전체 여신 중 해외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표 3.12> 해외건설 연도별 대출 및 보증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여신	대출	194,634	252,690	328,439	387,669	428,400
	보증	205,202	309,869	229,604	255,741	244,453
	계 (a)	399,836	562,869	558,043	643,409	672,854
해외 건설	대출	20,168	26,434	38,540	41,627	68,105
	보증	11,462	31,949	42,987	55,510	56,845
	계 (b)	31,630	58,383	81,527	97,137	124,950
지원비율(%) (b/a)		7.9	10.4	14.6	15.1	18.6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보증 취급은 주로 상위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실적은 2007년 전체

보증실적의 약 4.7%로 최근 해외건설분야 지원액이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중견이하기업에 대한 지원은 내부신용평가 기준에 미흡하여 별도의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수출입은행법에 근거, 그룹사별 총 신용공여한도(Total Exposure)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약 9조원)의 50%로 묶여 있으므로 대기업 계열 건설업체 앞 추가 금융지원 역시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임

2) 해외건설 지원계획

- 중견기업
 -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신용취급 대폭 확대 (연간 5천억 원 수준의 보증서 발급)
- 중소기업
 - 대기업과 협력하여 대기업에 기자재를 납품하거나 해외에 동반진출하는 중소건설사에 대해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경영 전반을 지원

<표 3.13> 해외건설 지원예상금액 (연간 집행액 기준 추정 수치)

(단위: 조원)

구분	2012년(E)	2013년(E)	2014년(E)	2015년(E)
보증	7.0	7.5	8.3	9.1
대출	4.5	5.6	6.2	6.8
합계	11.5	13.1	14.5	15.9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현재 적용중인 우대정책 등 지원 프로그램
 - 입찰보증을 전액 신용으로 지원하여 입찰단가 절감을 통한 건설사의 수주 가능성 증대
 - 선수금 환급보증의 경우 선수금관리를 받을 경우 전액 신용으로 지원하여, 건설사들의 리스크관리와 담보 부담 완화
 - 해외수주 중견 건설사에 대한 보증료율을 10-20bp 인하하여 금융비용 부담 완화
- 향후 계획 중인 지원확대 프로그램
 -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수주사업 수출관련 이행성 보증을 수은의 상생 자금 지원대상 여신에 포함하여 보증료율 인하를 통한 우대 지원

라. 해외건설 지원관련 애로사항

- 중견이하 기업 지원시 내부신용등급 평가기준 완화 등으로 최대한 지원코자 하나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기업 규모 대비 과도한 공사 수주로 재무여력이 부족하여 외부환경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개연성
 - 해외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문인력 미확보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부족 등

3.3.2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가. 개요

1) 기능 및 역할

○ 수출·수입보험 독립전담기구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불의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수출·수입보험 업무 전담운영

○ K-Sure의 비전 2020

- 2020년 무역 2조 달러 건인 및 세계무역 5강 진입을 선도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종합무역투자지원기관 지향
- 2020년 무역보험 인수목표 360조 원 책정 (2010년의 2배)
- 글로벌 ECA 기관협력 강화
- 무역보험 글로벌 학술교류 협력
- 무역보험 제도운용의 글로벌협력 확대

2) 조직구조

가) 녹색성장사업부 녹색산업팀

-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인수상담

나) 녹색성장사업부 발전담수팀

- 발전담수 수출 관련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인수상담

다) 플랜트사업부 석유화학팀

- 석유·가스 하류부문 (정제 이후 공정) 수출 관련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관련 인수상담

라) 플랜트사업부 정제일반설비팀

- 일반설비 (국내기업의 지분투자 설비 제외) 수출 관련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관련 인수상담

마) 해외투자사업부 자원개발팀

-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등 관련 인수상담

바) 해외투자사업부 해외사업팀

-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 환변동보험 관련 인수상담

<그림 3.27> K-sure 조직도



§. 출처 : K-sure 홈페이지

3) 주요 사업

가) 수출보험제도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신용위험 (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

- K-sure의 수출보험제도의 종류는 <표 3.14>와 같음

<표 3.14> 수출보험제도

구분		내용
단기 성 보 험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 보상
	중소기업Plus+ 보험	보험계약자는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부품소재신뢰성 보험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과 관련된 재산적 피해를 담보
중장기 성 보 험	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보상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증서(Bond)를 발급 후, 보증채무를 이행 시에 발생하는 손실보상
	해외공사보험	해외건설공사 등의 기성고방식 또는 연불수출방식 수출에서 수출대금의 미회수 또는 투입장비의 권리상실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보상
	해외투자보험	주식취득 등 해외투자 후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보상
	해외사업금융 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증진,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보상
	서비스종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 책임으로 서비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보상
	이자율변동보험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 제공금리(고정금리)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상 (이익은 환수)

	수출기반보험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 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보상
--	--------	---

§. 출처 : K-sure

○ 기타 수출보험 및 서비스

-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나) 수입보험제도

- 국내 수입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적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표 3.15> 수입보험제도

구분	내용
수입자용	국내기업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
금융기관용	금융기관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기업에 대출하였으나 국내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

§. 출처 : K-Sure

나. 보증업무

1) 중장기수출보험

- 국내금융기관이 중장기수출계약에 의한 수출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정부 및 법인에게 공여하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최근 해외건설시장의 글로벌자금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발주처에게 경쟁력 있는 금융조건을 제시하여 국내기업의 해외공사 수주를 위해 지원⁵⁾

2) 해외공사보험

- 해외공사계약 발주자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기성단계별 또는 공사완료 후 ‘대가로 확정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이나 공사이행에 소요된 비용 중 ‘대가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해외건설, 해외엔지니어링 활동 및 장비로 구분되어 운용

3) 수출보증보험

-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⁶⁾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calling)를 받아 대지급하는

5) 싱가포르 주룽 석유화학설비 건설사업(2010.10), 베트남 몽중 화력발전 사업(2011.06) 등

6)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서로서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도록 되어 있음.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이로 인해 계약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가능
- 주로 해외건설 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복보증으로 이용

다. 해외건설보증 실적 및 계획

1) 지원실적

<표 3.16> K-sure의 해외건설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지원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획)
중장기수출보험	16,409	18,736	9,594	26,872	25,850	46,000
해외공사보험	8,730	21,590	1,958	17,162	12,002	22,000
수출보증보험	1,274	16,865	45,432	34,683	25,553	29,000
합계	26,413	57,191	56,984	78,717	63,405	97,000

§. 출처 : K-sure

- 해외공사보험은 2011년 1조 2천억원 규모이며 모두 대기업에 대한 실적임
- 해외건설 복보증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출보증보험의 2011년 실적은 2조5500억 원 규모이며, 80%이상이 대기업에 대한 실적임
- 수출보증보험 실적의 감소

-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한 이유는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자체적으로 현지 직발급 사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상대적으로 K-sure 역할의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음

2) 지원계획

○ 2012년 실적전망

- 현지은행의 신용한도로 인하여 무제한적인 보증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2012년 수출보증보험 실적은 2조9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지원계획

<표 3.17> K-sure의 2012년 지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금융	이행성보증	기타
금액	76,000	29,000	34,000

§. 출처 : K-sure

- 수출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해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수출기업 및 발주처에 대한 수출금융 및 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
- 중소 플랜트기자재 수출기업 지원강화 방안 (2012. 01)
- 해외플랜트 수주에 필요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 보증한도 해외수주 10대 기업 중 2개사 이상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상의 원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해외건설협회 또는 플랜트산업협회가 발급하는 ‘사업성검토 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해외우량 발주처의 벤더리스트(Vender list)에 등록된 중소건설사는 인수한도가 우대되고 보험료가 20% 할인되며 일반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5%, 10% 보험료 우대
- ‘어깨동무 수출보증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대기업과 중소 플랜트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여 신용도가 낮은 협력사에 이행성 보증 우대지원

라. 해외건설 지원관련 애로사항

1) 금융지원 (Funding)

- 해외발주처에서 금융지원을 요청받는 경우 발주처의 신용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
- 하지만 직접대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
- 최근 ECA 사업에 참여 시 100억 달러 이상으로 사업금액이 큰 규모가 많아 참여가 어려움

2) 이행성보증

- 상위 15개 이상 대기업은 보증문제 없음
- 중견업체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부담하길 꺼려함으로써 K-sure 수출보증보험증권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담보가 대신 필요한 실정
- 하청업체들은 주로 건설공제조합 혹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받아 해결

- 그 외 기업들은 신용이 너무 낮거나 리스크가 커서 보증을 받기 어려움

3) 보증위험을 분담할 국내은행의 부재

- 중소기업은 자본금이 10억 원 내외이며 그 이상의 금액의 보증 발급은 어려움
- 자본금 5억 원의 회사가 10억 원 규모의 보증발급을 요청한 경우 K-sure 단독으로의 지원은 불가능하고 국내시중은행과 50:50 형태로 위험을 분산한다면 지원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나머지 50%의 위험을 부담할 국내시중은행이 부재

4) 보증위험에 따른 신용검토

- 과거 적극적으로 중견업체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신용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

3.3.3 서울보증보험

가. 개요

1) 기능 및 역할

○ 국내 최대 보증기관

- 1971년 3월에 설립된 대한보증보험과 1989년 11월 설립된 한국보증보험이 1998년 11월 합병되어 탄생
- 보증잔액 179조 원 (2011년 3월 기준, 총자산 5조6000억 원)
-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 신용등급 A+, Standard & Poor's 신용등급 A- 등 투자적격 등급기관

○ 주요 정책보증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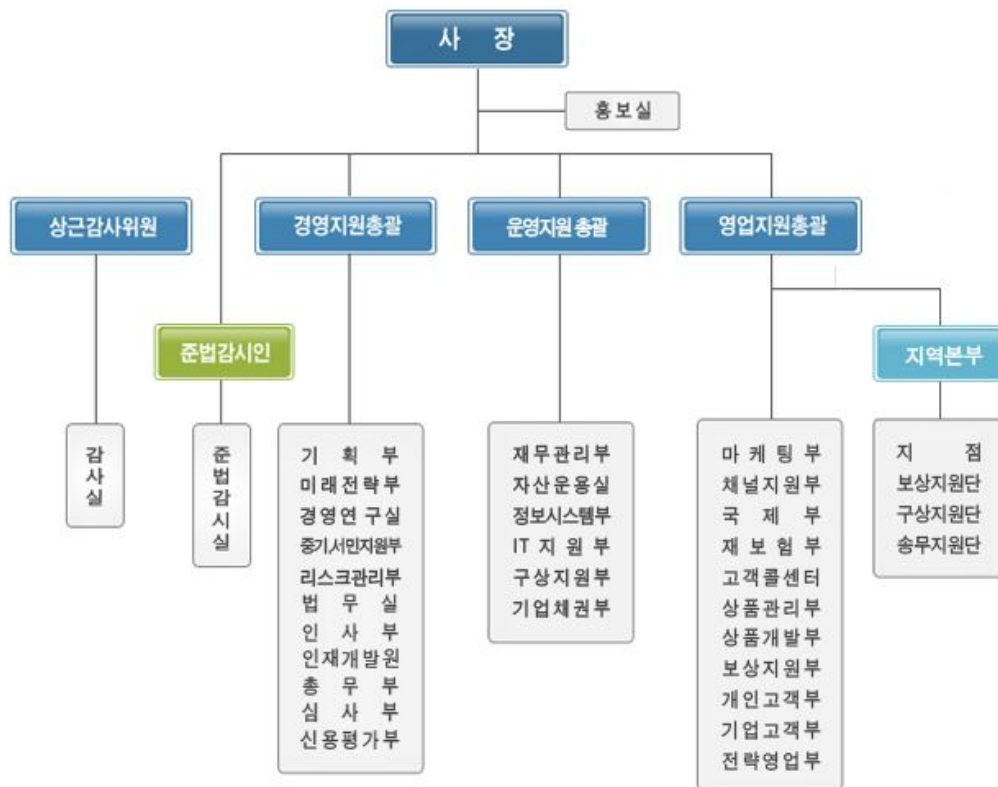
-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증서비스 제공
- 68개 상품, 1300여개 이상의 세부 보증내용 운용

2) 주요연혁

- 2011.01 Fitch 신용등급 A+ 획득
- 2008.01 Fitch 신용등급 A- 획득
- 2007.11 한국신용평가 AAA 신용등급 획득
- 2007.03 연간수입보험료 1조원 돌파
- 1998.11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 합병으로 탄생
- 1989.11 한국보증보험 설립
- 1969.02 대한보증보험 설립

3) 조직구조

<그림 3.28> 서울보증보험 조직도



§. 출처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4) 주요 사업

○ 개인 및 기업의 보증보험과 신용보험 업무

- 신용보증, 이행보증, 인허가보증, 지급보증, 할부판매보증 등에 관한 보험업무
- 보험업법 제2조 및 4조를 근거로 경제활동시 발생하는 각종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부족한 신용 보완

- 채권자에게 신원보증, 채무이행보증, 신용보험 등 56개의 보증
보험 및 신용보험상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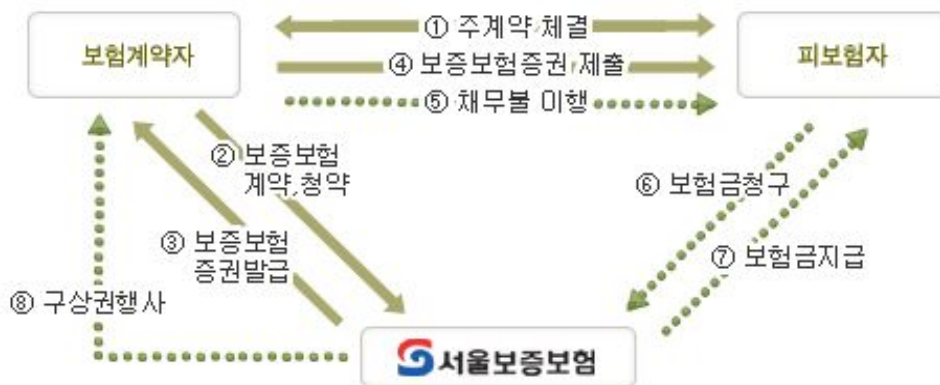
가) 보증보험

-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담
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하여 이
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경제제도

나) 신용보험

- 신용보험은 상품 또는 용역(대출포함)을 별도의 담보없이 제공하는
기업이 외상구매자 또는 용역(대출포함)을 제공받는 자의 지급불능
이나 이행지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스스
로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

<그림 3.29> 보증보험 형태 및 구조



§. 출처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나. 보증업무

1) 보증의 종류

가) 공사이행보증보험

- 보험계약자인 수주자가 건설공사계약,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이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

<표 3.18> 공사이행보증보험의 기간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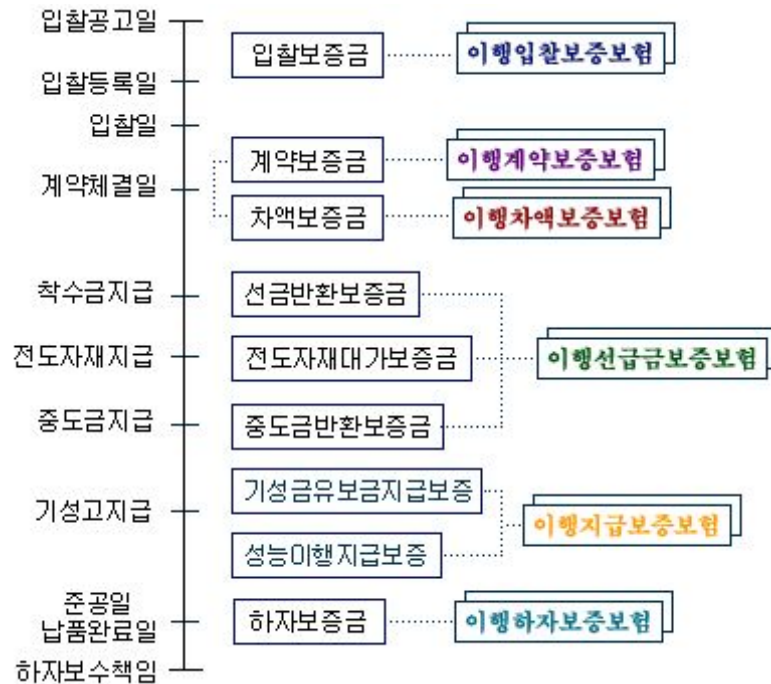
보험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이행기간 말일까지로 하되,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규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 등에 보험기간 또는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름
보험금액	당해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액으로서 계약금액을 최고한도로 정함

§. 출처 : 서울보증보험

나) 이행보증보험

-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
- 입찰, 계약, 차액, 하자, 선급금, 상품판매대금, 지급보증보험 등

<그림 3.30> 이행보증보험의 단계별 절차



§. 출처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다) 설계·감리상품권 보증보험

- 보험계약자인 설계 및 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인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을 보증하여 주는 제도
-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용역, 건설관리손해보증 등

라) 시공보증보험

-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서 선정된 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이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

2) 보증평가 업무

- 심의는 규모에 따라 다르며 영업지점, 지역, 본부 및 본사에서 가능 (영업전담 정책부 등에서 진행, 약 11개 부서)
- 해외는 대표사무소, 국제부, 재보험부가 있음
- 수수료율은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고 있어 자의적으로 높일 수 없고 3년에 한번 조정
- 거래업체의 98%가 중소기업
- 전체 보증발급의 30%가 건설분야에 해당하며 이중 약 4%가 해외건설보증이 차지

3) 보증한도

○ 업체 구분

- 신설업체: 설립 3년 미만으로 설립 후 합산매출액 5억 원미만
- 기존업체: 신설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신용평가등급 구분

- 1등급-10등급까지 10등급으로 구분
- 단, 개인사업자, 신설업체 등 평가자료를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 미산출 업체는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으로 적용

○ 담보예치 기준

-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신청자가 회사에 제공할 최저 담보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비율
- 법인 또는 대표자가 신용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담보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음

<표 3.19> 최저 담보금액

구분		8등급이상	9등급	10등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0%이상	22%이상	25%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 가스설비	20%이상	23%이상	30%이상
	기타	20%이상	22%이상	25%이상

§. 출처 : 서울보증보험

다. 해외건설보증 실적 및 계획

1) 지원실적

○ 해외건설보증 대부분 발주처에 직접발급

-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보증공급은 소액위주(평균 4.7억 원)로 전체 해외건설보증 대비 88.9%를 차지 (건수 기준)
- 보증규모는 최근 1년간 6천4백억 원, 906건(로컬 현지은행 발급, 복보증 포함)
- 해외 직보증이 가능토록 국제신용기관의 상위 평가등급 획득
- 중동은 제도적으로 직발급된 보증을 받지 않으므로 현지은행만 보증하여 복보증 형식, 그 외 국가에는 직발급을 통한 지원

<표 3.20> 이행성보증 발급 실적 (2009년-2011년)

(단위: 천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행성보증	938,983	772,274	873,264

§. 출처 :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3년 동안 약 25억 달러(2조8700억 원)이상의 이행성보증을 발급함 (직보증 및 복보증 포함, 신규발급)

<표 3.21> 해외건설보증 지원실적 (2011년)

(단위: 건, 억원)

구분	시중은행	해외은행	발주처	합계
건수	67	34	805	906
(비중 %)	7.4	3.7	88.9	100.0
가입금액	2,421	285	3,708	6,414
(비중 %)	37.8	4.4	57.8	100.0

§. 출처 : 서울보증보험

- 보증발급건수 기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비중이 높으며 신용위주의 보증발급을 함
- 직보증과 복보증 중에서 약 50% 이상이 직보증
 - 중국, 베트남은 직보증 가능, 중동은 현지요구로 인해 경유

2) 지원계획

○ 해외조직 기능강화

- 해외 대표사무소의 추가설립 및 지점전환을 추진중이며, 현지 전문인력 충원 예정
- 재보험부 신설을 통해 해외 프론팅 및 재보험 기능 강화

○ 해외보증 확대전략 추진

- 해외보증 확대를 위한 현지 금융기관과의 MOU체결 등 국내외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대
- 외국정부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대하여 국내 초청연수 실시
- 해외보증 관련 상품개선 및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계약 담당자 초청 워크숍, 설명회 및 홍보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강화
- 영업지점 해외보증 전담자 제도 운용 및 해외보증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라. 해외건설 지원관련 애로사항

○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

- 일반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여신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가장 많이 공급
- 이에 대한 정보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알기 어려워 보수적인 접근은 불가피한 입장
- 최근에는 건설에 부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부도 한건 발생 시 동 업체에 발급된 보증은 모두 사고로 처리되므로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

- 외국의 Surety bond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름
 - Guarantee insurance (약관이 복잡), Demand guarantee (청구 시 지급, 해외건설 이행보증은 모두 이에 해당)가 있고 이 중간에 Surety(Bank guarantee와 유사)가 위치
- 해외에서 보험사로 인식
 - 서울보증보험의 영문이름 (SGIC, Seoul Guarantee Insurance Corporation) 때문에 해외에서는 보험사로 인식
 - 보통 은행에서 발급되는 Guarantee 취급에 대해 설명이 필요
 - 해외발주처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으며 Demand guarantee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복잡한 Guarantee insurance로 오해하여 꺼리기도 함
 - 국제부에서 영업시 Bank guarantee와 유사함을 설명
- 수수료율
 - 수수료율은 공제조합과 국내시중은행의 중간정도
 - 한국수출입은행, K-sure와 다르게 경기불황 시에도 과거 3년 기록대비 요율 25%이상 인상 불가

3.3.4 건설공제조합

가. 개요

1) 기능 및 역할

-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 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추구함
 - 건설공제조합은 종합공사업자(일반건설업체)가 조합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설립한 조합형식의 기관으로, 주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계약, 공사이행, 하자, 선급금 등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건설보증기관
 - 최근 급변하는 건설시장 환경에 따라 부실업체의 진입 차단 및 건설수요자 보호와 같은 건설 산업의 지위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음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율과 한도 등은 조합원 수, 자본금 규모,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함

2) 주요 연혁

- 2010.09 차세대시스템 오픈
- 2009.10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국내 최초 시행
- 2008.01 건설공사공제 사업개시
- 2007.05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및 수익사업 근거마련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1999.07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신용거래 전면 실시
- 1997.07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제조합 사항을 통합규정
- 1995.07 신용평가제도 도입

- 1988.04 전문건설공제조합 분리
- 1963.10 창립총회 개최

3) 조직구조

<그림 3.31> 건설공제조합 조직도



§. 출처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 건설공제조합은 해외건설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없음

4) 자본금 및 조합원 수

가) 자본금

- 조합원이 직접 출자한 금액(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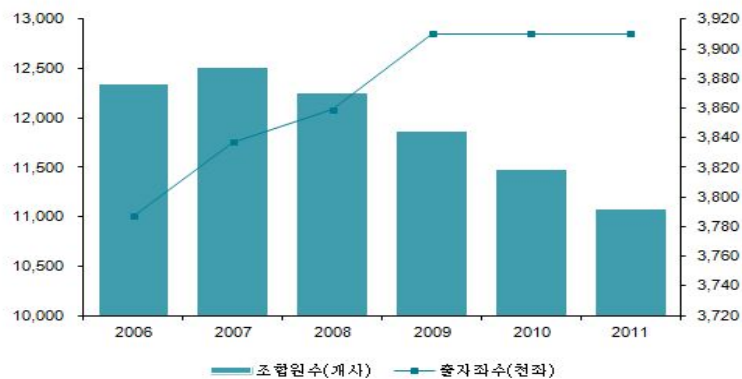
을 자산으로 운영함

- 자본금은 조합원의 출자좌수와 당좌의 가치에 의해 결정됨
-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 추가좌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증자함

나) 조합원 수

- 2002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도입으로 인해 2001년 조합원수에 비해 2.1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조합원수는 12,507개사로 1997년 3,716개사에 비해 10년간 약 3.4배 증가
-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이 더욱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며, 꾸준한 감소폭을 보이며 현재 11,077개사가 출자 중

<그림 3.32> 최근 5년간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및 출자좌수 변동추이



§. 출처 : 건설공제조합

5) 주요 사업

-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업무, 용자업무, 임대사업, 연수사업, 공제사업,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생수익 중에서 보증업무 및 용자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임

가) 보증

- 거액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건설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을 제공함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는 우리나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보증의 대부분을 소화함

나) 용자

- 건설사업 운영 및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로 공사대미확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용자
 - 용자업무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신속히 공급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건설업계의 자금지원창구로서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조합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사업 관련 공사대금 후불조건으로 수급하거나, 승인받아 시공한 공사

에 대한 시공자금의 용자 (공사대금 확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 자금의 용자)

- 건설공사 시행시 필요한 주요자재 구입자금의 용자 (공사대미확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용자)
- 실제 공사에 수반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진성어음의 할인

<표 3.22> 건설공제조합의 용자의 종류 및 내용

운영자금	주요 건설자재의 비축, 건설용 기계, 장비의 구입 또는 보수와 노임지급 등 건설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시공자금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로 공사대미확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용자
자재자금	조합원이 공사시행에 필요한 주요자재(시멘트, 철근, 합판, 유류) 구입자금의 용자로 공사대미확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용자
어음할인	조합원이 실제 공사에 수반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진성어음의 할인
프로젝트자금	조합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사업관련 공사대금 후불조건으로 수급하거나 승인받아 시공한 공사에 대한 시공자금의 용자로 그 공사대금 확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용자

§. 출처 : 건설공제조합

다) 보상과 분쟁처리

- 조합의 보상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나 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자나 보증채권자는 보증서 사본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음

- 보증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 조합은 보증사고 관련서류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거친 후 공정하고 적정한 보증금지급액을 산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음

라) 공제사업

- 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

마) PF사업

-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사업에 진출 하여 장기투자재원을 마련함

나. 보증업무

1) 보증현황

-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국내 건설경기의 장기 복합불황으로 최근 중견 및 중소기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해외건설 시행시 우리 기업이 현지은행에서 자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국내은행이 복보증서를 발급하여 백업(back-up)하는 경우가 많음
 -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은행의 리스크를 배분하기 위하여 지급보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복보증을 제공하여 보증리스크를 분산시켜옴
- 해외건설보증의 문제점은 기업들이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건설공제조합이 일반건설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해외건설보증을 직접 취급할 수 없음
 -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보증 취급은 상위 10대 기업에 치중되고 있음
 - 따라서 실질 지원기관들은 기업들이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거의 제공하지 못함

2) 보증의 종류

가)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보증하고 있음
- 보증기간: 계약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이행기

일까지

- 보증금액: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관계법령상 계약금액의 10~20%)

나) 공사이행보증

- 계약보증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금전보상의 성격이 우선되는 반면, 공사이행보증은 준공책임이 우선으로 되는 보증
- 조합원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 또는 일정금액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 보증금액: 계약금액의 40~50% (현재까지는 공공발주공사에만 한정됨)

다) 사업이행보증

- 조합원 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증함
- 보증기간: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 이행기일까지
- 보증금액: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라) 하자보수보증

- 조합의 건설공사사업이 준공된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하자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사용검사권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 하자보수는 그 책임기간이 장기이고 여러 변동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보증이 필요한 항목
- 보증기간: 공종별로 1~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됨. 통상 하자담보 책임기간(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행정관청의 사용검사를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으로 함
- 보증금액: 보통 계약 금액의 3%

마) 선금금보증

- 공사 계약 후 계약문서에 정해져 있는 선금관련 조건에 따라 선금금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채무를 보증함
- 보증금액: 조합원이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한 선금금액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 그 이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이자해당

액 또한 포함함)

3) 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제도

가) 보증 한도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는 출자좌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출자지분한도, 시공능력금액 및 기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기업능력한도, 신용운영자금 미이용시 추가되는 신용운영자금 이용한도로 이루어져 있음

나) 보증 수수료율

-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신청시 적용되는 보증수수료율은 기본수수료율에 조합원의 신용등급, 보증상품의 위험정도를 감안한 운용요율을 가감하여 산출함.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여러 가지 사업 중 보증수수료의 수익 비중이 가장 높음

<표 3.23>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제도 요약

출자지분한도	기업능력한도	신용운영자금미이용한도
출자지분액에 조합 신용등급에 기초한 신용배수와 출자 및 시공능력에 따른 규모등급별 한도배수를 곱하여 산출함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또는 조합산출금액 중 큰 금액)과 기업가치금액 중 큰 값에 신용배수를 곱하여 산출함	신용운영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출자지분액에 규모등급별 한도배수와 신용배수를 감안하여 산출함

§. 출처 : 건설보증시장 환경 및 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및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방안, 2008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율이 다른 업무의 수수료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수수료 수익이 총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용자업무나 자산관리 업무에 비하여 보증 업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총 수익에서 차지하는 보증수수료의 비중은 1998년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해, 2006년, 2007년에는 보증수수료 비중이 각각 34.4%, 37.8%로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함
- 이러한 높은 보증수익의 비율은 건설공제조합이 건설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면 보증업무를 통해 얻는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설립취지에 따라 건설보증기관의 역할을 전문화하고 있음
- 일반적 보증 수수료율:
[보증금액 * 보증기간 *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표 3.24>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종류 및 요율

보증종류		기본요율
1. 입찰보증		건당 0.02%
2. 계약보증	공공기관/단독공사	연 0.45%
	공공기관/공동도급공사	연 0.40%
	민간	연 0.85%
3. 공사이행보증	단독공사	연 0.70%
	공동도급공사	연 0.50%
	공동주택	연 0.80%

4. 손해배상보증		건당 0.24%
5. 하자보수보증	공동주택	연 0.75%
	공공기관/공동주택이외의 시설물	연 0.45%
	민간/공동주택이외의 시설물	연 0.55%
6. 선급금보증	공공기관	연 0.95%
	민간 공동주택	연 1.20% 연 1.20%
7. 유보기성금보증		연 0.19%
8. 사업이행보증	사회기반시설사업	연 0.50%
	기타사업	연 0.80%
9. 시공보증	단독공사	연 0.60%
	공동도급공사	연 0.40%
10. 인허가보증		연 0.45%
11. 자재구입보증		연 2.00%
12. 부지매입보증		연 1.20%
13.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연 0.45%
14. 대출보증	일반대출용	연 2.00%
	기금대출용	연 1.00%
15. 분양보증		연 1.00%
16. 리스보증		연 1.20%
17. 할부판매보증		연 1.20%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공기관/도급공사	연 0.80%
	민간/도급공사, 자체발주공사	연 1.00%
	공동주택	연 1.00%
19. 지급보증의 보증		연 1.20%

20. 협약체결보증		건당 0.02%
21. 협약이행보증		연 0.05%
22. 성능보증		연 0.45%
23. 부담금지급보증	지급성	연 1.00%
	이행성	연 0.70%
24. 채무이행지급보증		연 1.00%

§. 출처 : 건설공제조합

다. 해외건설 보증실적 및 지원계획

1) 지원실적

- 건설공제조합의 국내사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활발히 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에 대한 보증은 복보증 형식의 제한적이며 부수적인 해외보증에 그치고 있음
 - 해외보증은 1998년 이래 금융기관의 직간접 해외보증을 담보 또는 리스크분담 형식으로 지원하는 ‘지급보증의 보증’형태에 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 해외보증을 위한 사업근거확보를 중심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모두 사업근거 확보 및 검토 정도에 그치고 본격적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실제 추진된 대안책은 없는 상황
 - 보증실적은 2000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미미한 실적을 보였으며, 2007년 외환은행과 협약체결에 따라 일시 호조 후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다시 크게 감소
 - 반면, 2011년에 해외건설 지급보증에 대한 확대노력에 기반을 두어 해외수주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구체적인 보증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25> 건설공제조합 보증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0	3	6	1	1	21
금액	0	13,196	737	32	99	67,848

§. 출처 : 건설공제조합 내부자료

- 협약내용 및 실제 보증운용사례를 감안시, 수출입은행과는 재보증성격의 담보이며, 외환은행과는 리스크분담(공동보증)의 성격임
-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한 기존 지급보증의 운용결과는 전체 간접보증시장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지위가 열악하고, 조합의 주도력 및 협상력이 저하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표 3.26> 건설공제조합과 시중은행의 업무협약 내용

구분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비고
조합보증의 성격	재보증	공동보증(리스크분담)	
조합보증담보력 ⁷⁾	적격담보(100%인정)	특별담보(80%인정)	
보증료	각자결정	총보증료산정 후 분담	
보증비율	합의결정	협의결정	5-100%
주보증대상	30위권 이내 대기업	중견이상 조합원	
보증설계	수출입은행 주도	외환은행 주도	

§. 출처 : 건설공제조합 내부자료

7) 협약은행은 내부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 부분만을 처리하는바, 수출입은행은 조합보증 분을 정규담보로 전액인정하며 외환은행은 조합보증 분을 정규담보로 간주하지 않음 (금융권 여신한도에서 차감).

2) 지원계획

- 해외건설 보증지원에 대한 계획은 해외보증전담반설치, 국내외조
 합신용도확충, 해외보증을 위한 국내외 업무제휴 확대구축, 해외
 보증사업 조사능력 제고 및 현지지점설치, 보증상품 개발, 보증운
 영시스템 구축,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기적으로는 해외보증시장 진출 인프라 마련, 국내외 유관기
 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지원체계다변화, A등급 이상의 신
 용등급 확보 등의 방안을 추진 중임
 - 장기적으로 해외 현지 로컬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보증제
 공 확대 및 보증지원을 매개로한 금융자문 및 구조설계 서비스
 까지 계획 중임

<표 3.27> 건설공제조합 계획별 예산 추정안

추진사항		'12년 소요비용	'13년	비고
해외보증 전담반 설치(국내)				
국내외 조합신용도확충	국내신용도	4,000만원		예산반영됨
	국제신용도	7,000만원	7,000만원	예산반영됨
해외보증을 위한 국내외업무제휴 확대 구축	국토부	0원~5,000만원 현지 홍보활동비		국토부협의결과에 따라 변동
	해건협			
	상업은행			
	수출입은행			
	현지은행	5,000만원 협약추진비(회의 및 교통)		
	미국보증사	5,000만원 협약추진비(회의 및 교통비)		2,630만원 예산반영

해외보증사업 조사능력 제고 및 현지지점 설치	수주지원센터 참 여	1억원 기관부담금 및 현지체제비		
	현지지점개설		6억원(2개소)	
보증상품 개발				
보증운영시스템 구축				
리스크 관리방안		0원~3,000만원 재보험 설계비 (회의 및 교통비)		재보험사 선택결과에 따라 변동
계		3억 1천~ 3억 9천만원	6억7천만원	

§. 출처 : 건설공제조합 내부자료

라. 해외건설 지원관련 애로사항

1) 외국환 업무 취급 불가

- 건설공제조합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직접 취급이 불가하여 직보증을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관한 법을 개정한다고 가정 시 이에 따른 시간적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보증수요

- 보증관련 중건이하 기업의 수요는 수주액을 고려해 보았을 때 건설공제조합이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건설공제조합은 현재 소액의 보증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의 역할 전환이 쉽지 않을 것임

3) 출자부담

- 여러 건설사들이 직접 출자하여 운영하는 출자조합으로서 추가 출자를 통해 기능개선을 하는 것은 다수의 출자자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4) 신용등급

- 높은 신용도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건설금융 특유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음

3.3.5 전문건설공제조합

가. 개요

1) 기능 및 역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
 -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됨
-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건설관련 법인에 대한 출연, 조합원 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사업도 전개함

2)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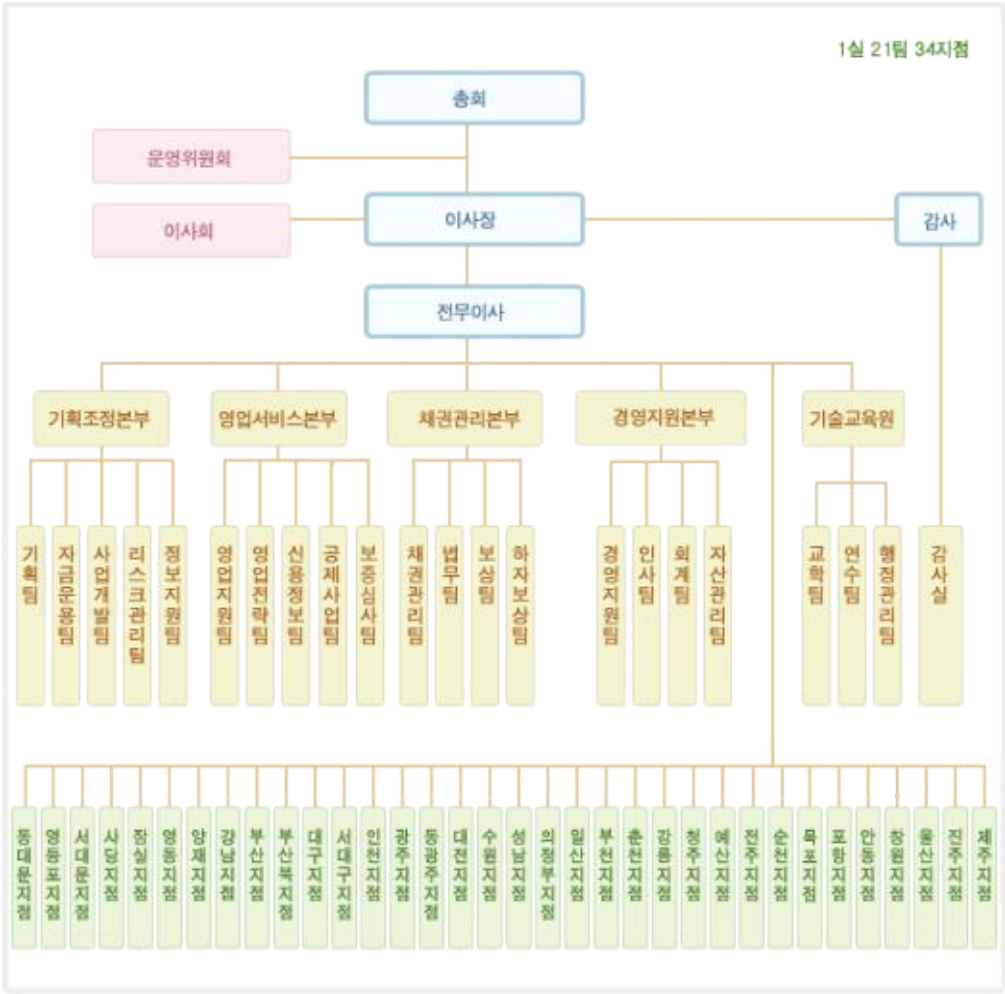
- 1997.03 부설 직업전문학교 (기술연구원) 개원
- 1996.1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대체
- 1988.03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립
- 1987.10 전문건설공제조합법 공포

3) 조직구조

- 해외건설 보증 관련 부서
 - 영업서비스본부 영업전략팀 (총 6명)
 - 해외건설 관련 보증/융자한도 책정 관한 업무, 신규업무개발,

국내외 건설보증기관 관리, G2B, 전자보증, 인터넷 보증/용자,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

<그림 3.33> 전문건설공제조합 조직도



§.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4) 자본금 및 조합원 수

가) 자본금: 3조8,340억 원 (2011.12 현재)

나) 조합원 수: 45,559개사 (2011.12 현재)

5) 주요사업

-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융자, 어음 할인, 건설업 관련 보험, 신용평가, 조합원 복지향상과 관련된 공제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건설기술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가) 보증업무

- 입찰, 계약, 공사이행, 차액, 손해배상, 하자보수, 선급금, 유보기성금, 리스 등

나) 융자업무

- 조합원의 출자금과 조합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의 원만한 시공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주요 건설자재의 비축, 노임지불 등 건설산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시공자금 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어음할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다) 근재업무

-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불의의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다음의 손해를 보상
- 손해보험사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보다 5%-10% 저렴

<표 3.28>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근재업무

근로자재해공제	손해배상금	상실수익금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보상
		향후치료비	치료 종결후 재해근로자의 추가적 요양이 인정된 경우 요양비 보상
	방어비용	위자료	재해근로자 본인 및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 보상
		소송비용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지급
		협력비용	피보험자가 조합과 피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지출한 제반비용 보상

§.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라) 신용평가업무

- 조합원 연대보증 없이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 자기 신용에 의하여 조합과의 보증/용자업무거래를 하는 제도로써 신용사회 정착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시 가점 혜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상위 등급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공사발주기관의 입찰 참가자격 심사시 조합의 신용평가결과 중시 추세

마) 기타

- 임대사업, 교육사업, 건설업양도에 따른 의견서 발급 등

나. 보증업무

1) 보증현황

-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해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함
- 보증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2) 보증의 종류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취급하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표 3.29>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입찰보증	입찰보증
일반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급보증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인허가 보증,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3) 보증의 조건

가) 보증한도

○ 보증한도 책정

- 보증실적등급 (최근 3년간 조합이용 보증 실적을 기반, 총 11등급)
- 시공능력등급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반, 총 5등급)
- 신용등급 (자체신용평가규정, 총 9등급)

- 보증등급별 보증한도는 신용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일정배수를 차감하기 때문에 신용운영자금 미이용시 보증한도는 더 증가될 수 있음

나) 보증수수료율

- 조합원의 보증신청시 적용되는 보증수수료율은 보증상품, 원·하도급 및 건설업종류의 위험정도를 감안한 요율체계이며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요율이 차등적용됨

<표 3.30> 보증수수료 요율표

보증종류	도급구분	건설업종류	요율(%)
입찰보증	전체	전체	건당 0.013
계약보증	원도급	토공, 철콘 등	0.540
	하도급	토공, 철콘 등	1.382
공사이행보증	공동	전체	0.567
	단독	전체	0.807
하자보증	원도급	토공, 금속창호 등	0.233
	하도급	토공, 철콘 등	0.315
선급금보증	원도급	토공, 금속창호 등	2.006
	하도급	토공, 철콘 등	2.174
인허가보증	전체	전체	0.547
유보기성금보증	전체	전체	0.39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전체	전체	0.794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전체	전체	0.785
지급보증의 보증	전체	전체	1.177
손해배상보증	전체	전체	1.472
차액보증	전체	전체	1.472
대출보증	전체	전체	1.472
리스보증	전체	전체	1.472
자재구입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전체	전체	2.999

§.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다. 해외건설 보증실적 및 지원계획

1) 지원실적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근 5년간 3,730억 원 규모의 해외건설보증을 취급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보증 실적은 모두 국내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은 하도급 공사의 보증실적

<표 3.31> 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보증 실적

(단위: 백만원)

종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입찰보증	12	2,835	6,333	555	1,953
계약보증	1,853	16,202	64,289	44,638	36,234
하자보증	484	2,599	3,463	10,482	8,616
선급금보증 등	2,513	23,549	61,996	54,697	29,724
합계	4,862	45,185	136,081	110,372	76,527

§.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2) 지원계획

○ 지급보증의 보증 활성화 계획

- 조합원의 해외보증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내시중은행에 대한 복보증으로 해외 원도급공사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중

- 2012년 1월, 하나은행과 에스프로 신탁 협약, 이후 2월에 우리은행과 선급금공동관리시스템 업무 협약을 맺으며 향후 해외지급보증업무 등 전문건설공제조합과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협의함

라. 해외건설 지원관련 애로사항

1) 외국환 업무 취급 규제

- 해외 발주처 등에서 현지은행이나 세계 20대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신용도가 낮은 국내 중소건설사로선 발급을 위한 국내 금융기관의 복보증도 어려운 실정
- 외국환거래법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해외에서 직접보증을 취급할 수 없음
- 해외보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해외 발주처나 현지은행을 상대로 해외건설보증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관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이에 따른 시간적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출자 문제

- 건설업체들이 직접 출자하여 운영하는 조합으로서 추가출자를 통해 개선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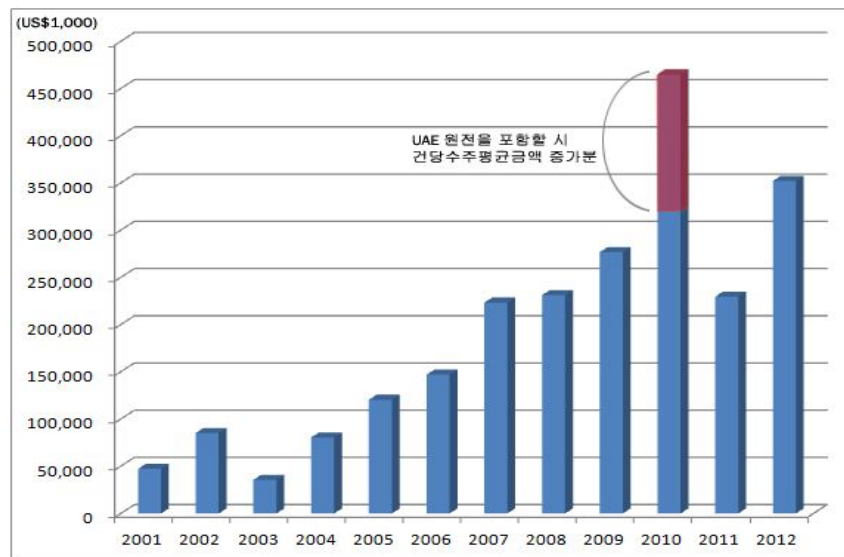
제4장 해외건설 금융지원 확대방안

4.1 해외건설 금융의 중요성 및 제약

가. 해외건설 금융의 중요성 확대

- 해외건설 사업영역이 기존의 도급사업 위주에서 점차 대형화되며 자금조달이 필요한 개발형사업 위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금융조달능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 또한,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난 12년간 우리 해외건설업체 상위 10개사의 해당년 건당수주 계약액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1> 2001-2012 해외건설 수주건당 평균 계약액



§. 출처 : 해외건설협회

-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계약 평균액이 건당 1억 달러 이하였었는데, 최근엔 3억 달러 수준까지 프로젝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UAE 원전 186억 달러 수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액이 커졌으나,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평균 계약액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 국내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가운데 금융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건설사 대상 해외건설 수주시 금융의 영향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5.3%가 해외건설 수주시 금융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금융으로 인해 일정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43.3%에 달함
 - 또한 향후에도 금융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 보는 응답이 대기업 전체, 중견기업이 90%, 중소기업이 96.8%로 대부분이 해외건설 수주시 금융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대기업과 중견 및 중소기업은 다른 형태의 금융을 필요로 하며 금융지원의 필요성도 대기업과 중견 및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도급공사의 수주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공사계약 및 이행과 관련한 보증의 지원이 절실한 반면, 대기업의 경우 향후 성장 및 시장개척의 바탕이 되는 투자 개발형사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과 같은 자금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공사관련 보증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보다 기업단위의 평가가 수행되므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원활한 보증 지원을 받는 반면,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효과적인 보증 지원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각 국가 및 지역별 특화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주한 중견기업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하여 보증을 지원받지 못하여 현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함

○ 금융기관의 경우 주어진 환경 하에서 해외건설보증 및 기타 금융 관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요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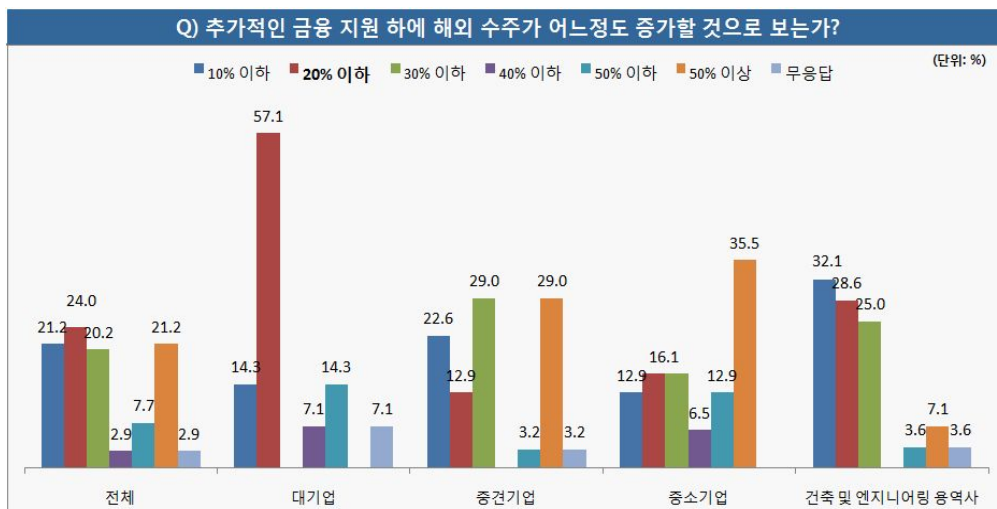
-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 건설을 위한 보증 및 금융지원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사들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건설금융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조달 및 운영을 원활히 하는 것을 의미⁸⁾하며, 실질적으로 해외공사 각 이행단계에서 보다 확대된 금융지원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많은 건설사들이 금융지원여건이 개선될 경우 향후 해외진출 및 그와 관련한 해외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8) 건설산업에서의 금융기능 강화방안 연구, 김명수·권혁진, 국토연구원, 2002

- 추가적인 금융지원 후 해외수주 증가전망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4%가 10~20%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금융지원에 대한 강한 니즈를 보임
- 금융기관의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금융지원개선에 대한 요구는 절실하며, 중견이하 기업의 경우 공사관련 보증제도를 포함한 장기적인 해외건설 금융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림 4.2> 금융지원 하의 해외수주 증가 전망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나. 기관별 해외건설 금융 제약

- 상기와 같은 금융제약에 대해 건설금융의 각 주체들인 정부와 건

설업체, 금융기관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부 상반된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음

1) 수요자(건설기업) 측면

○ 건설산업에 대한 오래된 불신으로 금융지원이 미비함

- 건설업체들은 경기에 민감하며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환위기 및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 이에 더해 일부 우량 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건설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사업위험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자금 조달(보증서 발급 포함)이 어려운 실정임⁹⁾

○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강화로 인해 신용등급에 따른 기업간 지원 차이가 발생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감독 강화로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를 강화하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타 산업에 비해 여의치 않음¹⁰⁾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우량 대기업은 직접금융이나 간접금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9) 직접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주식, 회사채 발행. 간접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공제조합과 은행 등을 들 수 있음

10) 건설산업에서의 금융기능 강화방안 연구, 김명수·권혁진, 국토연구원, 2002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업 규모와 신용도에 따른 건설기업 자금조달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 금융제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건설업체는 건설투자와 지출을 감소시키게 되며, 건설투자 감소는 결국 산업의 침체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됨
- 궁극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에 따른 건설산업 내 건설업체 자금조달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

2) 공급자(금융기관) 측면

○ 금융기관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음

-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은 줄이고 안정자산은 늘림으로써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측면이 있음
- 최근 금융기관에서 불건전 여신범위의 확대, 자산건전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설정, BIS 비율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격 차입자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에 대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¹¹⁾
- 과거 IMF 구제금융 시절 현대, 대우, 극동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의 부실은 금융업계 전반에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화시켜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 제공 기피요인으로 작용하

11) 건설산업에서의 금융기능 강화방안 연구, 김명수·권혁진, 국토연구원, 2002

여 건설업체의 금융제약을 유발하였음

- 국내건설의 경우 해외건설에 비해 공사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적어 금융사의 보증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상황임. <그림 4.3>은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샘플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공정진행현황, 공기, 공사관계자 현황 등을 보고하고 문제상황 발생시 건설공제조합의 요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할 것 등을 기재함으로써 위험도를 최소화하고자 함
- 반면, 해외건설은 공사규모가 크고 보증서 발급에 있어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각종 조건이 단서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는 보증발급단계에서 대출과 다른없는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담보를 요구함. <그림 4.4>, <그림 4.5>는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의 해외건설 이행보증 샘플로 국내건설보증과 달리 Unconditional payment 조건임을 알 수 있음

<그림 4.3> 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별지서식 보 제20호(제51조 관련)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 보증채권자 :
- 계 약 기 간 :

귀 조합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이행보증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아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귀 조합이 당사에 대하여 업무거래정지 등의 각종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당사는 공사 착공후 10일 이내에 공사공정예정표와 현장대리인(현장소장)·감리자·감독자 등 공사관계자 현황을, 도급계약체결후 상당기간 공사 미착공·중지·주요공법의 변경등 주채무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사본을,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하수급인으로부터 각종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귀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 또는 신고하겠습니다.
2. 귀 조합은 당해 공사의 공정진도율이 부진한 경우 선금사용내역, 하도급대금지급현황, 자재조달 및 사용내역등을 서면 또는 방문조사하여 지연공기만회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제출한 지연공기만회계획서에 따라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의 직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응하겠습니다.
3. 귀 조합이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당사는 주계약공사의 설계도서등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자료, 당해 공사현장 및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에 준비하고 있는 물건 등을 정리하여 이를 귀 조합 또는 귀 조합이 지정하는 보증이행업체에 인도물 명세와 함께 지체 없이 인도하여 귀조합의 보증채무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당사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이나 자재구입·고용·그 밖의 모든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귀 조합 및 보증이행업체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귀 조합이 보증시공을 위한 공사현장의 출입과 조사, 공사현장의 보존·관리, 공사현장 또는 그 밖의 소재지에 당해 공사용자재 및 기기의 점유 및 구상권 보전조치등 그 밖에 필요사항을 요구할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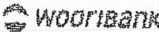
인감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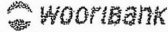


<그림 4.4>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증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8px;"> KOREA REVENUE STAMP K. W200 Jeong Ro Tax Office No. 2003-01 </div>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small>136-74, Yeonji-Dong, Jongsro-Gu, Seoul, Korea C.P.O. Box 1553</small> PERFORMANCE BOND	
Bond No. 100-000-0000 0000 0000	Bond Amount _____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at we, _____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8px;">(hereinafter called the "Principal"),</div> as Principal, and the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 of the city of Seoul, Korea,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Korea, (hereinafter called the "Surety"), as Surety, are held and firmly bound unto _____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8px;">(hereinafter called the "Obligee"),</div> in the sum of _____ for the payment of which sum well and truly to be made, we, the said Principal and the said Surety, bind ourselves, our heirs, executors, administrators, successors and assigns, jointly and severally, firmly by these presents.		
THE CONDITION OF THIS OBLIGATION IS SUCH, that whereas the Principal entered into a certain Contract with the Obligee, dated _____, for _____,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aid Contract, which is hereby referred to and made a part hereof as if fully set forth herein;		
NOW, THEREFORE, THE CONDITION OF THIS OBLIGATION IS SUCH, that if the above bounden principal shall well and truly keep, do and perform each and every, all and singular, the matters and things in said Contract set forth and specified to be by said Principal kept, done and performed, at the times and in the manner in said Contract specified, or shall pay over, make good and reimburse to the above named Obligee, all loss and damage which said Obligee, may sustain by reason of failure or default on the part of said Principal to do so, then this obligation shall be null and void; otherwise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Sealed with our seals and dated this _____ day of _____, A.D. _____ This bond shall be effective from _____ and will expire on _____		
_____ Principal By _____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Byungki Kim President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By _____ Branch Manager </div>	
(This Bond is null and void if not countersigned by Branch Manager)		

<그림 4.5> 우리은행이행지급보증서

 1585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SWIFT : HVBKRRSE	
PAGE 01	
LETTER OF GUARANTEE NO.	
DATE :	
WE HEREBY ESTABLISH OUR IRREVOCABLE LETTER OF GUARANTEE NO. AS FOLLOWS :	
APPLICANT	:
BENEFICIARY	:
AMOUNT	: USD
EXPIRY DATE	: SEPTEMBER 30, 20 IN KOREA
APPLICABLE RULES	: URDG
DETAILS OF GUARANTEE	
Performance Security	
Beneficiary:	
Date: April 19, 2012	
PERFORMANCE SECURITY No.	
We have been informed that Construction Company Ltd. (hereinafter "the Supplier") has entered into Contract Agreement with (hereinafter "the Employer").	
for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of road. (hereinafter "the Contract")	
AND WHEREAS it has been stipulated by you in the aforementioned Contract that the Supplier shall furnish you with a security issued by Woori Bank for the sum specified therein as security for compliance with the Supplier's performance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1585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SWIFT : HVBKCRSE

PAGE 02

AND WHEREAS the undersigned Woori Bank [] Branch, legally domiciled in [], Seoul, Korea (hereinafter "the Guarantor"), have agreed to give the Supplier a security:

THEREFORE WE hereby affirmed that we are Guarantors and responsible to you, on behalf of the Supplier, up to a total of USD9,229.00 (say U.S. Dollars Nine Thousand Two Hundred Twenty Nine Only) and we undertake to pay you, upon your first written demand declaring the Supplier to be in default under the Contract, without cavil or agreement, any sum or sums within the limits of as aforesaid, without your needing to prove or to show grounds or reasons for your demand or the sum specified therein.

This security shall expire no later than twenty-eight (28)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aking-Over Certificate, calculated based on a copy of such Certificate which shall be provided to us, or on the 30th day of September, 2014, whichever occurs first. Consequently, any demand for payment under this security must be received by us at this office on or before that date.

This security is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758.

YOURS FAITHFULLY,

FOR AND ON BEHALF OF WOORI BANK

BY

AUTHORIZED SIGNATURE

NAME : (

TITLE :

BRANCH:

○ 시공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아닌 기업규모와 도급규모 등 외형 위주의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건설업체와 일반 기업들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비교를 진행한 보고서¹²⁾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의 기업어음투자등급(A3이상) 비율은 2000년 전체 기업이 62.1%인 반면에 건설기업은 50%에 불과했으며, 2001년에도 전체 기업은 68.0%, 건설기업은 51.4%에 불과한 실정이었음
- 보증 심사시 담보능력 이외의 주요 평가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도급순위이며,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수주에 급급한 나머지 저가로 공사를 수주할 수밖에 없고, 저가수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유동성 감소 및 단기지급능력 저하 등의 금융제약 위험에 처함

○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용리스크를 헷지(hedge)하려는 대안으로 보증 및 대출에 있어 높은 담보와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

- 아직까지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 및 대출에 대해 여전히 높은 담보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건설업체 전반의 자금조달 애로점은 지속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행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¹³⁾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행태가 관계지향적 대출(relationship banking)에서 단기 또는 일회성 거래에 치중하는 거래지향적 대출(transaction banking)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12)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및 이용실태 분석, 이의섭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13) 외환위기 이후 은행·기업관계의 변화,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현창, 20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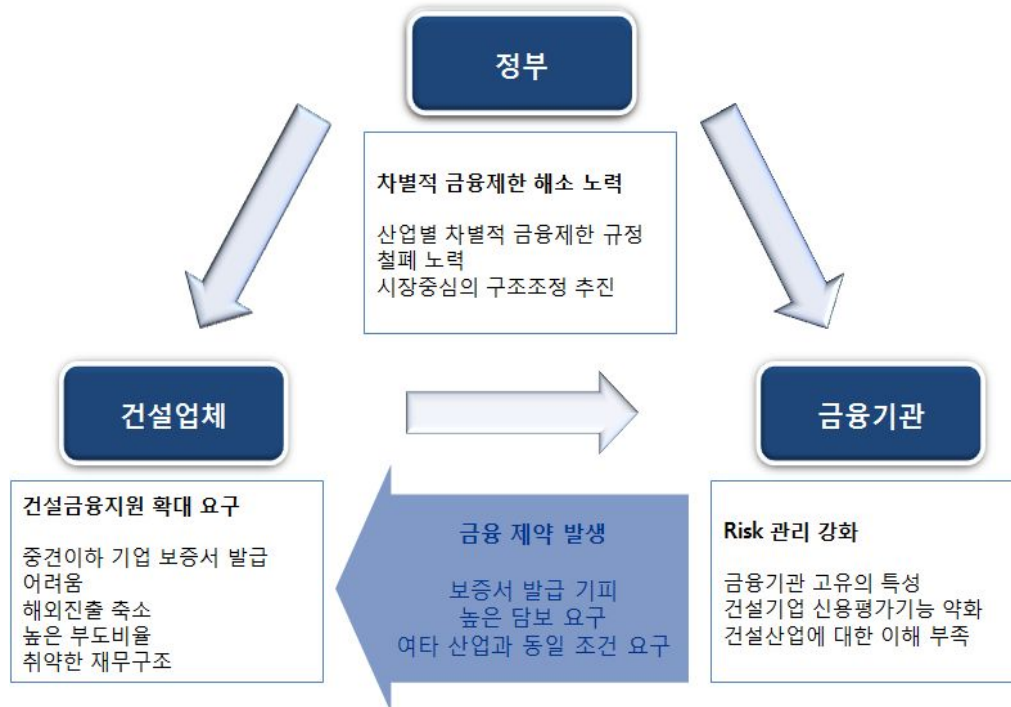
○ 조만간 도입될 예정인 바젤 III로 인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금융기관의 장기대출 축소정책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대출(특히 PF 등)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출채권도 ABS 등을 통해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ECA에 대한 의존 성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3) 정부기관 측면

- 1990년대 초까지 정부의 제조업 중시정책에 따른 건설업과 제조업의 차별로 건설업체들은 금리와 대출심사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1997년 이후 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금융 차별규정을 폐지하고, 시장 중심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과 수익성 높은 자산 금융 제도의 도입과 같은 개혁을 유도해 옴
- 현재 정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처리되거나 일부 정책선에서만 언급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황임

<그림 4.6> 정부, 금융기관, 건설업체 측면 금융제약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다. 결론

- 금융기관과 건설사 대상 설문 및 인터뷰로 파악한 바로는,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최근의 폭증하는 해외건설 지원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보증지원 확대와 해외프로젝트금융에 뛰어 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하지만 선진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비해 자금조달능력이나 조달조건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해 공격적인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함. 특히 앞에서 언급한대로 해외보증이 국내보증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대한 내부신용등급 부여에 있어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므로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확대가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체 건설업체들이 골고루 그 과실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선 각종 지원책 중에서도 우선 중견이하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즉, 신용으로 보증서 발급을 받는 대안마련이 가장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4.2 기존 기구를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

4.2.1 기존 기구 활용방안

가.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해외건설 보증강화

1) 기존 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 검토

- 현재 국내 보증기관의 전체 보증업무 대비 중소기업의 보증비율 확대 노력이 필요
 - 기존 해외건설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보증기관으

로 하여금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해외공사보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해 소극적이던 보증 실태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서울보증보험과 건설(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심화된 사업성 분석에 근거한 신용취급 확대를 강구해야 함
- 전문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제공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함
- 해외보증에 대한 조직 내 별도의 보증한도를 신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직보증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외국환업무 취급을 확대해야 함. 건설공제조합 인터뷰 결과 해외건설보증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자격부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음
- 이외에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재보험 시장 발굴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함
- 결론적으로 현재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소극적인 현재의 보증기관들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주고 사업성평가에 기초한 신용보증을 강화하도록 체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보증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나. 국내은행(수출입은행 포함)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1) 국내은행의 지원확대 방안

○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해 소극적이던 보증 실태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국내은행 내규상에 중견 및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요건을 완화하도록 지도하여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율을 높이도록 함
- 또한 해외건설보증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의 제공 또는 지원한도 증액 등의 지원방안을 통하여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간접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함
- 자체적으로 세밀한 신용평가와 보증대상 공사에 대한 외부적인 타당성검토의 수행을 통하여 보증요건 완화로 인한 보증위험을 축소하도록 함
- 일정한 내부 신용평가모델에 근거한 신용취급시 추후 부실에 대한 담당자 면책조항을 신설함
- 각 기관별 내부 신용평가의 Scoring System을 개선하여 매출액에서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혹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높은 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이외에 조직 내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최소 근무연한을 최대한(5년 이상) 확대하는 등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해외건설 분야 내부 인력양성에 진력해야 할 것임

4.2.2 기존기구 활용방안의 한계

가. 내재적 유인책의 부족

○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의지 부족

- 금융기관의 지원여력대비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요청하는 보증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의 의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동인(動因)을 찾기 어렵기 때문임
- 금융기관은 건설산업에 대한 일부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며 부실기업 지원에 있어서 리스크 부담요소가 적극적인 지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재적 유인이 부족한 정책적 지원은 항구적 유지가 어려움

- 보증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는 1차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 그 공급과 수요가 결정되는 상품임
- 이러한 시장 논리에 따라 현재 은행 및 보증기관들도 수익성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대기업위주로 보증을 우선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중견 및 중소기업을 위하여 사업성분석을 강화하고 사업위주의 심사를 늘려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 리스크가 높은 보증업무를 제공해야 하므로 그 한계가 발생함

나. 조직 및 인력운영

- 기존 기구 조직확대의 우선적인 목적이 중견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보다는 대기업 고객유치 수단일 가능성이 높음
 -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은 현재 그리고 향후에 해외 건설보증의 강화를 위한 해외 조직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해외조직의 강화가 현 당면 과제인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해외 조직을 통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혹은 우량 중견기업을 신규 고객으로 유인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조직 및 인력 운영 확대 범위의 한계가 발생
 - 가장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양대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K-sure의 경우 특별히 해외건설분야 금융지원을 위한 적절한 인력운용 및 조직구성에 한계가 있음
 - 중견 및 중소기업의 소규모 대출 및 보증 확대를 위한 심사평가와 지원은 현재의 조직이나 운영인력으로 제공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립목적이 분명한 기존 조직 내에서 별도의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이 부족함
- 사업성 평가 및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

- 사업성에 기초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에 대한 위험의 명확한 측정과 판단이 필요하며, 해외사업의 경우 특히 투자국 현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측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확보가 필수적임
- 기존기구의 경우 대부분 순환근무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한 전담인력을 육성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 목적적합성과 지속가능성 결여

- 기관별 고유의 설립 목적과 업무 서비스가 상이한 가운데, 중견 이하 기업의 지원이 중점적으로 제공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해외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은 고유의 설립 목적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음.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은행과 기타 보증보험기구들은 해외건설관련 보증은 각 기관의 여러 사업 업무 중 일부분에 해당함.
 - 해외건설관련 금융지원의 중요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계속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정책적인 이슈나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실행될 가능성이 모호함
 - 현재 지원계획도 각 금융기관들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거나 긴급성이 커질 경우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

할 가능성이 발생함

- 예를 들어, 선박금융이나 수출보험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계획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음

라. 효율성의 저하

- 기존의 각 기관들을 통한 지원을 강화시킨다 하여도 혜택을 볼 수 없는 특정기업이 존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여 투입노력 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음

- 현재 해외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해외현지 발주처에 대한 직보증을 증대하여 국내 건설사가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를 최대한 절감시키고 해외사업전반에 걸친 보증업무를 다변화할 수 있음
-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내부인력, 투입노력 대비 실익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보증 영역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임
- 기존의 각 기관들을 통한 지원책 강화의 경우,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건설사별로 지원이 이뤄져야 그 지원의 실효성이 달성될 수 있음. 그러나 세부적인 조정역할을 담당할 기구가 없으므로 혜택을 볼 수 없는 특정기업이 존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마. 결론

- 기존의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

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시행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다양한 한계가 발생함

- 각 기관들의 설립목적에 따른 실행의 한계 및 적극적으로 장기 간 계획을 실행할 내재적 요인 부족, 현재의 조직 및 인력운영 정책의 변경 없이는 전문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결론적으로 민간금융기관(ECA 포함)은 정책당국에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중견이하 기업의 금융문제 해결을 강요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현재까지 제기된 해외건설관련 금융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목적을 해외건설지원에 특화하여 지원할 목적을 지닌 별도의 전문 금융기관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4.3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을 통한 지원

4.3.1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역할과 기대효과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기대되는 역할 및 효과로는 해외보증시장의 개척 및 국부유출의 방지, 전문성이 강화된 전담인력 확보,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확대, 업무 효율성 증대, 중소 건설기업의 혜택 증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기업 해외수주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가. 해외보증시장 추가 개척 및 국부 유출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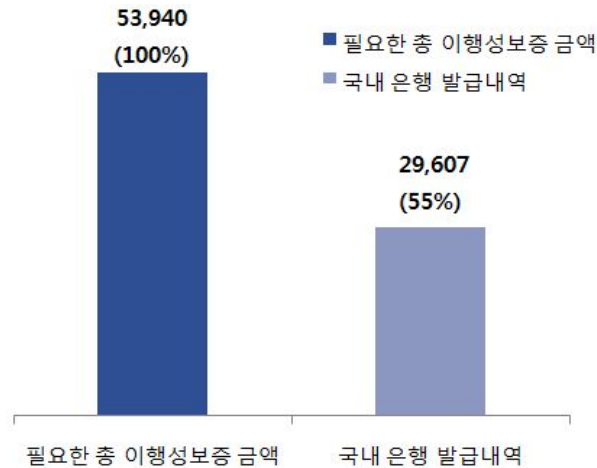
○ 현재 국내 건설사들이 필요로 하는 총 이행성보증 규모 대비 국내 금융기관의 이행성보증 지원 규모는 현저히 부족함

- 금융기관의 이행성보증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원기관의 보증서 발급액이 현재 국내 건설사들이 필요로 하는 이행성보증 총액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09-2011년 국내 건설사들이 필요로 하는 이행성보증 금액은 539억4,000만 달러로 추정된 반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이 중 296억700만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서만을 발급함
- 국내 건설사들이 필요로 하는 이행성보증 금액은 2009-2011년 총 3년간 해외건설 수주실적 1,798억 달러에 이행성보증서 발급시 각 Bond별 비율 총합인 30%를 적용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대략 539억4,000만 달러임¹⁴⁾
- 국내 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는 전체 필요금액 가운데 55%에 달하며, 나머지 45% 부분은 현지 발주처 지정 로컬은행이나 외국계은행을 통한 실적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상당비율을 국내 금융기관들이 지원할 수 있다면 국내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수수료의 상당액이 국내 수익으로 남아 결과적으로 외화가득률을 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임

14) 해외건설수주 실적: 2009년 491억 달러, 2010년 716억 달러, 2011년 591억 달러 총 3년간 1,798억 달러

- 이행성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각 본드별 비율: Bid-2%/5개월, P-Bond/10%/3년, AP-Bond/10%/2년, W-Bond/8%/1년으로 총 30%. 1,798억 달러 × 30% = 539억4,000만 달러

<그림 4.7> 2009~2011년 총 필요 보증액 대비 국내 지원 비중



§. 출처 : 금융기관, 해외건설협회, 삼성케이피엠지컨설팅(주)

- 물론 보증 발급시 현지로컬은행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로 해외발주국가의 입찰요건으로 인한 강제적인 제약도 있음
 - 일부 해외 발주국가들은 거액의 보증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 등급 및 대외인지도를 가진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미흡한 경우가 많음
 - 많은 발주처들이 자국의 로컬은행을 지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외 IR활동 등을 통한 대외인지도 확대 및 신용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외에 해외 현지로컬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보증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단점이 있음

- 대기업들은 처음부터 국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은행을 우선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 유럽 및 일본계 은행들은 국내 은행들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금리로 달러 조달이 가능하므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금리 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 한편 일본과 유럽계은행들은 자국기업들을 우선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기업의 해외 수주에 매우 경쟁력있는 금리로 지원하고 있음
- 건설사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복보증 혹은 복복보증 형태로 발급받는 것보다 현지 지정 로컬은행을 직접 통할 경우 수수료 절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는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대체역할이 아니라 보완역할로써 해외로 유출되는 니치마켓을 개척하여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할 것임

- 해외보증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를 높이고 수수료율을 적정한 선으로 맞출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는 일부 현지국 제한 이슈를 제외한 부분에서 현지국 로컬은행 등으로 유출되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외 IR활동 강화를 통한 대외인지도 확대, 신용도 증대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임
- 결국 기존의 국내 금융시장 특히 보증시장을 잠식하지 않고 중견 이하 기업의 보증지원을 해 준다면 장기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임

나. 전문성 강화된 전담인력 확보

○ 현재 해외건설산업과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이 부족함

- 해외건설에서는 프로젝트 수주도 중요하나 수주 이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완수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및 적시 공급이 필수임.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보유 정도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함
- 국내 금융기관은 보증 발급시 건설프로젝트의 유형(관공사, 도급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 자체분양공사, 해외공사 등)별로 심도있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시행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전문성 있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 계약, 입찰, 금융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군에 순환보직을 적용하거나, 국내 건설과 해외건설 인력을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는 측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를 통해 해외건설, 보증에 전문 지식과 지속적인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 충원되고 관리되어 해외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는 건설산업과 해외건설 진출, 보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해외건설 진출시 필요한 금융 지원 특히 보증서 발급 및 사업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건설사와 일부 금융기관은 해외건설전담기구 설립으

로 인해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나 보증서 발급, 외환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인해 해외건설보증 발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외에 건설금융 전담 인력들이 단기적 관점의 순환 근무가 아니라 해외건설산업과 보증 부문은 장기 근속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및 보증 확대, 해외건설 수주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 체계화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시스템 확대

- 현재 금융기관과 건설사 간에는 사업성, 미래성장 가능성 등의 비재무적 요인과 기업 신용도, 매출 등의 재무적 요인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건설산업이 당장 실현가능한 수익보다는 미래 획득 가능한 수익성이 담보물이라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물리적, 법적, 경제적 측면의 사전 타당성 검토는 필수 절차임
 -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건설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평가를 위해 업체 규모별 평가기준의 차등적용, 진행공사의 위험성 분석, 자산구조의 분석, 기술 및 시공능력 평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신규 수주능력 평가 등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
 - 건설기업은 보증서 발급시 프로젝트 사업성, 향후 미래 성장가능성, 기술력, 경영자 자질 등의 비재무적 요인의 평가를 통한 지원을 희망하나 실질적으로는 신용 위주의 재무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융 및 보증 기관들은 당해업체의 규모(재벌 계열회사 여부), 성장성, 재무구조 및 담보 가치 등의 재무적 요인만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 보증료 결정 과정에서도 공사종류나 사업기간 등의 사업성 요인에 대한 효율 차별보다는 건설사 신용 등의 차주요인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효율을 차등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내 산업적 특성이 감안된 신용평가 모형이 미흡함

- 신용평가는 원래 국가, 은행, 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으로 투자자, 채권발행자, 금융감독당국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은행연합회의 ‘중소기업 신용평점표’를 바탕으로 각 시중은행들이 ‘기업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평가하고 있음
- 은행연합회의 현행 중소기업신용평점표와 시중은행의 기업신용평가표는 재무항목을 중심으로 비재무항목을 고려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¹⁵⁾
- 금융기관 인터뷰에 따르면 건설업종은 기본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신용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는 데, 신용평가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이 아닌 현재의 경영상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신용평가 과정에서도 일반건설, 전문건설, 주택건설 등 건설산업 자체의 특성과 분야별 개별성의 고려가 미흡했음

15) 건설기업의 금융적 가치 조성방안, 박동규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00

- 설사 분야별로 분류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분야별 개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 평가기준이 상이함으로써 신용평가 결과가 획일적으로 이뤄지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일정한 자체신용평가 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틀 안에서 규모별·산업별로 부분적인 변형을 통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동일한 건설업체에 대해 공제조합, 은행, 전문 신용평가 기관별로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신용등급 부여가 필요함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는 전담인력을 통해 건설기업의 비재무적 요인과 재무적 요인의 영향 변수들을 올바르게 식별하고 적절하게 반영하며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건설사나 기존 금융기관의 사업성, 신용평가 모델의 공정하고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전문기관이 대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중견건설사 관계자들은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있다면 수주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함.
 - 금융지원기관도 전담기구가 있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사업성평가가 진행되어 보증을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함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를 통해 보증 지원 확대 및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 및 투자사업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것임

- 보다 확실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가 정착되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와 프로젝트만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불가피함
- 이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과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건설산업 전체가 내실있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임
- 향후 건설산업에 대한 현행 신용평가와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가 가능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를 통해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보증이 확대되고 이는 다시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 및 투자사업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것임

라. 업무 효율성 증대

○ 통상적으로 보증서 발급 진행 과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해외건설 입찰 참여시점에 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 조사에 따르면, 실제 낙찰결과가 발표된 후 보증서 발급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되나 본 기간은 실제 다단계 복보증을 진행하는데 짧은 기간으로 실상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 시점에 보증을 병행하며 준비하고 있음
- 실제보증발급 진행과정에서 요구 문안이나 조건 등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부보은행-현지발급은행-발주처 등의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사들은 이를 조정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보증발급기간 최대 4주가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남

○ 보증 지원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는 발급 절차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는 보증 발급 절차상의 불필요한 절차 해소 및 보증서 발급상의 요구 문안이나 조건 등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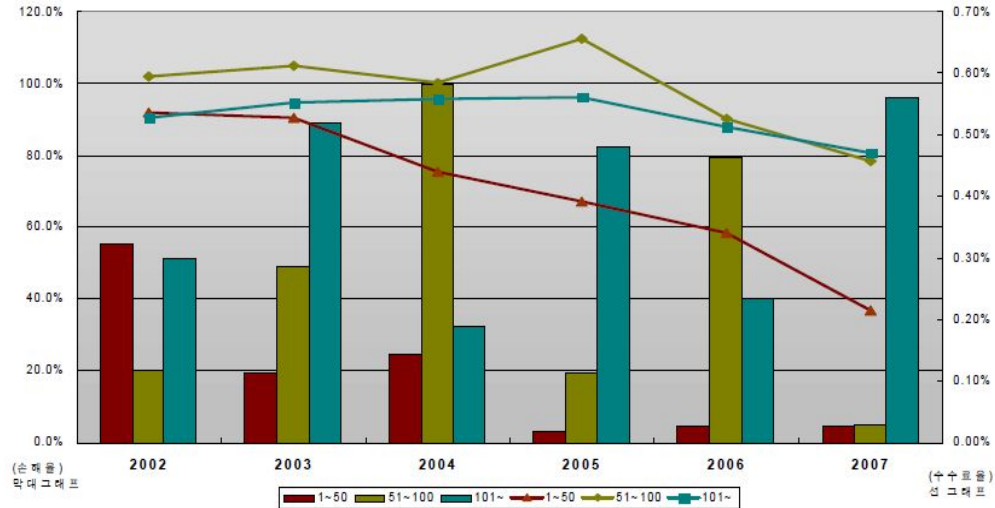
마. 중소 건설기업의 혜택 증대

○ 현 국내 건설보증 시장은 다수의 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 지나 중견이하 건설기업에 대한 혜택은 크게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부 기관 조사¹⁶⁾에 따르면 공제조합 설립 이후의 보증수수료율은 시공능력 평가 50위 이내의 대형 종합건설기업은 35% 정도 하락하였으나, 중소 건설기업은 수수료율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기관 지원 하에서도 대형 건설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보증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어 중소건설기업 영업환경은 악화되는 등 양극화는 보다 심화되고 있음

16)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11

<그림 4.8> 규모별 손해율 및 수수료율 현황



§. 출처 :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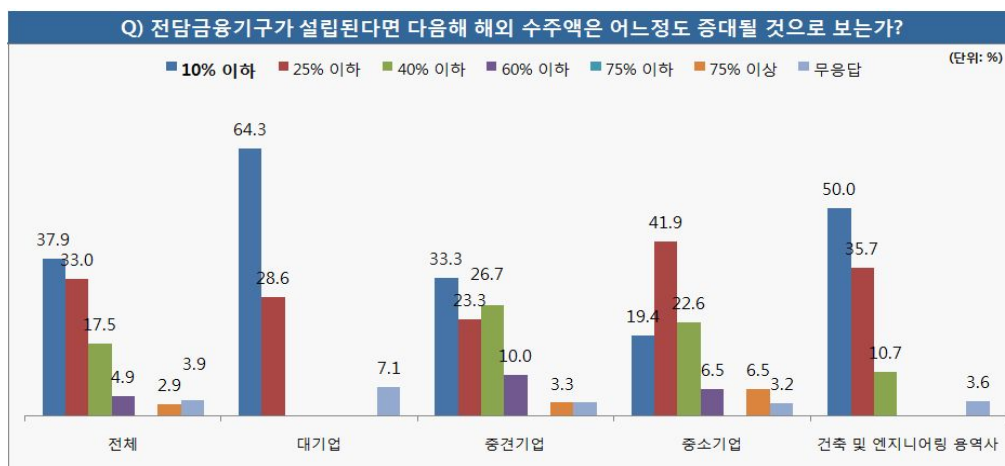
- 현 지원기구 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임
- 중견기업 대상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를 통해 중견이하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보증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제한적인 지원 부분을 해소하여 현재의 건설보증시장 경쟁 구도에서 보다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유동성 확보에 따른 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바. 결론

○ 해외보증시장 개척 확대 및 전문인력 확보,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확대 및 중소건설사 금융혜택을 확대하는 전담기구가 설립된다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는 증대되어 매출은 기존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중견 이하 기업일수록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지원 미비 및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으로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보증서 발급 지원이 확대되면 수주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전담금융기구 설립을 통한 해외수주 증가에 대한 설문에 대기업의 경우 한자리수로 증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4.3%에 이른 반면, 중견기업은 10% 이하 응답이 33.3% 정도이며, 40%이하 증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26.7%, 75% 이상 증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3.3%에 달하는 등의 보다 활발한 추가 수주액 증대효과를 기대함

<그림 4.9>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를 통한 해외수주액 증대효과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삼성케이피엠지컨설팅(주)

- 건설사의 경우, 중견이하 기업일수록 해외건설 금융 전담기구 설립시 보증 기회가 확대되며 해외 수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
- 결론적으로 해외건설 금융지원기구가 설립된다면 건설사 측면에서는 해외건설 수주 확대와 시장경쟁체제 하에서 보다 개선된 금융지원서비스, 금융지원기관 측면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지원과 리스크 헷지 측면 등에서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 봄

4.3.2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요건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설립에 대한 요구 및 기대효과 그리고 설립과 관련한 선결조건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설립요건에 대해 제시코자 함

- 해외건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금융기관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함
- 통상적으로 해외건설 금융지원은 국내와 다른 문화와 특성을 보유한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위험을 충분히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
- 특히 해외건설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고 있어, 다른 종류의 계약에 비해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¹⁷⁾ 지원 금융기관에서는 보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은

17) 건설보증의 종류와 법률관계, 전현철, 법학총론 제22집, 2009년 8월, 213~249 숭실대학교 법학

물론, 해당국가의 건설추진관련 관례 및 법령과 금융지원제도 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정보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야 함

-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그 계약이행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고, 건설공사가 여러 단계에 걸쳐 수십 개의 공종으로 이루어져 참여자가 많은 특성상 그 이행과정이나 대금지급 과정이 매우 복잡함
-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금융기관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해외건설전담금융기구는 높은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조달, 보증지원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

- 전담금융기구의 주된 역할은 우리 중견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해외진출과 수주를 위해 보증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1차적으로 높은 신용도,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보증지원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국내 건설사 등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합목적적인 조직구조를 갖춰야 함

- 전담기구는 해외건설의 지원을 위한 목적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이익추구보다 해외보증확대 및 중소기업지원 등의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중견이하 기업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에 기초한 보증서 발급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있는 자금조달 및 현지 사업진행에 대한 정확한

연구소

정보제공과 금융자문 등에 주된 목적이 있음

4.3.3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의 선결과제

- 상기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을 고려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다음과 같음

가.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및 이해관계 상충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와 기존 기관과의 업무상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수출입은행, K-sure, 건설(전문)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및 시중은행에서 일정부분 해외건설 보증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 신설기구의 역할 혹은 업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업무중복에 따른 기존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됨
 - 특히 공제조합 주장에 따르면 중견이하 건설사들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Bond를 발급하는 부분은 여전히 많지 않을 것이기에 신규 설립기구가 국내 타 금융기관의 업무를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높아 보임
 - 특히 신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는 외국환거래법의 제한으로 복보증 형태의 보증서만을 발급할 가능성이 높기에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K-sure, 서울보증보험 및 건설(전문)공제조합 등과의 분쟁 발생이 예상됨
 - 만약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가 외국환업무가 가능하여 직보증이 가능하여도 기존의 수출입은행 및 시중은행과의 마찰이 불

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과거 K-sure가 현지 은행에 직접 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수출입 은행과의 이해관계 이슈로 논란이 발생했고 그 이후 K-sure는 복보증 발급에 주력하고 있음
- 참고로 국내 금융기관 대상 이행정보증서 발급 현황을 보면 일 부기관이 전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수출입은행이 보증금액 규모가 전체의 31%, 외환은행이 29%, K-sure가 24.7%임
- 결과적으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가 어떠한 형태의 보증운영 을 수행하든 기존 기관과의 업무 마찰은 불가피해 보임

나. 자본 확충의 어려움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시 공사 형태와 조합 형태를 검토할 수 있으며, 두 형태의 기관 모두 설립 초기에 필요한 자본 확충 에 어려움이 예상됨

1) 공제조합 측면

- 공제조합 형태의 경우 기존 자금출자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우려 사항이 있음
- 신설을 추진하는 금융기구가 공제조합 형태일 경우 타 공제조 합과 같이 민간 건설업체들의 참여 및 출자가 필요한데, 현재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기존 조합에 자금을 출자하고 있어 신 규 조합설립을 위한 출자금 마련이 대기업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기업 등에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 참고로 2009년 설립된 건설감리공제조합의 경우 민간 건설

업체들의 참여 및 출자로 초기자본금 110억 원이 소요됨

<표 4.1> 건설감리공제조합 설립 예

공사명	설립 연도	법적 자본금	출자자	법적근거
건설감리공제조합	2009	110억	민간 감리 업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공포

§. 출처 : 건설감리공제조합

- 공제조합 형태는 신용도가 낮은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 건설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신용도가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들은 출자금을 늘려서라도 보증을 확대하고자 하여 실질적인 재정상태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중견 및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대기업의 경우 신규 설립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K-sure, 수출입은행,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을 받고 있어 본 조합에 적극적으로 출자할 의지가 없다고 밝힘
- 따라서, 자금력이 없는 중견 및 중소기업은 추가적으로 출자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신설조합에 출자를 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2) 금융공사 측면

○ 금융공사 형태의 경우 정부로부터 자본금 지원, 법적 절차 등의 문제로 설립이 지연될 수 있음

- 해외건설 금융공사의 경우 국내 ECA 기관과 서울보증보험, 건

설공제조합 등 해외건설에 지원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켜 관 주도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나,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의 대규모 출자가 요구됨

- 참고로 2004년에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정부 및 한국은행이 총 2조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바 있음

<표 4.2> 공사 형태 기업의 법적자본금 현황

공사 명	설립 연도	법적 자본금	출자자	법적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	2조원	정부, 한국은행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부 주도로 설립되어야 하는 해외건설금융공사의 경우는 법적 절차, 설립준비 등의 문제로 설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단계적 설립 절차가 필요할 것임

다. 법률 제정 및 설립 준비의 어려움

- 공사 또는 조합 형태 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적 설립 절차를 통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존재함
- 기구 설립 관련 법률제정 및 업무 개시일까지 법개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 건설업계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07년 창립된 건설감리공제조합의 경우 2007년 2월 정기 총회에서 건설감리공제사업을 추진하기로 공표한 이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공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손해배상공제업무요령 개정 고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공포, 국토해양부장관 공제사업 승인과정을 거쳐 2009년 7월 창립될 때까지 총 2년이 소요됨

라. 높은 국제 신용평가 및 인지도 확보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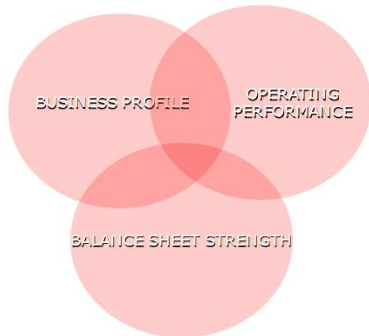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가 해외기관에서 인정하는 높은 신용도와 인지도를 가지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국내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의 대외적인 신용등급 및 해외 인지도가 매우 중요함. 일반적으로 해외 발주자 대부분은 건설보증으로 신용도 및 인지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요구함¹⁸⁾
- 그러나 신설 기구가 높은 신용도 및 인지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함
- 해외에서 보증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A.M Best Company가 있는데, 아래의 Rating 구성요소에 근거한 신용평가를 함. 이를 살펴보면 회사의 재무상황(B/S)만을 근거로 평가하지는 않으며, Business profile (전문성, 경영상 리스크 관리 기법, 경쟁력, 경영관리 등), Operating performance (Underwriting 등), Capitalization (Risk based capital) 등 다양한 요소를 근거로 평가하고 있음¹⁹⁾

18)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 2010.8

19) 미국, 일본 보증 사례조사 보고서, 2008.7

<그림 4.10> A.M. Best 신용평가 및 Rating 과정



[A.M Best사의 주요 Rating 구성요소]



[A.M Best사의 Rating 과정]

§. 출처 : 미국, 일본 보증 사례조사 보고서, 2008.7

- 그러나 처음 평가하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평가도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²⁰⁾
 - 신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가 새롭게 설립될 경우 상기 A.M Best Company와 같이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단순히 회사 신용평가 등급으로만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발주처의 신용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의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물론 신설 전담금융기구가 단기간에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K-sure와 같은 대외 신용등급 및 해외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됨

²⁰⁾ 미국, 일본 보증 사례조사 보고서, 20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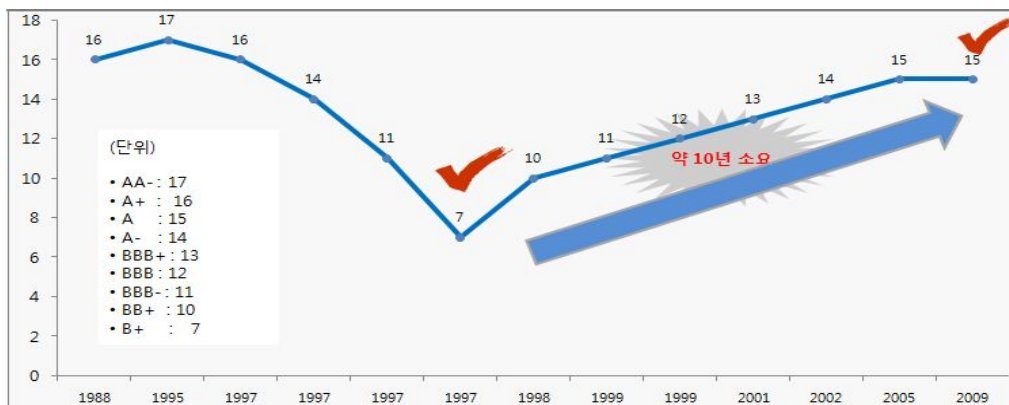
<표 4.3> 국내 보증기관 국제신용평가 현황

기업명	설립연도	국제신용 평가기관	등급
K-sure	1992	S&P	A
한국수출입은행	1976	S&P	A
서울보증보험	1969	S&P	A
외환은행	1967	S&P	A-
산업은행	1954	S&P	A

§. 출처 : 각사 홈페이지

-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전담기구가 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아야 현지 발주처에서 인정받기 용이할 것으로 보임

<그림 4.11> 한국 국가신용등급 추이(S&P)



§.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참고로 대한민국 국제 신용등급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최저 등급인 B+에서 2005년 A등급을 받을 때까지 대략 10년이 소요됨. 그 이유로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 신용등급 산정

- 시 거시경제정책과 성장전망, 대외부채, 부채상환능력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을 같이 평가했기 때문임
- 물론 국가 신용등급과 기업 신용등급 부여에서 평가 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평가절차 및 소요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공청회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해외보증보험을 시작하고 국제신용평가 등급을 S&P A등급으로 높이기까지 대략 10년이 소요되었다고 함

4.3.4 해외건설 금융컨설팅기구 사업모델

-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 해외건설업체의 해외진출시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기에 앞서 언급한 바대로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있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을 만듦으로써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임
- 현재는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책금융기관 정도이고, 여타 보증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해외건설·플랜트에 대한 금융지원 특히 중견이하 기업들에 대해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평가기관 설립에 공동 참여하여 이 기관에게 사업성 평가업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따른 금융(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한편, 대형건설업체들은 사내 금융전문가를 고용하고 유지할 여력이 충분하고 그 조직을 확대하며 더욱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나 중견, 중소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해외사업에 대한 금융전문성이 매우 낮고 전문가를 영입하여 유지할 여력도 크지 않음. 우리는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했듯이 복잡해진 금융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한순간에 동시다발적인 영향을 받는 등 국제금융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짐. 이렇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Capital market의 금융주선 등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우리기업들의 해외사업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므로 정보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소스를 찾아줄 수 있는 금융 컨설팅기구 형태의 사업모델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은행의 금융자문실처럼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신설 컨설팅 기구의 경우는 ECA뿐 아니라 시중은행 혹은 외국계은행까지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시켜 해외건설에 있어서는 최고의 금융컨설팅 전문기구로 만든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기구가 될 것이며, 여기에 국토부에서 조성하여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펀드(GIF)도 참여시켜 사업을 발굴하고 금융컨설팅을 제공한다면 더욱 넓고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4.3.5 OPIC(해외민간투자공사)과 유사한 정부주도의 해외건설금융공사

가. OPIC에 대한 설명

1) 기능 및 역할

-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해외민간투자공사)은 미국정부의 개발금융전담기관으로 민간자본(private capital)을 활용하여 세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1971년에 설립된 미국정부의 독립기관임



- OPIC은 국외 신시장과 이머징마켓에 지원대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민간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미국 사업체가 신흥시장에 자리 잡아 수익을 내고 모국과 상대국 양쪽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함
- 이 기관은 자존적으로 운영되며 자국민에 전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흑자를 내어 그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보유자금이 미국국채를 포함하여 약 50억 달러에 달하며 1971년 설립이후 4,000개 이상의 이머징마켓 사업

에 1,880억 달러를 투자함

- 지금까지 OPIC에서 지원한 거래는 약 740억 달러의 대외수출 및 274,000개의 자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OPIC은 총 130억 달러 규모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 중임
- 우리나라도 1998년 7월 30일에 양국 정부대표자가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투자촉진협정에 의해 지원대상국에 포함됨
- 일부는 MDB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상당히 유사하며, 크게 Insurance(보험, 보증), Financing(투자, 대출), Investment Funds(투자펀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그 밖에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상품이 있음
- OPIC 지원조건은 미국인이 사업주이거나 미국의 자본이 상당부분 사업에 투입되어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고용창출 또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함

2) 특징

가) 금융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기여

- OPIC의 최초 설립재원은 정부출현이었으나, 이후 일정부분은 매년 미 의회로부터 예산형식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매년 특정 지원액은 정해진 것은 없고, OPIC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도를 의

회에서 가격으로 산정하여 지원액을 도출하는 방식임

-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되 지원방식과 구조는 매우 유동적으로 구성 가능
- 지원대상사업은 단지 건설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호텔리노베이션, 농업, 미국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 중소 비즈니스 등 다양
- OPIC이 수행하는 Insurance, Financing, Investment funds 세 가지 금융지원의 간략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Insurance : 국제거래를 하는 자국투자자, 건설업자, 수출업자 그리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위험보험을 제공하며 상품 범위는 민간금융기관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영역도 포함하는 등 MDB의 보험/보증 기능과 유사함
 - Financing : 연매출 2억5천만 달러 미만의 미국업체에는 중소기업 금융 (small and medium-enterprise financing) 형식, 그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사회기반시설, 통신, 전기, 수자원, 주택, 공항, 호텔, 하이테크, 금융서비스, 천연자원채굴업과 같이 큰 자본을 필요로 하는 미국국적의 사업체에는 구조화금융 (structured financing)방식을 통해 지원
 - Investment funds :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펀드 중 하나이며 개도국 사모투자의 한계를 보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투자펀드 설립과 지원을 목적으로 함. OPIC 지원자금은 민간기관에서 조성되고 현지국의 민간회사에 투자된 펀드와 합쳐지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OPIC은 지원하는

펀드에 대해 채권자가 되며 보통 펀드 전체 규모의 1/3정도를 지원하고 투자함. 일반적으로 Zero coupon loan과 유사

- OPIC의 신용지원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OPIC이 직접 펀드에 투입한 금액을 훨씬 능가하며, 민간자본의 직접투자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어 투자를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나) 본국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이민자의 천국답게 다양한 민족·문화·인맥 등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음. 미국정부는 미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자국 내 사업에 누구보다 밝고 사업을 펼쳐나가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미국은 OPIC을 통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간접적으로 미국 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다) 현지 민간협력 및 리스크 관리

- 현지 유력민간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진행은 현지업체에 기술 및 지식전달을 통해 현지국 경제발전에 기여함. 또한 이를 통한 미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며 OPIC에서는 최대 75%까지만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추진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지분소유, 법인체의 관할 법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소유 지배권을 확보하여 지원국 사업에 참여함. 설립이후 현재까지 보험/보증 클레임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10억 달러 수준이고 그 중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95% 이상 이미 상환되었으며 나머지 5%는 미국정부의 압력을 통해 지금도 요청 중이고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함

나. 사업모델

- OPIC에서 참고할 만한 사업모델은 정부차원의 민간지원기구 측면으로 MDB의 지원방식과 달리 자국업체에 Tied방식의 금융을 제공하는 형태로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함. 이를 통해 사업자체의 신용도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앞서 언급한 바대로 결국 이상적인 해외건설 전담기구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좋은 해외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중견이하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될 수 있을 것임
 - 단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성한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해외건설금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이행성 보증 지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자금조달과 보험, 컨설팅분야 등 모든 형태의 해외사업에 일괄지원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나, 이 방안 역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임
 - 결국 해외건설금융공사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본금 마련은 일부분은 민간 베이스 혹은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으나, 소신있는 정부의 지원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

제5장 맺음말

5.1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타당성

- 최근 해외건설 수주누계액 5,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 연간 1,000억 달러 시대를 예고하고 있음. 이에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전문가들이 해외건설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구호는 '금융·인력·정보' 3가지로 특징지어짐
- 이 중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금융'임. 그동안 ECA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여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이하 건설업체에 대해 금융지원을 해주려는 노력은 일부 있었으나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됨
 - 중견이하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건설공제조합 등에서는 해외보증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서울보증보험도 소액위주의 보험에 주력하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내부 리스크 평가기준 등으로 인하여 획기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전문적인 해외프로젝트 지원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고객 밀착형 지원은 여전히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체의 경우 대기업은 당장 해결해야 할 보증 등의 문제는 없으나 여전히 수주경쟁력으로 직결되는 PF금융 등 경쟁력있는 자금조달 창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특히 프로젝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매년 수출입은행 및 K-sure가 자본금 증액 등 기금 운용
여력 확대를 위해 대정부 건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며, 동
일계열의 여신한도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도 특정 기업군 특히 중견·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구의 설립사례 즉, 최적의 롤 모델이 거의 없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최적 설립모델을 제시하기는 어
려우나, 본 연구용역을 통해 분명하게 도출된 결론은 기존의 금
융관행과 지원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 해외건설업의 획기적
인 확대 특히,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견건설업체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임. 그러므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
구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명분은 충분함

5.2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안)

상기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시 최
적의 모델에 대해 현실적인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가. 민·관 합동의 사업성평가 및 금융컨설팅기구 설립

- 단기간 내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정 등에 시간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설립자금 확보에
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이 역시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
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장기적 목표로는 공사형태의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되, 현시

점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견이하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성 평가와 금융 컨설팅을 전담하는 민·관 합동의 금융자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들과 충분한 조율과정을 거쳐 지원 연계성을 높이는 체제를 만들어야 함

○ 1차적으로 중견이하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

- 본 기구는 별도의 사업성 평가기관을 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기존 해외건설협회 내의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사업성 평가능력을 증대시키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함. 이러한 사업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견중소업체들의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의 공제조합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이 있음
- 이 경우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 형태로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흐름을 집중 관리해야 함
- 또한, 리스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우수한 능력을 지닌 타 업체가 해당 프로젝트를 인수하여 대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프로젝트 베이스의 지원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함

○ 2차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이하 기업의 해외진출시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 컨설팅기능도 갖춰야 할 것임

- 본 기구는 국제금융 조달 등을 포함하여 전체 프로젝트 금융구조를 함께 구조화하고 자문해 주는 컨설팅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임
-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이하 기업의 해외진출시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임.

○ 이러한 형태의 금융컨설팅기구 설립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에 따라 본 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음

나.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건설금융공사 설립

○ 해외건설관련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참여하는 공사형태의 해외건설전담기구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것으로 보임

- 해외건설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기구가 건설과 금융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전문성, 신용도, 안정적 보증 지원 능력을 가지고 중견기업 대상 안정적인 건설금융 공급 등의 공적 목적수행 등을 할 수 있어야 함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가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설금융 시장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 해외건설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기관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지 로컬은행으로 유출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해외 PR활동 강화, 신용도 확대노력을 위해서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지원이 불가피함
- 신용도가 다소 미약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

해야 하고 기업신용보다는 프로젝트의 사업성 위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체계적인 신용 및 사업성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리스크를 채신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모델을 수립해야 하는바, 이러한 부분은 공적인 지원을 위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정부예산의 지원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판단됨.

○ 미국의 OPIC(해외민간투자공사) 사례처럼 정부주도로 설립되어 해외진출 Fund 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해야 할 것임

- OPIC의 경우 정부주도로 설립자본금을 출자했듯이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한다면 초창기에는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사업성에 근거한 보증지원 기능부터 실시하되 실효성있는 지원기구로 정착하려면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는 OPIC과 유사하게 투자개발형 사업이나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사업 등 국내 ECA와 차별화된 방식과 상품(Insurance, Financing, Investment 등)을 취급함으로써 우리건설기업 특히 중견이하 기업들의 해외진출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할 것임
- 또한, 전담기구에서 보증한 보증서가 추후 Calling되었을 경우 일정 부분(50% 이내)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해줘야 국내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임

○ 현재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규모상 ‘해외건설금융공사’의 자본금은 최소 2조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기금이나

펀드 및 지원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이고 일관성있는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필요시 국내 연기금이 나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받을 수도 있을 것임

이상으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타당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었으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든 숙제로 남겨져 있음. 그러나 앞서 제시한 설립(안)처럼 민·관이 협력한다면 해외건설시장에서 업체별 옥석가리기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함

§. 부록 : 설문조사내용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관련 설문조사

2012. 1.

□ 설문 목적

2011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591억불로 전년도 716억불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수주 신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외형성장 이면엔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조달능력이 해외(건설)공사 수주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증서 발급문제가 가장 큰 사안임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재정이 건고한 중동국가들 마저 시공사가 일정부분 금융을 조달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이제는 '해외건설 금융경쟁력이 곧 수주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작년 말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해외건설협회와 KPMG Advisory가 이를 공동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해외건설 지원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내지는 해외건설 금융지원 전담기구 설립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디 본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오며, 제출해 주신 자료는 본 타당성조사 용역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드립니다.

□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 정창구 실장(cgjung@icak.or.kr, 02-3406-1062)
은승진 과장(eun@icak.or.kr, 02-3406-1183)

□ 설문지 제출(이메일 혹은 팩스)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 김효은 대리(hekim@icak.or.kr, 02-3406-1064)
손준형 사원(sonjh@icak.or.kr, 02-3406-1061)
FAX. 02-3406-1123

□ 설문 응답기관 정보

업 체 명		주력공종	
본부(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부(부서)장 성명	
설문 응답자 직급		이 메 일	
성 명		연락처	

※ 본 설문은 반드시 본부(부서)장의 승인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하며, 설문답변은 설문응답자 개인의 의견이 아닌 업체 혹은 부서의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조사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1. 업체당 **복수 부서**의 응답이 가능합니다.
 ☞ 필수 회신부서 : 해외(수주)영업본부(부서) / 자금(금융)부서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금융조달(보증 포함)과 관련된 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응답바랍니다.
2. 설문조사의 회신내용에 대해 **해당본부(부서)장의 확인**을 득한 후 송부바랍니다.
3. 설문서상 기재 내용(금리, 수수료율 등)은 **정확한 숫자**를 기재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본 설문서의 회신내용은 금번 타당성조사 영역의 기초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회사의 실명이나 기입하신 내용은 절대 보고서상에 단독으로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제출마감일 : 2012. 2. 3(금)

[설 문 서]

□ 해외건설 금융(이하 이행성 보증 포함) 현황관련

1. 귀사는 2012년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을 전년대비 몇 % 증대할 것으로 설정하십니까?

- | | | |
|-----------|-----------|-----------|
| 가. 5% 이하 | 나. 10% 이하 | 다. 20% 이하 |
| 라. 30% 이하 | 마. 50% 이하 | 바. 50% 이상 |

1-1. 귀사는 지난해(2011년) 해외건설 부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였습니까?

- | | | |
|-----------|-----------|-----------|
| 가. 10% 이하 | 나. 25% 이하 | 다. 40% 이하 |
| 라. 60% 이하 | 마. 75% 이하 | 바. 75% 이상 |

1-2. 귀사는 향후 3년 해외건설 부문 매출액(2015년경)을 연간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로 계획 중이십니까?

- | | | |
|-----------|-----------|-----------|
| 가. 10% 이하 | 나. 25% 이하 | 다. 40% 이하 |
| 라. 60% 이하 | 마. 75% 이하 | 바. 75% 이상 |

2. 최근 투자개발형 사업이나 시공자금융을 요구하는 해외사업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사가 향후 가장 주력하고자 하는 해외사업형태가 무엇입니까?

- 가. 개도국 민자사업(PPP, BOT, BTL 등 포함)
- 나. 해외부동산개발사업(디벨로퍼 등)
- 다. MDB(World Bank, ADB, IDB, AfDB 등) 발주사업
- 라. 국내 ODA사업 (EDCF, KOICA 사업 등)
- 마. 상대국 재정(도급)사업 (플랜트, 토목·건축 포함)
- 바. 해당사항 없음

가. 현재 혹은 장래에도 그다지 문제시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 현재는 별 문제 없으나 향후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현재 일정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본다.

라.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래에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마.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 문제로 해외수주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 기타의견 ()

$$(\quad) - (\quad) - (\quad)$$

- 2 –

6-1. 상기 내용에 의하면 원활한 금융지원이 귀사의 해외 진출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데, 과연 귀사는 금융 경쟁력이 다른 부문(기술경쟁력 등)에 비해 전체 수주를 결정짓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 | | | |
|-----------|-----------|-----------|
| 가. 10% 이하 | 나. 25% 이하 | 다. 40% 이하 |
| 라. 60% 이하 | 마. 75% 이하 | 바. 75% 이상 |

- 용어정의 -

- 국내은행 :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시중은행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국내은행으로 분류)
- 현지 로컬은행 : 해당국 현지은행만 의미
즉, 씨티뱅크 아부다비 지점은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
- 보험부보 : K-Sure, 서울보증보험,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관 등에서 발급한 모든 보험 포함

7. 귀사는 현재 해외건설관련 자금조달시 주로 어떤 기관을 활용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복수선택(최대 3개) 가능>

() - () - ()

- 가. 수출입은행
- 나. 산업은행
- 다. 국내 시중은행(주거래은행)
- 라. 외국계은행
- 마. 현지 로컬은행
- 바. 기타 (제2금융권, 개인투자자, 연금, 사채 등)

7-1. 상기 자금조달시 주된 담보는 무엇을 제공하였습니까?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복수선택(최대 3개) 가능>

() - () - ()

- | | | |
|--------------|------------|----------|
| 가. 예금담보 | 나. 부동산담보 | 다. 보험 부보 |
| 라. 본사(계열사)보증 | 마. 해외기관 보증 | 바. 신용 |

8. 귀사는 현재 보증서(Bond) 발급 시 주로 어떤 기관을 활용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복수선택(최대 3개) 가능>

() - () - ()

- | | | |
|------------|-----------------|------------|
| 가. 수출입은행 | 나. 시중은행 | 다. 외국계은행 |
| 라. 현지 로컬은행 | 마. 기타() | 바. 해당사항 없음 |

8-1. 상기 보증서 발급시 어느 기관의 부보를 활용하였습니까?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복수선택(최대 3개) 가능>

() - () - ()

- | | | |
|-----------|-----------|---------|
| 가. K-Sure | 나. 서울보증보험 | 다. 공제조합 |
| 라. 국내은행 | 마. 해외보증기관 | 바. 부보없음 |

8-2. 상기 보증서 발급시 주된 담보는 무엇을 제공하였습니까?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복수선택(최대 3개) 가능>

() - () - ()

- | | | |
|--------------|------------|----------|
| 가. 예금담보 | 나. 부동산담보 | 다. 보험 부보 |
| 라. 본사(계열사)보증 | 마. 해외기관 보증 | 바. 신용 |

9. 귀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 혹은 보증서 발급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가. 금리수준 및 수수료율
- 나. 적시성(신속한 승인여부 통보)
- 다. 담보제공 내용(담보비율 등)
- 라. 상대국 요구기준(은행 신용등급 등) 충족여부
- 마. 보증(대출)기간
- 바. 지원만 해준다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다.

9-1. 귀사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시 활용하는 금융조건(보증수수료 혹은 조달금리 등)이 해당 사업의 총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가. 10% 이하 | 나. 20% 이하 | 다. 30% 이하 |
| 라. 40% 이하 | 마. 50% 이하 | 바. 50% 이상 |

10. 현재 귀사가 국내거래은행(수출입은행 포함, 해외 로컬은행 제외)에서 Bond 발급 시 수수료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가. 0.5% 이하 | 나. 0.5% 초과~1.0% 이하 | 다. 1.0% 초과~1.5% 이하 |
| 라. 1.5% 초과~2.0% 이하 | 마. 2.0% 초과~3.0% 이하 | 바. 3.0% 초과 |

10-1 복보증 내지는 복복보증 형태일 경우 총수수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가. 0.5% 이하 | 나. 0.5% 초과~1.0% 이하 | 다. 1.0% 초과~1.5% 이하 |
| 라. 1.5% 초과~2.0% 이하 | 마. 2.0% 초과~3.0% 이하 | 바. 3.0% 초과 |

11. 귀사는 보증서(Bond) 발급시 현지 발주처에서 지정한 현지은행에서 직접 발급하는 비율이 전체 해외 프로젝트의 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가. 0% | 나. 10% 이하 | 다. 25% 이하 |
| 라. 50% 이하 | 마. 75% 이하 | 바. 75% 이상 |

11-1. 이 때 수수료율은 국내금융기관(수출입은행)과 비교해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가. 수은보다 훨씬 낮다. | 나. 수은보다 낮다. | 다. 수은과 비슷하다. |
| 라. 수은보다 높다. | 마. 수은보다 훨씬 높다. | 바. 비교 불가능 |

11-2. 담보 등 제반요구조건은 어떠합니까?

- 가. 100% 신용으로 취급한다.
- 나. 현지 은행에 A/C 개설 조건으로 취급한다.
- 다. 일부 담보를 요구하나 그 비율이 발행금액의 50% 이하이다.
- 라. 시공사의 본사보증을 요구한다.
- 마. Escrow A/C 개설 요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다.
- 바.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12. 귀사는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이행성보증 발급 포함)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복수선택(최대 3개) 가능>

() - () - ()

가. 해외건설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

나. 상대국 Sovereign Risk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므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라. 국내 PF 부실 등에 따른 위험분산 차원

마. 국제적인 금융기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Funding 능력 등

바. 국내 개인(소매)금융에 익숙한 관행 때문

12-1. 귀사는 실제로 해외건설 공사 수주 실패 원인이 보증 혹은 자금조달 문제였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주십시오.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12-2. 해외건설공사 수주 실패 원인이 보증 때문인 경우가 전체 수주실패 원인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십니까?

가. 5% 이하

나. 10% 이하

다. 20% 이하

라. 30% 이하

마. 40% 이하

바. 40% 이상

13. 귀사는 자금지원(보증 제외)을 받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가장 원하십니까?

가. 현지 SPC 설립 시 자본금(Equity) 형태로 지원(장기투자금 형태)

나. 좋은 조건의 대출(Debt)형태로 프로젝트에 지원(운전자금 포함)

다.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으로 지원하는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금융(PF)


라. 시장개척지원자금 등 매몰성 비용형태의 지원금 확대

마. 해외 ABS 혹은 ABCP 등 자금조달형태를 보다 다양화

바. 기타 → 문제 15번에 기술요망

가. 6% 이내 나. 7% 이내 다. 8% 이내
라. 9% 이내 마. 10% 이내 바. 12% 이내

가.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무조건적인 담보 요구
나. 본사 보증이나 우량 계열사 지급보증
다. 과도한 수수료 청구나 연체이자 징구
라. 예금가입 강요나 대출과 무관한 금융상품 판매행위(퇴직연금 가입 등)
마. 현장실사를 위한 현지출장 등 실비성격의 비용 과다청구
바. 기타 ()



□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모델 관련

16.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한 상황이다.
- 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설립되어야 한다.
- 다. 필요성은 느끼나, 외부(타 기관 등)의 견제로 인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 라. 시급하지 않으며, 기존의 금융기구들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편이 낫다.
- 마. 불필요하다.
- 바. 기타의견 → 문제 21로 이동

16-1. 만약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신규 설립한다면 현재 회사의 역량으로 다음해에 해외 수주액을 어느 정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 | | |
|-----------|-----------|-----------|
| 가. 10% 이하 | 나. 25% 이하 | 다. 40% 이하 |
| 라. 60% 이하 | 마. 75% 이하 | 바. 75% 이상 |

16-2.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 금융기구에 보다 활발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회사의 역량으로 다음해에 해외 수주액을 어느 정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 | | |
|-----------|-----------|-----------|
| 가. 10% 이하 | 나. 25% 이하 | 다. 40% 이하 |
| 라. 60% 이하 | 마. 75% 이하 | 바. 75% 이상 |

17. 만약 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가 설립(기존기구 확대 포함)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설립 혹은 개편되길 바라십니까?

- 가. 해외건설공제조합 신설 → 문제 17-1과 18로 이동
- 나. 해외건설금융공사 신설 → 문제 17-1과 19로 이동
- 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업무영역 확대 → 문제 20으로 이동
- 라. 수출입은행 등 ECA기관의 자본금 확충 등으로 지원 확대 → 문제 21로 이동
- 마. 불필요함
- 바. 기타의견 → 문제 21로 이동

17-1 위에 열거된 기관들 중 가와 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복수선택(최대 3개) 가능>

() - () - ()

- 가. 기존 금융기관보다 보증서 발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 나. 수수료가 저렴할 것으로 판단
- 다. 해외건설 사업성 평가에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
- 라. 해외건설 진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
- 마. 별도 담보 요구 등과 같은 각종 추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
- 바. 사업수행에 대한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

<해외건설공제조합을 택한 경우>

18. 해외건설공제조합 형태로 설립을 추진한다면 조합원들의 출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귀사는 해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어떠한 지원을 받고자 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복수선택(최대 3개) 가능>

() - () - ()

- 가. 이행성보증(Bond) 발급을 위한 보증서 발급
- 나. 출자금 한도 내에서의 대출(융자업무)
- 다. 공제업무(해외건설관련 보험 - 건설공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해외근재보험 등)
- 라.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른 배당수익 추구
- 마.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사업성 평가기능
- 바. 금융 리스크에 대한 상담기능(실무자 대상)

18-1. 만약 귀사에서 가칭 '해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다면 이행성보증 발급한도는 출자금의 몇 배수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P Bond 기준)

- | | | |
|---------|---------|---------|
| 가. 2배수 | 나. 3배수 | 다. 5배수 |
| 라. 10배수 | 마. 20배수 | 바. 30배수 |

18-2. 만약 귀사가 가칭 '해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다면 출자금은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 | | | |
|-------------|------------|------------|
| 가. 0.5억원 이하 | 나. 1억원 이하 | 다. 5억원 이하 |
| 라. 10억원 이하 | 마. 50억원 이하 | 바. 50억원 이상 |

18-3. 가칭 '해외건설공제조합'의 초기 설립 자본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가. 1,000억원 나. 2,000억원 다. 3,000억원
라. 5,000억원 마. 1조원 바. 기타()

18-4. 본 출자금 구성은 조합원과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투자비율(조합원 : 재무적 투자자 등)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10 : 0 나. 9 : 1 다. 8 : 2
라. 7 : 3 마. 6 : 4 바. 5 : 5

18-5. 은행권 보증발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복보증 혹은 복복보증 형태로 운용해야 합니다. 귀사에서 원하시는 본 조합의 보증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AP-Bond 기준)

- 가. 현행 유사한 기능의 K-Sure보다는 경쟁력 있는 요율을 제시해야 한다.
나. 기업의 신용도와 출자액에 따라 정하되 최대 1.5% 이하
다. 1.0% 이하
라. 0.75% 이하
마. 0.50% 이하
바. 0.25% 이하

→ 문제 21로 이동

<해외건설금융공사를 택한 경우>

19. 가칭 '해외건설금융공사'를 정부 주도로 설립한다면, 국내 ECA기관과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해외건설에 지원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관 주도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의 모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해외건설금융공사'가 출현한다면 어떠한 지원 모델이 바람직할까요?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복수선택(최대 3개) 가능>

() - () - ()

- 가. 해외건설관련 각종 보증서(이행성보증 등) 발급업무
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해외건설관련 대출
다. 해외건설관련 각종 보험 업무
라. 사업 타당성조사(F/S) 관련 업무 등
마. 해외현지 발주처 앞 시장개척단 파견, 수주협의회 주도 등
바. 기타의건 → 문제 21로 이동

19-1. 가칭 '해외건설금융공사'가 설립된다면 자본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가. 1조원 수준 | 나. 2조원 수준 | 다. 3조원 수준 |
| 라. 5조원 수준 | 마. 10조원 수준 | 바. 10조원 이상 |

19-2. 본 '해외건설금융공사'를 설립 시 기존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협조를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설득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 설립근거를 법으로 제정한다.
- 나. 국내 ODA 지원기관들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맞물려 신규 설립을 추진한다.
- 다. 일본의 JBIC이나 JICA, 미국의 USTDA나 OPIC의 특징점을 설립명분으로 활용한다.
- 라. 국내 건설보증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설립명분 확보
- 마. 중국의 건설은행 등을 활용한 지원강화정책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심화 상황부각
- 바. 기타의견 → 문제 21로 이동

19-3. 사실 본 '해외건설금융공사'는 설립된다 해도 제기능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사에서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 21로 이동

20. 국내공제조합이나 보증사들이 해외건설분야의 금융지원에 소극적이었는데, 만약 이들 기관들을 활용하여 국내 건설보증 등에 지원한 자원 등을 활용하여 해외건설에 지원한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별도의 지원규모 설정 후 해외건설분야에 대폭적인 지원체계 개편

나. 해외건설협회의 협조 하에 해외건설 사업성 평가능력 등 적극 활용

다. 기존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출자금 중 해외진출기업들 앞 보증한도 별도배정

라. 공제조합 특성상 공격적인 보증지원은 어려운 바, 일정부분 보증사고에 대해 정부에서 해소해 주는 방안검토 필요

마. 개별 공제조합별로 분산되어 있는 공제조합의 지원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규모 확대

바. 기타의견 → 문제 21로 이동

21. 귀사에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모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